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2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452 호

불자 공무원 '信바람' 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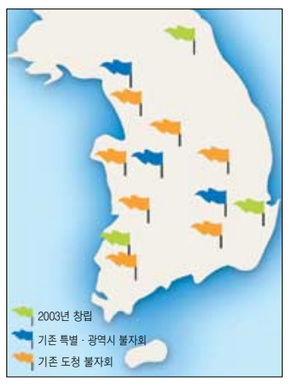
광역시 · 도청마다 불자회 결성 … "신행 활기"

공무원 불자들의 '信바람'이 전국을 휘감고 있다.

지난 11월 강원도청 불자회가 결성돼 제주도를 제외한 8곳의 도청 불자회 창립이 마무리됐고, 오는 12월 20일이면 광주광역시청 불자회 출범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도 · 광역시청에 불자모임 결성이 끝난다. 그야말로 공무원 불자들이 일으키는 신행바람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특히 이들 도 · 광역시청 불자회는 관내 단위 기관의 불자회 창립에 기폭제로 작용, 전국 방방곡곡에 '공불련 깃발'을 나부끼고 있다. 최근 100호 불자회를 탄생시킨 경찰불교회와 함께 공무원 불자들이 '일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넓히고 있는 셈이다.

본지가 조사한 '지역 행정직 공무원 불자회 현황'에서도 '합장'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12월 현재 도 · 광역시청 불자회를 뺀 단위 기관의 불자회 창립이 끝난 지역은 서울(25개구), 부산(1개군 · 15개구), 대구(1개군 · 7개구), 대전(5개구), 경남(10개시 · 10개군) 등 총 5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25개시 · 6개군), 전남(5개시 · 17개군), 전북(6개시 · 8개군), 강원(7개시 · 11개군) 등은 각각 13, 7, 5, 4곳의 불자회가 창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6개시 · 9개군), 충북(3개시 · 8개군), 제주(2개시 · 2개군), 광주(5개구) 등은 1곳(공주, 청주, 제주, 서구청), 울산(1개군 · 4개구), 인천(8개구 · 2개군) 등은 단위 기관불자회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 광역시청 공무원 불자회 분포도.

공불련, 개별 공무원 불자회 노력 결실

"범종단 지도법사단 구성 취약지역 지원"

이처럼 공무원 불자회의 눈부신 성장은 출범 3년차를 맞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공불련은 그간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해온 전국의 공무원 불자회를 한데 묶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불련은 △미창립 기관 불자회원의 개별 가입 허용 △연합회 단위의 합동법회 및 연합수련회 △중앙사무국의 체계적인 지원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공불련은 또 올 2월 전국 단위 기관불자회 첫 총무단 회의를 갖고, 조직 운영을 권역별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산하조직을 서울 · 경기,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등 총 6개 권역별로 개편, 산하 지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미창립 기관 불자회 창립을 유도해냈다.

공불련은 기존 재가불자 신행패턴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거사불교'의 새로운 신행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지역 불교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남, 전남, 대전 등은 공무원불자연합회를 결성, 지역불교의 중심축으로 이미 부상했다.

공불련 안홍부 사무국장은 "초창기 감사원, 국정원 불자회가 연합회 결성을 주도하면서 창립을 주저하던 지역 공무원 불자들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공불련 성장배경이었다"며 "앞으로 충청, 전라, 인천, 광주 등 불교세가 약한 이들 지역의 불자회 창립을 위해 범종단 차원의 지도법사단 구성, 기존 신행단체와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수종사 금동제9층소탑

국내 첫 금제탑 확인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제탑이 확인됐다. 수종사 석조 부조에서 출토됐던 '금동제9층소탑'(보물 제259-2호, 사진)이 '금제9층소탑'으로 밝혀진 것.

이 탑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의 비파괴 분석조사결과 구리에 도금한 '금동제'가 아닌 '금제'로 나타났다. 비파괴 분석기인 이동형 X선형광분석기로 표면 분석한 결과 금(83.19%), 은(16.36%)이 주성분을 이루고 불순물인 구리(0.33%), 철(0.08%)이 혼입돼 있었다.

높이 12.9㎝의 이 9층탑은 표면이 구리 빛을 띠고 기단부에서 청동 부식물이 관찰돼 금동제로 알려져 왔었다. 오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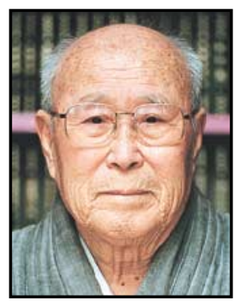



"빛으로 다시 오소서" 12월 4일 원적에 든 월하 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이 10일 통도사에서 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이 끝난 후 법구를 다비장으로 이운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사진= 박재완 기자

본원종 종정

태허 스님 원적

8일 연방사서 종단장으로 영결식



본원종 제3세 종정 태허당 계한 대종사(사진)가 12월 6일 오후 1시 30분경 주석처인 예천 연방사에서 원적했다. 세수 88세, 법랍 75세.

태허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가도 가도 한이 없는 생명에 무엇이 새로 있으랴. 남(生)도 죽음도 그대로 나도다."라는 게송을 남겼다.

1916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스님은 29년 상기사에서 경원 스님을 은사로, 동연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이래 김룡사, 강릉 월정사, 문경 봉암사, 예천 서악사 등의 강원과 선방을 거치며 수행에 매진했다.

그러나 스님은 '대중의 근기에 맞는 쉬운 불교를 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89년 본원종을 창종해 지금까지 종정을 지내며 종도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 왔다.

스님의 영결식은 12월 8일 예천 연방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 북한산 문제 내주 최종입장 결정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가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12월12일 종무회의를 열고 빠르면 다음주 중 최종 입장을 결정짓기로 했다.

조계종의 최종 입장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의 관통 반대 단식정진안도 포함돼 있어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청소년 활동 점수인증제 도입

봉사 · 탐험 · 문화활동 진학 · 취업 우대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 포교에 활용해야

청소년 활동 종합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12월 6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불교계 청소년포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2007년까지 시행되는 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각종 봉사 · 탐험 · 문화예술활동 등 영역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점수로 인정돼 향후 진학 및 취업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침에 따라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청소년 관련서비스 기관과 단체를 통합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사찰별로 이뤄지고 있는 여름 · 겨울수련회와 템플스테이 활동 등을 불교문화탐방과 체험활동으로 분류가 가능해져 청소년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찰과 불교계 청소년관련 단체 역시 청소년 활동 종합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그 동안 불자청소년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이 일반 청소년들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 구 :(053)768-8008 호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 릉 :(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문화의 상품화

불교문화유산을 상품화하기 위한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정재훈(65) 석좌교수는 12월 9일 '(가칭)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단' 창립제안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제안서에서 각계 전문가와 행정관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단'을 설립해 경주시의 불교문화유산 종합보존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험상품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주의 불교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1970년대 경주고분 발굴조사단이 계획했던 황룡사9층 목탑 복원을 비롯 신라 불교유적 정비, 신경주역 박물관 등을 건립해 경주의 불교문화를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준 경주대 관광학부 교수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남산을 비롯 감은사터, 신라고찰 기림사, 선무도 수련장인 골굴사, 노천박물관 경주남산 등을 연결하는 불교문화 체험상품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함을 지적했다.

우리의 불교문화 속에는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럼으로 불교문화유산을 체험하는 것은 민족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 외국인들에게도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관광상품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체험관광이 아닌 대부분이 스쳐지나가며 잠깐 보고 마는 형태이다. 불교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관광업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교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을 사찰과 연계해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한솔 銀 세라믹매트
純銀 99.9%
100% A/S보장
- 한솔 銀 세라믹 매트 · 강력한 銀의 항균력 -
● 은과 접촉하여 6분이상 살수 있는 세균은 없다고 합니다.
● 銀은 현재까지의 실험결과 지상의 거의 모든 단세포 병균을 살균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물, 커피, 쥬스 등 액체를 매트에 흘렸을 경우 마른수건으로 닦아 주는것으로 매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 정 필 증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앞선 기술력의 (주)한솔의료기의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한솔 銀 세라믹매트 / 왜? 비싼 「銀」을 사용했을까요?
서양에서는 은제(銀製)컵을 사용하여 병의 감염을 막아 왔으며, 은전(銀錢)을 항아리에 넣어 우유의 변질을 막고 은상자속에 음식을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용 접시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동, 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은을 자연항생제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시 은은 귀금속으로서 그 값이 비싸서 일반 대중은 사용할 수가 거의 없었고 왕궁에서는 은이 인체에 미치는 특이한 점을 이용하여 모든 식기 및 장신구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세기 때 유럽지역에 '페스트'가 창궐했어도 왕궁에는 단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한솔의료기에서 은을 소재로한 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수면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
여름에는 시원하게 !
한솔 銀 세라믹 매트 내부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300개의 고급 세라믹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銀세라믹 매트(더블)
· SIZE : 200cm×140cm · 소비자가 : 199,000원
▷ 銀세라믹 매트(싱글)
· SIZE : 195cm×100cm · 소비자가 : 109,000원
▷ 銀세라믹 세트(더블+싱글)
· 소비자가 : 298,000원
(주)한솔의료기 Hansol Medical Co.,Ltd
건영시스템 www.kysystem.co.kr
★ 주문전화 080-903-8000
음전위: 온열 난방

사 설

공무원불자회 전국 조직화 의의

공무원 불자 조직이 전국화됐다. 12월 20일 광주시청불자회가 결성됨으로써, 제주도청을 제외한 전국의 특별(광역)시청 · 도청에 근무하는 불자들이 조직체계를 갖춘 것이다.

공무원불자회도 하나의 직장불교단체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 특성으로 볼 때 단위사업장 규모의 직장불자회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대민 서비스는 그 자체로 바라밀행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불교 단체와 연대, 효과적인 포교는 물론 불교인의 대사회활동의 중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공무원 불자의 조직화는 불교의 사회적 저변이 넓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신행공동체'로서의 성격이다. 흔히 불교 교단을 일컬을 때 '사부대중'을 말하지만 그것은 승 · 속을 망라한 포괄적 개념일 뿐, 당장 손을 맞잡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모임은 아니다. 앞으로 재가대중은 일터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모임으로 그 정체성을 새로이 할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 불자회가 구심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계종단에서는 일과성의 지원이나 형식적인 격려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적인 법사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지역의 특정 사찰을 원찰 개념의 신행 근거지로 맺어주는 일도 당연한 수순이다.

공무원 불자회의 전국 조직화는 사회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화 · 탈사찰화 · 개인화의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공무원 불자회의 활성화를 계기로 전국 직장 · 직능 불자회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심 밖에 있는 원력 보살들

'좋은 벗 풍경소리'라는 단체가 있다. 어린이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어린 마음에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주고자 하는 단체이다. 십시일반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지난 10여년이 형극의 길이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마음이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는 '맛지마 니까야' 봉정식이 있었다. 한 개인이 부처님 본래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원력으로 빨리어 원전을 번역하여 출간했다는 고불식(告佛式)을 올린 것이다.

크고 작은 단체나 개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너나없이 상생과 해원의 노래를 부르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종단 역시 각각의 형편에 따라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체나 개인의 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된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불교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경전을 번역하는 일은 불교적 가치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일을 열악한 단체나 특정 개인이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종단적 지원이나 불교계 전반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불교도임을 부정하는 일이나 진배없다고 말하고 싶다.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 불교계 전반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승가 의무교육 8~10년은 돼야"

조계종 강원교직자 대상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교육목표 수행자 품성 · 자세확립 우선
삼보사찰 등 여법한 도량서 교육토록

전국 강원에서 예비승려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스님들은 조계종의 현재 승가교육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정산)이 12월 11~12일 전국의 강원 교직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산사에서 개최한 '승가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승가의 기초 · 기본 교육체계 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승가교육체계 개혁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현재의 '선득도 후교육' 체계를 '선교육 후득도'로 전환하고 4년 교육 후 사미계 수지를 포함, 최소 6년의 교육을 마쳐야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터라 이미 '개혁'을 넘어 '혁명'의 물줄기를 타고 있는 상태.

현장에서도 현재의 의무 교육기간이 짧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듯했다. '조계종 교육과정에 대하여…'를 발표한 정묵 스님(불국사 승가대학 교수)은 "의무교육을 전문교육까지 10년 정도로 법제화해서, 출가하면 최소한 10년간은 공부만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조계종 승가교육과정 일원화를 위한 방안' 발표에서 "승가교육의 전체 의무교육 연한을 8년으로 잡을 것을 제안"했다. 두 스님은 종단 의무 교육을 최소 4~5년 이상 받아야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 후에도 4~5년의 전문 · 특성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본격적인 관심은 승가교육체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모아졌다. 정묵 스님은 "기초 · 기본 교육은 수행자로서의 자기 입지를 확고히 하고 수행자로서의 기본 품성과 심신의 자세를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초발심자로서 승가의 가풍을 훈습하고 승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교육원 같은 별도의 상설 행자교육원보다는 삼보사찰(三寶寺刹) 등 여법한 도량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각 스님 역시 "기초 · 기본 교육은 수행자로서의 상을 지키고 함양하는 교육이 돼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교육은 그 다음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장소 역시 전통사찰이 갖추고 있는 수행환경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광 스님(운문승가대학 교수)은 "승가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조계종에 속한 수행자로서 어떤 승가상을 구현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야 한다"며 "승가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교육방법의 실질적인 장점과 내용 등을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주체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사회복지대회 개최
19일 목동청소년수련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19일 서울 양천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 '2003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1부 기념법회와 2부 '불교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로 진행되며, 대만 자제공덕회 기획홍보담당자의 '해외불교 자원봉사 사례' 소개 시간도 마련된다. 2부 세미나에서는 '불교자원봉사 참여 실태 및 현황', '불교자원봉사 조직강화 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스님 법문 가장 즐겨 읽어요"

조계사, 사보 독자조사, 평균 1.7개 단체서 실행

재가불자 10명 중 4명은 신행방식으로 불교대학의 공부를 선호하고, 평균 1.7개의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사(주지 지홍)가 12월 10일 발표한 '조계사보 독자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최근 일반화된 불교대학 교육과정이 재가불자들의 보편적인 신행방식으로 자리매김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신행방식은 불교대학(41.6%), 재일법회 참석(36.6%), 신행단체 참석(24.5%)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이는 그간 재일법회 참석 위주의 소극적인 재가불자 신행패턴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불교대학으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설문 조사를 실시한 조계사의 경우, 지난 1989년 불교기초교육과정인 불교대학 설립, 2001년 전문지도자과정 불교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모범적인 신도교육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또 신행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8.6%가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한다고 답했으며, 신행활동 단체는 평균 1.7개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즐겨 읽는 지면은 스님 법문(42.5%)이 가장 많았고, 신설되길 바라는 코너는 스님들의 수행기(42.6%), 경전문구 풀이(38.6%), 해외불교성지 소개(1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직업별 신행행태의 경우, 화이트칼라층과 자영업자는 법회 동참(20.6%, 30.8%)을, 전업주부는 신행단체 가입(47.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우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24일 동국학원 이사회
신임이사장 선임 논의

제195회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가 12월 24일 오전 11시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동국학원 새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동국학원 이사장 자리는 전임 이사장 정대 스님이 지난 11월 18일 입적함에 따라 한 달여간 비어 있는 상황이다. 권형진 기자

1면에 이어서

그러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가칭)를 통해 청소년 활동 종합인증서 발행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수련회나 청소년참가프로그램에 청소년지도사를 상근시켜야 한다.

현재 1,2,3급 자격증을 갖고 활동 중인 불교계 청소년지도사는 70여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지도사가 8,573명인 것에 비하면 1% 도 미치는 못하는 적은 수치이다.

최근 정부는 2007년까지 13,000여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청소년전문가들은 종립대학내에 청소년관련학과를 설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고 불교문화를 한국역사로 재해석하는 문화콘텐츠 개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목동청소년수련관과 양정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이 그 모범답안. 이들 청소년수련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프로그램들과 동아리활동, 길거리 농구대회, 음악 · 미술 · 영상활동 등은 청소년기본육성계획의 주요 추진 사업이며, 2007년까지 지방양여금 형식으로 30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실행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참여가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이 급속화될 전망"이라며 "종단뿐 아니라 불교계 청소년단체들은 이를 적극 활용, 청소년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본사사령

이동혁
편집국 취재1부 기자
의원면직
2003년 12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 에게 드리는 글

본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며 다음의 사항으로 글을 드리오니 장자종단의 포교원장으로서 한국불교의 포교활성화와 재가불교의 바른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라오며 포교사단의 조직과 운영을 밝고 바르게 운영하옵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다 음

본 불자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귀 종단의 포교사로서 활동하였으며 그동안 포교사단 중앙운영위원 및 부산 경남포교사단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 8월 귀종단의 불자교육기관으로 금강불교대학을 설립 등록하여 포교사 32명을 배출하여 경남지역의 포교활동에 중추적인 역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불자는 포교원에 중앙포교사단 및 부산 경남포교사단의 조직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 요청을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 불자를 불명예스럽게 하였기에 현실을 바르게 밝히고 전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1. 중앙포교사단의 운영 및 포교회관건립기금 유용 등 기타의혹과 목적금의 불법 변칙사용을 바르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경남포교사단 단장의 공금유용 및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단장 및 임원선출 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전문화 포교사제도와 사찰 상임포교사 제도를 속히 시행하시여 포교사들의 포교활동에 큰 격려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조 재완 드림

"몸을 뒤쳐 집으로 돌아갔다"

월하 스님 다비식 10일 봉행

운구행렬 연화대 한바퀴 돈후 거화

사리 50여과 수습… 정변전 봉안

"스님, 불 들어갑니다."

영축산을 호령하던 큰 별이 세속의 마지막 연을 벗는 순간이었다.

조계종 제9대 종정이자 통도사 방장인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12월 10일 통도사 경내와 다비장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과 부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 원명 지종 성수 녹원 보성 활안 지관 진제 지혜 정천 천운 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자월 스님 등 5만여 사부대중이 참석,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정·관계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이태일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주양자 자민련 부총재, 추미애 민주당 의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오지철 문광부 차관, 조윤제 청와대 불자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 스님의 월하 스님 행장 소개, 육성법문 청취,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영결사, 종정 법전 스님의 법어,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의 추도사,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과 수좌대표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의 조사로 이어졌다.

종정 법전 스님은 추도법어에서 "오늘 아침 영축한 한 늙은이가 여기에서 몸을 뒤쳐 허공을 향해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며 "비로자나 부처님이 꽃 한송이를 드니 부처와 불조는 물밑에서 잠을 다도다"라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영결사에서 "불조의 연꽃은 불에서 피어나도 시들지 않는다 했으니 그 여여한 모습을 이 자리에서 시현하소서"라며 월하 스님의 뜻을 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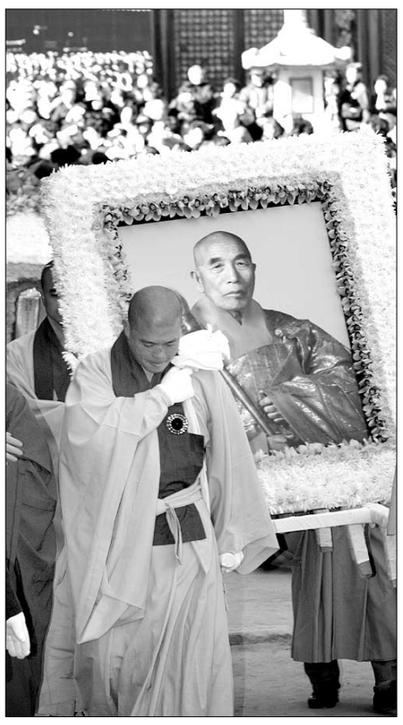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조사에서 "대종사께서 남기신 높은 법의 향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린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만장을 앞세운 운구행렬은 일주문 앞에서 잠시 노제를 지내고 부도원을 지나 통도사에서 4.2㎞ 떨어진 다비장으로 곧장 향했다.

1시간여 만에 다비장에 도착한 운구행렬이 연화대를 한 바퀴 돈 후 본격적인 다비식이 거행됐고, 오후 1시 25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을 비롯한 10여 명의 원로의원 스님, 통도사 부방장 초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거화하면서 연화대에 불길이 치솟았다.

다비식 다음날인 11일 통도사는 습골작업을 진행했으며, 50여과의 사리를 수습해 월하스님이 주석했던 정변전에 모셨으며, 사리 공개 여부는 문도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월하스님의 49재 행사는 7재 때인 내년 1월 21일이 그믐인 관계로 6재 때인 1월 14일로 앞당겨 치르기로 했다. 한명우·천미희 기자



◇다비장으로 향하고 있는 운구 행렬.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 장례종류·적용기준은…

월하 스님의 장례가 종단장으로 치러지면서 장례종류를 궁금해 하는 불자들이 많다. 그렇다면 장례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종단장'이다. 종단장은 현직 종정이나 종정을 역임한 스님, 현직에 있다가 순직한 원로회의 의장과 총무원장에만 해당된다. 장례는 5일 내지 7일장으로 치러진다. 원로회의 장은 원로의원 스님이 입적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 '문중장'이다. 문중의 최고 어른에 해당하는 스님이 입적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보통 3일 내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문도장은 문중장보다 하위 개념이지만 주로 문도를 대표하는 스님이 입적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상좌들이 주관하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 3일장으로 치러진다.

올 4월 입적한 서암스님은 종정을 지냈기 때문에 종단장을 거행해야 했으나 전국수좌회의 요청에 따라 수좌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렀다. 이처럼 불교 장례는 종단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명우 기자

재정 확충·동문간 간격 좁혀야

'대불련 활성화는 어떻게…' 주제 워크숍

회비제·출판 등 수익사업 고려해 봄직

직능별 소모임·재학생 기본교육 필요

'대불련과 총동문회 활성화의 관건은 재정확보와 재학생 교육체계 확립에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성기태·충주대 총장)가 12월 6~7일 이틀간 대전 유성구 경하호텔에서 '대불련 조직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2003 대불련 동문 지도자 워크숍'에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정확충과 교육체계 정립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워크숍 제2분과에서는 △수익사업 창출 △지부별 의무적 회비 납부제 도입 △재학생 불교기초교육체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명철 숭실대 불교학생회 동문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조직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며 "조직 완비와 함께 의무적으로 회비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동문회 이사회 김동길 부의장도 "대불련 조직체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유아에서 성인까지 볼 수 있는 불서출판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학생 불교학생회 지원책 마련 방안도 밀도 있게 논의됐다. 이를 위해 △재학생 불교 기초교육 시스템 구축 △총동문회 차원의 재학생 지부장 합동수여 △대불인 인턴제 도입 등의 취업센터 설치 △지부장의 해외 수련단 파견 △지부·지회별 동문 및 재학생 합동법회 정례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총동문회 제종호 이사는 "현재 불교학생회가 대학 사회에서 명맥조차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회원들이 이탈하는 등 심각한 정제기를 맞고 있다"며 "대불련이 앞으로 온전히 건재하려면 재학생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능별 소모임을 결성해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구자훈 전남대 동문은 "세대별 동문간 이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60~70년대 순수불교 활동, 80년대 운동권, 90년 개인별 활동 등 세대별로 달리하는 동문 성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지회별 합동법회를 봉행해야 한다"며 "향후 대불련 사업 추진의 핵심동력을 80~90년대 동문과 재학생들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문들의 정기적인 신행활동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봉사활동 및 사찰 순례 정례화를 비롯해 △지역·권역별 신행 사찰 지정 및 정기 수련회 개최 △대학별 지회 동문회 조직 △지부·지회별 홈패이지 제작 △특성화된 표준 신행커리큘럼 개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정태 대전대 동문은 "우선, 총동문회의 활동 사항을 알리는 소식지를 최소한 계간지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불련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본지는 올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40돌을 맞아 대불련, 총동문회와 공동으로 특별기획 '그리운 대불련 동문 찾기 및 대학생포교 후원 캠페인'을 벌였다. 본지는 이번 특별기획 연재에서 그간 대불련 활동을 통해 사회에 진출, 각 분야 중견으로 성장한 동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한편, 교계 최대 인재은행을 만들어내는 등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또 '대불련 어제와 오늘'을 연재하기 위해 대불련 지회와 동문 모임 10

불자 동문 결속에 한몫

본지, 다양한 기획시리즈

곳을 탐방해 역사, 출신동문의 활약상, 재학생들의 활발한 신행활동 등을 지면에 담았다.

특히 후원캠페인을 전개, 1천여 만원을 모금해 침체된 대학불교학생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육성에 소중한 밑거름을 제공했다.

본지는 앞으로도 대학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대불련과 총동문회가 한국불교의 주춧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할 계획이다.

겨울방학! 양어깨를 활짝 펴고…

청소년수련관들 다채로운 행사로 학생맞이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낼까? 이것저것 계획은 많지만 막상 흩날리는 눈발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리는 게 사실. 자~! 이제 두툼한 옷을 벗어버리고 주위를 살펴보자.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관련단체들이 겨울방학을 위해 교양강좌와 문화행사들을 다채롭게 준비해놓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발 빠른 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 TV속 직업 따라잡기, 숨은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술교실과 댄스 경연대회, 새 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진로상담과 적성검사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많다.

특히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전문육성기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참가비가 저렴한 편.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 올 겨울방학 보람차게 보내자.

PD, VJ, 웹자키, 영화감독, 카메라기자…. 더 이상 선망의 직업이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청소년들의 꿈과 끼,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열어줄 '영상 미디어 동아리활동'과 '미디어아카데미 겨울방학과정'을 운영한다.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영화 속 마술들의 원리와 기초적인 마술 기법을 배울 수 있는 '해리포터 마술교실'과 '행글라이더·에어로켓 만들기'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을 개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학 학과선택을 앞둔 고3수험생들은 목동청소년수련관의 '직업찾기' 교육을 주목하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진행하는 '소망등 만들기'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우리가족 미술여행'이 바로 그것.

이밖에 서울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운영하는 '효과적인 공부방법 배우기'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사이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주관	프로그램	일시	문의(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	고3수험생을 위한 적성검사·진로탐색 (사전예약)	적성검사:12월 20일까지 진로탐색 12월 29일까지	2646-8341
구로청소년수련관	해리포터 마술교실	2004년 1월 2일~2월 4일	838-1318
	행글라이더·에어로켓 만들기	1월 6일~27일	
	애니메이션 교실	1월 8일~2월 5일	
수서청소년수련관	나를 들여다보기(진로·적성상담)	12월 26일~27일	2226-8555
	B-BOY 댄스 페스티벌	12월 20일, 27일	
중랑청소년수련관	TV속 직업 따라잡기	12월 15일~16일	490-0222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사이버 축제	12월 28일	834-7233
노원청소년수련관	동아리축제	12월 27일	3391-4141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영상 미디어 동아리 활동	(2004년) 1월 15일부터	795-8000
	미디어아카데미 겨울방학과정	1월 6일, 7일, 8일 개강	
서울역사박물관	소망등 만들기	12월 20일~2004년 2월 15일	724-0149
국립현대미술관	우리가족 미술여행	2004년 1월 6일~2월 3일	2188-6065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효과적인 공부방법 배우기, 인터넷 바로하기	2004년 1월~2월	795-8000
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 교육문화교실	현재~2004년 1월 말	755-8000
상암월드컵공원	환경교실	2004년 1월 2일~2월 20일	300-5540
서울산업진흥재단	키즈툰-애니틴스쿨	2004년 1월 5일~10일, 12일~17일	3455-8484
서울대공원	겨울철새탐험교실	12월 21일~2004년 1월 18일	500-7780~4

圓 本願宗 第1·2·3世 宗正 太虛堂 啓漢大宗師 宗團葬 寂

訃 告

대한불교본원종 종정 태허당 계한 대종사께서 세연이 다하시어 세납 88세 법납 81세로 불기 2547년 12월 6일 미시(음·11월 13일 13시 30분) 경북 예천 연방사에서 원적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결일시 : 불기 2547년 12월 8일 10시
■ 영결식장 : 경북 예천 연방사
■ 다 비 장 : 점촌 장제장
증 명 : 일표
고 문 : 정송 법정 법용 용담 보명 국당 대종 송파
지도위원 : 남일 대봉 대성
장의위원장 : 대화
장의부위원장 : 대연 혜원
장의위원 : 혜운 지우 대성 대월 대웅 현담 대능 자관 법진 진묘 자광 용담 종인 혜공 돈오 대광 성덕화 지혜장 복덕화
집행위원장 : 대운
집행부위원장 : 만혁 대련 명진 법성 자관
집행위원 : 자인 금오 혜광 법훈 청산 자은 오향 지선 원행 혜암 혜관 원각 혜은 정오 청호 혜심 혜련 경산 혜명 법연
호 상 : 자산
병 법 : 만혁
지 빈 : 명진
의 전 : 종인
호 법 : 대성
재 무 : 대황
은 상 좌 : 일봉
법 상 좌 : 용담
참회상좌 : 무공
재가상좌 : 백우 무가애 재도 경순 재하 정선 재호 재우 재휘 중근 재숙 창식 재봉 동연 재홍 윤교 재옥 주일 재가손상좌 : 기재 기태 기수
■ 문의 및 연락처 : 연방사 054-654-2464 총무원 02-391-4376

■ 태허당 계한 대종사 원적 49일 추모제 봉행 안내
일 시 : 2548년 1월 23일 11시(음·갑신년 1월 2일)

대한불교본원종 제 1·2·3세 종정
태허당 계한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57 · 사진) 여사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여사는 〈오래된 미래〉를 통해 티베트 불교문화를 근간으로 했던 라다크 공동체가 자본주의 유입으로 붕괴되는 과정을 그렸다. 다음은 12월 9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 요약.

"생태 보존 사회운동과 연계돼야"

생태운동가 헬레나 호지 여사



▲방문 소감은?

한국을 처음 방문해 기쁘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개발계획은 자연 뿐 아니라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중요한 것은 서구에 비해 전통적인 가정과 사회 등 과거 공동체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생태운동을 사회운동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30퍼센트 정도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 조만간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해온 일들은?

라다크에서 탈중심화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의술을 가진 의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동맹을 만들어 지역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발전시키는데 관여하고 있기도 하다.

라다크 일부 사람들을 서구에 보내는 '실제체험 여행'을 통해 서구문화가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걸 체험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구 사람들을 라다크에 초청한 후 상호교류를 통해 '실제'를 확인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가족이나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우리는 자연에 둘러싸여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가까운 공동체와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이 자연과의 접촉이다.

▲라다크 종교 현황과 현대사회 문제해결 방안은?

현재 라다크의 지배적인 종교는 불교다. 그러나 근대화된 경제가 직업의 희소성을 낳게 되었고 종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농들을 지원해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소농들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몰두, 명상 통해 행복감
소농–소비자 연결이 사회문제 해결 열쇠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공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현성 스님은 내년 1월 17일까지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원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군불교위원회 상임회의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은 12월 18일 오후3시 서울 조계종 포교원 3층에서 상임회의를 개최한다.



'내 안의 평화…' 주제로 강연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12월 16일 광주 원각사에서 광주전남불교연대 초청으로 '내 안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전북불교 대학인의 밤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은 12월 13일 전주 갤러리아 웨딩타운에서 '제15회 전북불교대학인의 밤'을 개최했다.

일주문



학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가 12월 10일 제43차 연례 미국 세포생물학회에 논문 발표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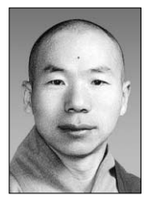
제4회 김동훈 연극상 수상

국악인 겸 연극배우 김성녀 씨가 12월 22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4회 김동훈 연극상' 시상식에서 연극상을 수상한다.



'생활 속에서의 불교' 강연

가수 김흥국 씨는 12월 17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관음재일법회에 초청돼 '생활 속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불교신문사장 향적 스님
"조계종 기관지 역할 최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불교신문사장에 향적 스님을 임명하고 12월 1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향적 스님은 1950년 생으로, 해인사에서 출가해 67년 일타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교육원 교육부장과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13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향적 스님은 "기관지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종도들이 원하는 것이 반영되도록 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박관호 동국대 명예교수 별세

후학들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5억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던 박관호 동국대 명예교수가 12월 9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세.

"재가자 신행 한차원 높일 것"

'우리는 선우' 이사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



"삶이 곧 수행현장이라는 투철한 결사정신으로 그동안 뿌리내려온 재가불자들의 신행 혁신운동을 한 차원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12월 6일 사단법인 제2대 우리는선우 이사장으로 취임한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 · 사진)는 취임 소감을 이같이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진행돼 온 재가불자 운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새로운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성 이사장은 "4백여 회원들의 우리는선우에 대한 애정을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한편,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불교로 바꿔 나간다'는 설립이념을 보다 구체화 하는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불교신행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선우회관 건립과 몽골불교 지원, 불교인재 양성 등을 임기중 중점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서 제1대 이사장의 뒤를 이은 성태용 이사장은 "본인의 이사장 취임이 설립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불교계 단체들의 그릇된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전임 이사장의 노고와 변화를 바라는 회원들의 갈망에 대해 활발한 활동으로 화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수행환경 수호 프로그램 추진"

재가불자상 수상 정성운 불교환경연대 연구실장



"올해 불교발전에 기여한 재가불자에게 주는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2월 13일 종로웨딩문화원에서 열린 참여불교재가연대 총회 및 송년회에서 '올해의 재가불자상'을 수상한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연구실장(41 · 사진)은 수상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정 연구실장은 새만금 삼보일배,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운동 등 2003년 불교계 최대 화두였던 '환경'에서 불교 대사회 참여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연구실장은 2003년 환경 분야에 대한 총평을 부탁하자 "개발 논리에 의해 보존되고 지켜져야 할 것들이 철저히 짓밟힌 한 해였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참여한 삼보일배 등 종교인들의 환경 참여 역량이 커진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연구실장은 또 "활동에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력 문제"라며 "불교 NGO의 낮은 보수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결심하지 못해 인력난이 가중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향후 계획으로 정 연구실장은 "산을 지키고 수행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식들을 지속 ·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본지 남동우 기자 불교기자대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는 12월 8일 송현클럽에서 불교기자대상 시상식 및 불교언론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불교기자대상(선원빈 기자상)은 〈현대불교〉 남동우 기자가 수상했다.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내원사 산감)에게는 공로상이 주어졌다.

성북구청 불교단체 합동 송년법회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회장 호암)는 12월 10일 동방웨딩타운에서 성북구청 법륜회, 성북경찰서 성불회와 공동으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성사 정성스님을 비롯해 서찬교 성북구청장, 박상용 성북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기초교리 강좌 수료 · 수계법회



광주 여의산 무각사는 12월 10일 대웅전에서 기초교리 강좌 3개월 과정 수강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기초교리 강좌 수료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사 광민 스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자랑스런 불자로 살아가길 바란다"며 초발심을 강조했다.

삼매체험 선 수련회 안내

- 불교를 바로 알고 참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

문답식 법문으로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발심을 촉발시킨다. 진취적인 수행관으로 직관수행의 길로 인도하며 동중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수행 (중도 공해탈 열반 깨달음 연기 등을 해득한다)

▼ 특징 - 5일동안 수행으로

1)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심오한 조사선 수행을 접할 수 있다.
2)모든 업장과 습기를 뛰어넘어 곧 바로 당처를 관조하여 단박에 수렁에서 뛰어넘는 직관수행의 길에 바로 나아가는 체험
3)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지와 미혹의 맹목적인 삶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
4)불교를 바르게 알고 깨달음과 해탈의 삶에 다가간다.
5)기복과 타력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6)그릇된 종교생활을 벗어나 올바른 불교관을 찾을 수 있다
7)생활에서 수행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중선에 든다.

홈페이지 www.wmsonwon.net(wm선원닷넷)

대상및인원 · 성인 남녀 70명

수련일정(4박5일) · 1차 : 12월 24일 ~ 28일 · 2차 : 12월 31일 ~ 1월 4일

접 수 · 2003년 12월 20일 까지 선착순 마감.

회 비 · 10만원(후원회비) 생계가 어려운 자는 무료 수련이 가능함.
· 온라인입금 : 농협 953-17-000706(예금주-원명선원)

접 수 처 · ☎ 064-755-3322 전송 : 064-755-0880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한라산 원명선원

卍 자성불 열린도량 원명선원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미얀마 성지순례 6일 ····· 1,5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2월 10일 출발

중국불교 4대 명산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항주 5일 850,000원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상해 5일 790,000원
▶구화산, 보타산, 황산, 영파, 상해 8일 1,150,000원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성도 5일 850,000원

※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법륜 스님(사진 왼쪽에서 윗줄 세번째)이 이라크 바스라 지역 현지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JTS>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

법륜스님, 이라크 답사… 현지인 인터뷰

"사담 후세인 나쁜 사람" 이구동성
한국군 파병 하려면 의무병 중심으로

이라크인들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군 파병 및 주둔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시 의무병을 중심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법륜 스님(한국JTS 이사장)의 이라크 답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법륜 스님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요르단 암만과 이라크 바그다드, 나시리아, 바스라, 모술, 티크리트 등을 답사하며 현지인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 결과 사담 후세인에 대해 전원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답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10명이 '나쁘다'고 답해 후세인과 미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표출했다. 외국군에 대해선 필요없다(8), 지금은 필요하다(7)로 나타나 외국군의 파병 및 주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우세함을 보였다.

이라크 전쟁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그래도 지금이 좋다(14)가 월등히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현했고, 생활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약(10)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법륜 스님은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파병한다면 △이라크의 통치권이 UN에 이관되고, UN의 요청으로 평화유지군이나 UN 산하 다국적군으로 파병 △이라크에 합법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스님은 또 의무병을 최대로 파병하고 시내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병대에 대해선 국민들의 호응도 없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역별로 바그다드(8), 모술(7), 바스라(3), 직업별로 무직(4), 상업(3), 주부(3), 운전기사(2), 기술자(2), 학생(2), 의사(1), 수위(1) 순이다. 성별로는 남자(14), 여자(4)이며, 연령별로는 20대(5), 30대(1), 40대(7), 50대(5), 생활 정도는 하(10), 중(5), 중상(3)이다.

남동우 기자

'생명 · 평화 · 상생' 공감대 모색

18~21일 '세계생명문화 포럼' 열려

지구촌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계생명문화포럼(www.wlcf.or.kr)'이 국내외 50여명의 석학들이 모인 가운데 12월 18~21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5개 영역에서 토론이 펼쳐지며, 생명 · 평화 · 상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게 된다. 행사 말미에는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선언문도 채택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리카르도 나바로('지구의 벗' 의장)와 반다나 시바(환경사상가) 등이 김지하 시인과 류승국 전 정신문화원장과 같이 포럼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는 유진 하그로부 교수(노스 텍사스 대학), 발 플럼우드 교수(호주 국립대), 장파 교수(북경대) 등이 △생태주의와 생명사상 △생명의 문화적 통로 △공생의 삶과 생명의 경제 △생명문화와 지역개발계획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문명과 생명문화의 대안을 모색한다.

본 행사와 별도로 김지하 시인, 맬 길리스 수녀 등이 순회 강연회도 개최한다. 또 세계생명문화포럼과 연관해 국내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토론하는 '생명문화 지식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노엄 촘스키, 프리초프 카프라, 울리히 벡, 볼프강 작스 등 해외 석학들과 국내 인사들이 행사 주제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이는 포럼도 따로 준비중이다.

포럼에 불교계에선 도법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과 현원 스님(가산불교문화원 기획실장)이 추진위원으로 참여중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책평가 108옴부즈맨 구성

참여불교재가연대, 중장기 발전전략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2단계 중장기(7년)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초를 마련한다. 재가연대는 12월 13일 종로웨딩문화원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2004년도 단위 사업별 계획을 발표했다.

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는 총회에서 △교단종책 평가 108 옴브즈맨 구성 및 월례 워크숍 진행 △미래불교전략 수립 세미나 개최 △생활수행 교재 배포 프로그램 발굴 △사찰 지역화 전략 개발 △대중 참여 프로그램 모델 개발 등을 단위사업으로 내놓고, 올 2월경 단체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불교아카데미는 온라인 사업으로 불교와 명상수련에 관한 각종 동영상과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통해 버티컬 포털 사이트(하나의 포털 사이트 내 전문 포털 사이트가 포함돼있는 형태)를 구축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과 운전자를 위한 테이프 시리즈 제작도 오프라인 병행 수익사업으로 정했다. 또한 분야별 최고 지성인 릴레이 강좌인 '불교의 눈으로 바라본 2020년!'도 준비한다.

국제협력사업으로는 △불가촉천민을 위한 명상센터 및 도서관 지원 △청소년 기숙사 또는 직업훈련을 위한 여건 마련 등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2004년 7~8월 경 인도중서부 불교문화체험 및 인도불교부흥현장 답사를 할 계획이다. 필요한 재정은 국제협력단(KOICA)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하고, 격월 1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미발표 해외불교영화 번역 상영도 한다.

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처장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7년 2단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살 외국인 노동자 등 원혼 위로 천도재 잇달아

자살한 외국인노동자, 이라크 전 희생자, 학도병 등의 억울한 한을 달래는 천도재가 잇달아 봉행된다.

태고종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12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성북동 태고사에서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된 영가를 천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02)745-2030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대행 일문)와 불교소수자의 벗은 최근 강제추방으로 자살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2월 16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천도재를 봉행한다. (02)725-4277

여주 보륜사(주지 성정)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시신 상태로 6개월간 방치돼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신모 씨를 위한 49재를 1월 20일 봉행한다. (031)884-1053

한편 영덕 유금사(주지 묘공)는 12월 7일 영덕지역 스님들과 신도 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남정면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위령탑에서 6.25당시 숨진 학도병 700여명에 대한 위령재와 다비식을 봉행했다.

김원우 기자

사찰 소화설비 시연회

9일 조계사 경내서

최근 발생한 원주 구룡사 화재와 계속되는 건조한 겨울 날씨로 인해 사찰 소방방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2월 9일 조계사에서 소화설비 시연회가 열렸다. 조계종 문화부가 주관한 이날 시연회에는 탁연 스님(문화부장)을 비롯한 종단 관계 인사들과 소방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화액 소화약제'를 선보인 (주)파이어엔텍 관계자는 "화재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하기 어려운 사찰에서는 초기 진화를 위해 기존 소화기 보다 좀더 우수한 성능의 소화시설이 필요하다"며 분사거리, 소화능력 등 기존 소화기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조계사 경내에서 파이어엔텍 관계자와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 등이 소화설비 시연회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 일원화를 토지이용 인센티브제도

운영개선 심포지엄

"국립(국가)공원의 주관부처는 국무총리 산하 또는 대통령직속의 전문관리기관으로 강화해야 한다."

유기준 교수(상지대 관광학부)는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10주년 기념 '국립공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자연공원 운영 ·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유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국립공원의 재평가' 발제를 통해 주민 및 지역사회관계 개선방안으로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는 장기적으로 국립공원 밖으로 이전할 것 △공원관리방향에 적합한 토지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병행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서 오구균 교수(호남대 조경학과)는 '자연친화적 국립공원 이용 및 재정 확보 방안' 발제에서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 △용도지구별 자원관리 차별화 △공원탐방 편익서비스 향상 △주민의 자원이용 규제 △공원시설 정비 · 복구 및 확충 △훼손지 복원 관리 등을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내놓았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공원관리 및 사업비 대폭 확충 △입장료 폐지 △스폰서쉽 또는 파트너쉽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한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4년 본과생(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약과(중의약)	5년	◇자 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재학 및 졸업자(만40세이하)
일반학과 (사범대)	4년 (편입가능)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건강진단서 1통(영문) 여권용사진 10매, 주민등록등본 1통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이후(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 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 등 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6년)
▶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

4 문의처
· 남경중의약대학 한국분교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FAX : 02-511-2028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中國 南京市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32-2539, FAX ; 25-532-0825

2004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교육학 학위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학위수여 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본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남경중의대학 30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남경중의대학 37명 합격
2003. 9. 남경 중의대학 41명 합격

· 전과 중국학위 가능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범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남경한의대 입학가능, 남경사범대 입학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성지고등불교학교

천태·태고 활발, '내실' 다지기

2003 주요종단 활동점검 (上)

올 한해 종단들의 활동은 분명한 명암을 드러냈다. 조계종에 이어 제2종단으로 꼽히는 태고종이 한 보 전진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천태종이 종단내외 활동에 두각을 드러낸 반면 진각종과 총지종, 관음종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천태종 신도들이 11월 3일 북한에 전달되는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를 환송하는 모습.

태고종 사찰법 제정·분한신고 등 조직 정비
천태종 기와 北지원·미아찾기 등 괄목 성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의 취임 2년을 맞은 태고종은 △종도 화합과 정체성 확립 △재정 확충 △교육불사 강화 등을 종무지표로 내걸고 이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태고종은 2001년 총무원장 선거에서 불거진 갈등과 내분을 해소하기 위해 화합종단 실현에 무게를 둔 종책을 폈다. 종단개혁이라는 대전제 아래 전 총무원장 종연 스님의 협조를 이끌어 냈고, 7월에는 처음으로 종단 차원의 구족계 수계산림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사찰법 제정 추진, 사찰 재등록과 승려 분한신고 등을 통한 종단조직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대학원과정인 동방대학원대학과 총무원 청사 건립 추진 등 굵직한 사업도 꾸준히 전개했다.

그러나 해묵은 과제였던 재정 안정과 조직력 강화, 조계종과의 분규 마무리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천태종 수년동안 '건축 불사'에 전념하며 교세 확장에 치중했던 천태종은 복지, 대북교류, NGO 활동 및 군포교 참여 등 어느 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특히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 46만장을 북한에 지원하는 등 대북교류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미아찾아주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와 무료 진료 등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또 니르바나 자원봉사단을 비롯해 전체 사찰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복지 천태종'의 이미지를 굳혔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NGO 활동 참여와 몽골불교 지원 등 국제교류 확대도 괄목할 만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종무 배치,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각종 학술행사를 통한 천태교학 선양 등도 천태종의 도약을 견인했다.

진각·총지·관음종 진각종은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회당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불상 봉안 문제 등으로 극심한 침체현상을 빚었다. 특히 예년에 비해 대외활동이 거의 없어 통리원 집행부의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진각복지재단의 활동과 밀교교류 확대, 지방교구청 활성화 등은 올해 진각종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진각복지재단은 인천 덕화노인요양원과 대구 보은노인요양원을 자체시설로 건립해 복지시스템의 변화를 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인터넷 포교 활성화도 눈에 띈다.

관음종은 97년 화재로 소실된 총본산 묘각사를 6월 낙성했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궐위로 남았던 종정에 11월 죽산 스님을 추대해 종단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총지종은 수성 종령 추대, 종조전 조성,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등 변화를 시도했으나 현 통리원의 업무추진력은 미진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의 금년 점검은 차주 8면에서 보도합니다.



위덕대 교명 표석 제막식

위덕대(총장 손제석)는 12월 2일 부총장 경정 정사를 비롯한 교직원, 회당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정문에서 교명이 새겨진 표석 제막식을 봉행했다. 위덕대는 "1999년에 설치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교명탑 대신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문에 교명 표석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명 표석은 포항 보정심인당에 다니는 류호준 (주)아세아 대표이사가 기증한 것이다.



지역 독거노인에 김장 보시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12월 9일 서울 구로2동 지역 독거노인 60여명을 원융사로 초청해 점심 공양과 다과를 제공했다. 또 이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10여명에게는 김장을 담아 보시했다.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은 "독거노인들이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기는데 작은 힘이나마 되었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원융종은 매년 총무원이 위치한 구로동 일대 독거노인 초청 행사와 김장 보시를 해오고 있다.

태고종, 18일 중앙종회 개원

11대 종회 의장단 선출·상임위 구성

태고종 제11대 중앙종회 개원종회 및 제88회 정기중앙종회가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봉원사에서 열린다.

이번 종회에서는 11대 종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과 분과별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내년 예산과 사업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며, 총무원장 운산 스님 취임 이후 2년간 추진해 온 각종 행사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환우)는 11월 27일 11대 종회의원 적부심사를 실시하고 지허스님(순천 선암사)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42명과 원봉 스님(청주 보현사)을 비롯해 직능직 의원 9명 등 총 51명의 당선자를 확정, 공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1대 종회 의원 가운데 초선의원은 28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재선의원은 23명이었다. 연령도 40~50대가 28명으로, 10대 종회에 비해 현격히 젊어졌다.

박봉영 기자

'천태신앙의 첫걸음' 발간

천태종, 신앙입문·홍보용

'천태종 비구니 스님들은 유발(有髮)이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의문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천태종은 신앙입문서이자 홍보용 서적인 <천태신앙의 첫걸음>을 발간했다.

변형신국판형의 112쪽 분량인 이 책은 천태종을 소개하는 글을 시작으로 '총본산 구인사로', '구인사로 들어서면', '다시 마음을 굳게 발원하고', '부처님 도량으로' 순으로 배열돼 불교와 종단을 접한 뒤 구인사로 입문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이어 천태종 스님과 수행에 관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서문을 통해 "초심자에게 불법의 정수를 제대로 알리고 천태종의 생활과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고자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종단소식

진각종 청년회 집담회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류호선)는 12월 20~21일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진각종과 진각인의 성찰을 위한 집담회(토론회)'를 연다. 집담회는 진각종의 방향과 성찰 과제, 청년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류호선 회장 등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류호선 회장은 "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고민하고 동시에 종단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한 청년회원들의 역할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청년회는 집담회에 이어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02)911-4509

새해 예산 12억원 의결

원융종 중앙종회(의장 성관)는 12월 9일 서울 원융사에서 제35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12억 4천여만원의 새해 예산을 의결했다. 또 종단 수륙영산대재 봉행, 구족계 수계산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무의탁노인 초청 행사 등을 포함한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동방불교대 설법대회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12월 2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태고사 설법전에서 불교학과 학인들의 설법대회를 연다. 11월 23일 1차 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6명의 학인이 설법에 나서며, 2년동안 배운 교학과 수행, 포교방법론에 관해 강론한다. 불교학과를 이수하면 태고종 2급 정포교사 자격을 부여 받으며, 스님들은 대선 법계를 품수한다. (02)745-2030

게시판

행사 ▲불교상담개발원은 12월 17일 오후 3시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신임 원장 정덕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이와 함께 자비의전화 송년의 밤 행사도 열린다. (02)737-8803

▲불교포럼은 12월 17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불교계 진보적 여론광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인터넷 토론매체의 필요성 및 현황' 등을 주제로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등이 발제한다. (02)742-4283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택)은 12월 20일 불국사 문화회관에서 '원효성사의 행적과 사회적 위상'을 주제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만(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복순(동국대) 교수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054)742-9922

모집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2004년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리는 전통문화재 지도자 양성과정에 참가할 교원 4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중·고 교사. (02)723-6165

▲서울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교육복지, 지역복지, 주간보호, 단기보호 업무를 할 직업체험 연수생을 모집한다. 마감은 12월 20일. (02)466-6242

▲울산 정토사는 초등학교 2~5학년을 대상으로 붓다어린이합창단원을 모집한다. 마감은 12월 22일. (055)258-9944

구인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재활사업에 종사할 사회복지사를 구한다.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정자. 마감은 12월 17일. (043)652-0900

▲서울 서대문구립 환희어린이집은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채용한다. 보육교사는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소지자, 12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설장은 12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306-7518

▲무료노인요양원인 김해 보현행원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한다. 전화접수후 수시 면접 가능. (055)329-1733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후원개발부문을 담당할 직원을 구한다. (02)928-0750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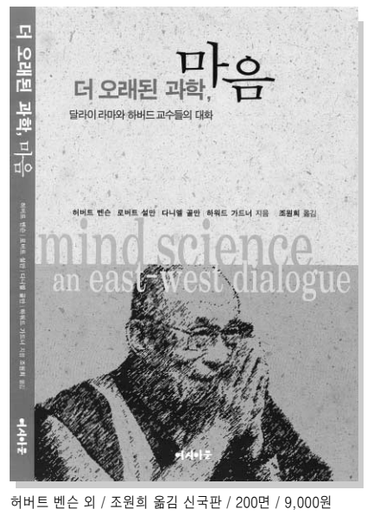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보도

마음
더 오래된 과학,
mind science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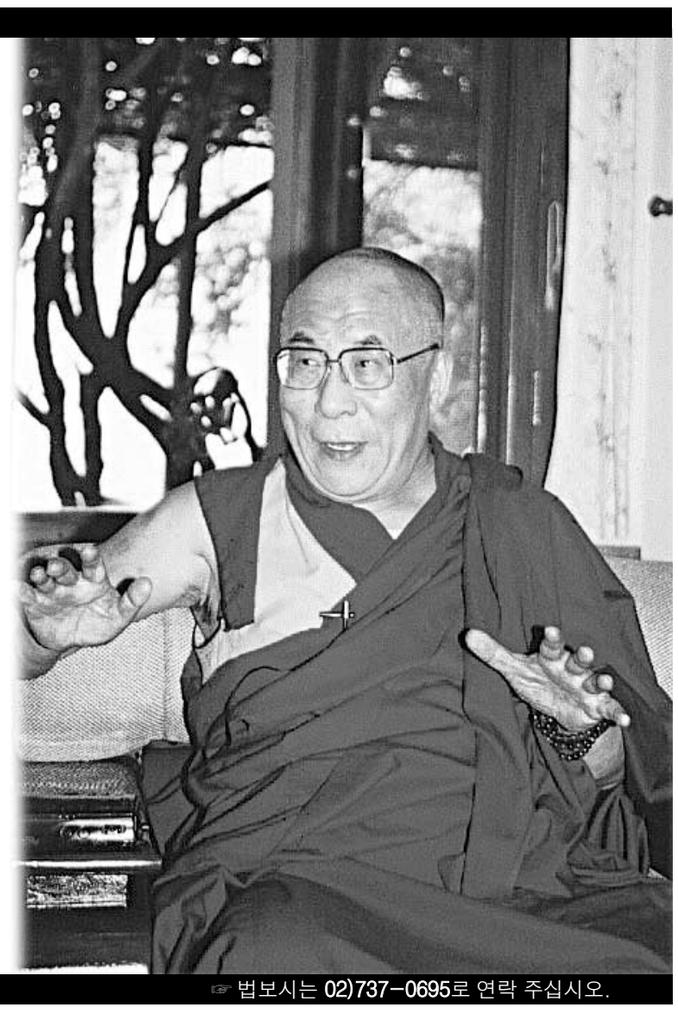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등이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되는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달라이 라마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망루·안내문에 결연한 '수호의지'

공사강행 분위기 속 다시 가본 북한산 현장

북한산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연내에 관통노선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산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도 단식정진도 선홍빛 낭자한 혈서도 노무현 정부와 개발론자들에겐 한낮 웃음거리밖에 안되는가? 그들에게 조계종 종정 스님과 원로회의 유시, 중앙종회의 결의는 저잣거리에 떠도는 이야깃거리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교계 첫 번째 공약으로 공언한 관통노선 백지화를 스스로 뒤집는 우스운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자본의 퀴퀴한 냄새가 온 산하를 뒤덮을 날이 머지않았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12월 11일 북한산 살리기의 상징인 철마선원과 의정부 회룡사를 찾아갔다.



철마선원은 아직 당당

비구니 스님들이 건설회사 직원들에게 폭행당하고 폭력배에게 점거당한 현장. 철조망과 바리케이드 사이로 보이는 철마선원은 여전히 당당함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 너머로 무엇을 절단하는 듯 간간히 금속성 소리만 들릴 뿐이다.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목재 다리를 건너기 위해 길 건너편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한 스님이 직접 나와 문을 열어준다. 20여개월간 철마선원을 지키고 있는 보성 스님이다. 스님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근황을 물어보니 북한산 관통도로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감시 차 온다고 한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 들어 그들이 매우 공손하게 스님을 대한다는 것. 스님은 대세를 읽은 그들이 혹여 일을 그르칠까 그러는 것 같다고 말한다. 스님에게 공사가 재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요즈음 장작을 쪼개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망루에 올라가 버틸 요량으로요."

철마선원으로 들어오기 전 들었던 금속성 소리가 장작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에 대한 심정도 물어봤다.

"기대도 안합니다. 말로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막상 공사가 강행되면 누가 와서 막겠습니까?"

다만 뜻있는 스님 대여섯 명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보성 스님은 북한산이 뚫리는가 안 뚫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불교계가 앞장서서 저지했지만 결국 공사가 재개되면 불교계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다. 또 이후 환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망루에 올라가 봤다. 북한산은 여전히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가쁜 숨을 내뱉고 있었다.



철마선원
"막상 공사 진행되면
누가와서 막겠습니까?"

회룡사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들고 다니겠어요?"

정적 감도는 산사

의정부 회룡사로 올라가는 길. 등산객들 사이로 북한산을 살리기 위한 현수막이 군데군데 걸려있다. 살풍경한 현실이다.

회룡사 경내로 들어가니 황구와 흑구 두 마리가 전각 앞에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다. 총무 성타 스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사진기자가 스님 얼굴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러자 스님이 손사래를 치며 하는 한 마디.

"사진 찍지 마세요. 이제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 내밀고 나다니겠어요?"



스님께 무엇부터 잘못돼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대답은 명쾌했다. '단결'이 안돼서 그렇다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였다.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서 그래요. 북한산은 어느 한 사찰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 눈앞의 불똥만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더 많이 당하면 깨어날 거예요."

스님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게 문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어느 지인에게 백지화 됐다고 축하 전화도 받은 적이 있는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목소리가 잦아있다는 걸 느꼈다. 주위가 너무 고요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춘 것이다. 바람결에 묻어오는 풍경 소리만 산사를 감싸고 있었다. 스님께 정부와 개발론자들은 왜 이런 아름다움을 모를까요? 라고 질문했다.

"결국은 돈 때문이지요. 구더기가 똥이 아름답다고 사는 격입니다."

묻고 싶지는 않지만 물어야만 할 질문을 했다. 공사가 강행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포크레인에 깔려 죽는 수밖에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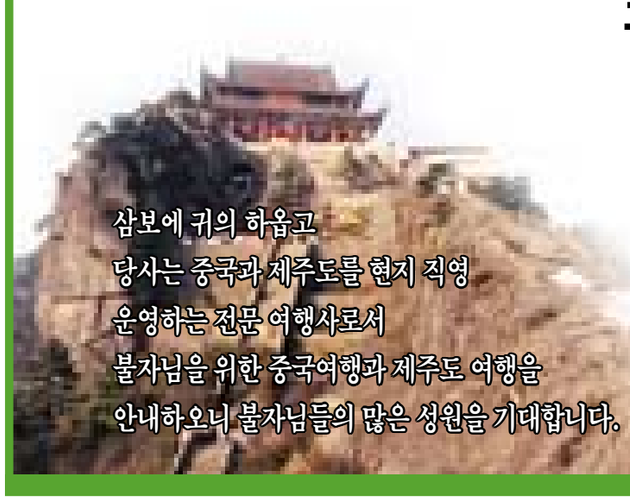
스님은 남의 일처럼 툭 내뱉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절을 나서니 스님의 말을 입구에 적혀진 글귀가 되받는다.

"산을 의지해 수행하며 생활해온 수행자가 어찌 산을 떠나서 살 수 있으며 죽어가는 산을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는가?…작은 육체의 애착을 버려 북한산과 대한민국의 모든 산이 성성이 그 푸른빛을 발할 수 있어 눈 푸른 납자들의 수행공간으로 지속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는가?…북한산에 구멍이 나는 날 우리 대중 모두는 북한산과 함께 죽으리라!"

양주·의정부=남동우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 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설날 특별전세 항공편으로 떠나는
중국 역사고찰 성지순례 5일 449,000원
▷ 소림사 · 용문석굴 · 백마사
▷ 출발일 : 2004년 1월 22일(木) 오후 21:00 인천공항

〈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2003년 불교계 화두는 '환경' 이었다. 불교 · 천주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2달여간 진행한 새만금 삼보일배를 비롯해, 북한산 관통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관통 등 크고 작은 환경 사안들이 불교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풀지 못한 화두' 는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불씨로 존재할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화두들이 더해진다면 2004년에도 '환경' 은 불교계 내부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 넘기는 환경 사안들 중 대규모 국책 사업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안을 모색한다.

해넘기는 과제들 ②

환경, 이대로 안된다

글 싣는 순서

① 동국대 100년 대계는 있는가
② 환경, 이대로 안된다
③ 각 종단의 주요종책

국책사업 '행정실명제' 필요

입안부처 · 공무원 · 참여 전문가 명단 공개
정책 실패땐 사후 법적 책임 물어야

환경영향평가 계획과정부터 병행 필수
허위 · 부실 평가서 명백한 범죄행위

차없이 걷고 싶은 거리 · 전차 부활 지나친 바람일까?

● 2003년을 뜨겁게 달궜던 환경 이슈들

2003년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불교계 환경 사안은 '새만금 삼보일배' 였다. 수경스님을 비롯한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2달여간 진행했던 삼보일배는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국민적 감동을 낳았다. 자기반성과 참회라는 불교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삼보일배는 국내외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이러한 울림은 사법부에도 전달돼 결국 공사 중단이라는 결과물을 생산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관통 문제는 양산 내원사 산감 지율 스님이 관통 저지를 위해 38일간 단식 정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사 강행 방침을 발표해 일단락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율 스님은 다시 단식 정진에 들어갔고, 45일간의 단식 끝에 10만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에 성공했다. 스님을 이것을 토대로 100만 소송인단 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생명살림을 꿈꾸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지난 4월 14일 조계종과 정부가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선재검토위 활동 결과 관통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지만 위원들 3분의 2이상이 합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막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다시 정부는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제시했고 조계종은 3대 해결절차로 맞대응했다. 결국 북한산은 정부의 관통강행 발표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다.

이 외에도 통도사 초산유원지 개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양평 용문사 민속박물관 건립, 서울 미타사 고층아파트 건립, 용인 화운사 · 광양 현불사 송전탑 설치, 부산 혜원정사 아파트 재건축, 창원 길상사 국도 25호선 통과, 밀양 표충사 토사채취장 허가 등 수많은 환경 사안들이 2003년을 뜨겁게 달궜다.

이러한 사안들은 대부분 미완의 숙제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4년에도 환경 문제는 불교계 큰 화두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규모 국책사업과 환경영향평가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관통도로, 경부고속철도 이 세 가지 사안을 관통하는 것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환경영향평가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국익=공익' 이라는 믿음 체계 속에서 총량적 성장전략을 통해 '파이' 를 키워나가면 결국에는 모두가 풍요의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국가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 파괴는 '국가 발전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부작용' 정도로 이해됐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확대 재생산 돼 온 국책사업은 사업 정당성 자체를 문제 악화시켰다. 이러한 논리는 지역과 계층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고, 사안을 축소 · 폄하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뿐 아니라 일반 환경사안에서도 늘 지적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및 부실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과정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승인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환경 훼손 저감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과 허위로 얼룩진 배경에는 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 위반할 경우 협의기준 초과부과금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적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허위 · 부실 작성은 공공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도로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련 기관들의 환경에 대한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는다.

● 어떻게 바꿔야 하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은 부작용을 나타냈음에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 데는 사업추진체계 속에 구조화 된 '무책임성' 에 기인한다. 책임성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행정실명제' 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정책을 입안한 부처 공무원과 참여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사후라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책사업과 관련한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조사 내용이 부실하거나 결과를 왜곡, 은폐시키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의 선정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도 있다.

행정부에 비해 의회의 기능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에 대한 '내부통제' 기제로서 감사원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개발공사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전체 조직을 축소, 통폐합해야 한다.

정규호 바람과 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권한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갖춘 시민사회의 성숙된 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발주자, 평가서 대행자, 시공자 등에 대해 반드시 처벌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 도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설계와 시공에서도 기존의 감리와는 다른 차원의 환경검토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틀과 제도도 필요하다.

김광임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영향이 해당사업의 추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에 대해 사전에 전문 검토가 필요하며, 환경적 가치나 환경오염의 피해 비용을 계량화해 반영해야 한다"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조정해 개발사업 결정 이전 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고의 틀을 바꾸자

모든 환경사안 근간에는 '속도의 관성' 이 내재하고 있다. 자본의 효율성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짓밟아버린다. '느림' 은 '게으름' 으로 치부되고, 인간 중심적 가치는 뭇생명을 무참히 살해한다.

주강현 한국민속연구소장은 "속도는 타인의 환경에 대한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며 "우리의 도로는 너무 많다. 지나침은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다. 문화의 시대, 문화를 선택할 것인가, 폭력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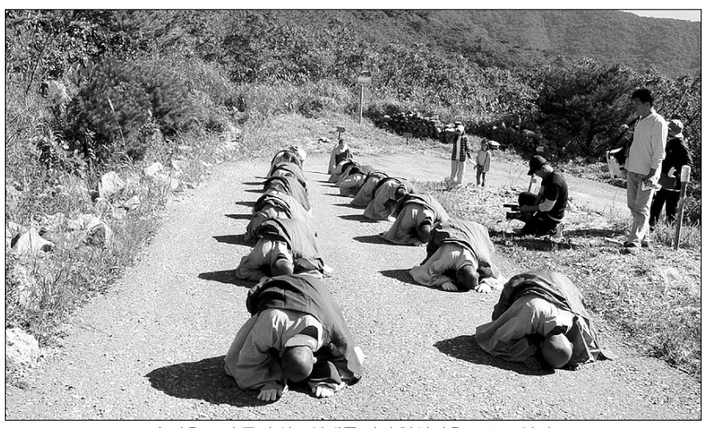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이사도 "자동차는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외롭게 하며 의타적으로 만들었다"며 "사대문 안에 차 없는 도시, 모든 도로의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화, 진정으로 걷고 싶은 거리, 전차 부활 등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일본판 도롱뇽 소송인 '우는 토끼' 담당 변호사였던 후지와라 타케지(藤原猛爾, 일본 환경법률가연맹 이사장) 씨는 "우는 토끼 소송은 구성요소와 원고들과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및 자연의 가치나 보호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생태계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법과 권리' 를 고려하는 실천 활동이었다"라고 자평하며, 인간 중심의 사고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회향 법회에 진입하고 있는 새만금 삼보일배단.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율 스님 등이 삼보일배를 하며 천성산을 오르고 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문의전화는 02)447-0047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창립 멤버 송병준(사진 왼쪽) 고문과 신동구 초대회장.



◇영등포교도소 '불교콤비' 남강수 대한불자가수회 명예회장과 전국불교교정인련 이영복 재정국장.

'일등 포교사' '으뜸 일꾼' … 열정적인 회향

'일과 신행의 일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놓을 수 없는 일터불심의 화두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 직장불자회 활동과 개인의 수행.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직장불자들만의 숙제다. 그러다보니 고민도 따라붙는다. '일과 신행'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한다. 하지만 여기, 이러한 과제들을 거뜬히 해내고 연말 각종 상까지 휩쓴 직장불자들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초대회장 신동구, 고문 송병준 불자, 그리고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명예회장과 전국불교교정인연합회 이영복 재정국장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 이들은 모든 일이 수행이었고, 수행이 일이었다고 말한다. 12월 10일, 불교계에서는 '일등 포교사'로, 일터에서는 '으뜸 일꾼'으로 손꼽히는 이들을 만나 불교사랑법을 들여다 봤다.

소보원 불자회 터줏대감 신동구 · 송병준 불자

소비자 권익보호 공로 국민훈장 · 대통령 표창

"세상을 기차게 잘 사는 법 불교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원 두 명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신동구(51 · 기획관리실장 · 법명 혜전), 송병준(53 · 분쟁조정2국장 · 법명 수송) 불자. 이들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석류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립 멤버로,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소비자 관련 정책통들이다.

이들의 신행활동도 남다르다. 신 불자는 지난해 4월 소보원법우회 창립을 주도하면서 초대회장을 맡았고, 송 불자는 고문으로 법우회원들의 신행활동을 독려했다. 불교공부도 열심이었다. 이들은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각각 28,29기로 졸업하는 등 신행에 깊이를 더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일과 불교'는 어떤 의미일까? 신 불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일이 불교였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을 불교처럼 믿었고, 불교를 일같이 했습니다. 불교와 일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신행과 업무는 느슨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긴장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송 불자도 한 마디 거든다. "세상을 기차게 잘 사는 법, 그건 바로 불교에 있습니다. 사람들간의 갈등과 오해 등은 자비심 앞에서 그대로 녹아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조직을 이끄는 힘이 불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교 원력상 수상 남강수 · 이영복 불자

재소자에 24년간 佛音…가수 8명 배출

영치금 지원 "부처님 세계로 이끌려 노력"

재소자 포교에 원력을 세운 사람들.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명예회장(63 · 법명 법상)은 '불음(佛音)'으로, 전국불교교정인연합회 이영복 재정국장(49 · 법명 종심 · 영등포교도소 보안과)은 '교화'로 일과 불교를 함께 했다. 남 회장은 지난 80년부터 불자재소자들에게 부처님 노래를 전파했고, 이 국장은 79년 교도관으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재소자 교화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13일 시상한 제15회 포교대상에서 원력상을 받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화 업무 자체가 포교였습니다. 때문에 일터에서의 신행활동은 업무의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소자들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소자 불음포교 24년째인 남 회장은 그동안 8명의 불자재소자 가수를 배출시켰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닫힌 마음을 여는 데 불교음악만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불교와 음악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절묘한 만남이 '불음' 전파였습니다. 90년에 대한불자가수회를 창립한 것도 불자가수들의 이런 믿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직장 · 직능불자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제는 사찰, 가정의 불교를 직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과 신행의 공동체'를 일구는 일터가 바로 진정한 신행처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금강메아리 창립 10주년 법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12월 7일 서울 하림각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김대원 창립 초대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우리 모임에선



과천청사 불자련 송년법회

정부과천청사불자연합회(회장 송도근 · 사진)는 12월 16일 서울 구룡사 대법당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법회를 봉행했다.



감사교육원장으로 승진

감사원불자회장 장광명(사진) 감사4국장은 최근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으로 승진했다.



상선암마애불 등 답사

포항교사불자회(회장 박기백 · 사진)는 12월 14일 경주 포석정, 팔각정, 상선암 마애불, 석조여래좌상 등으로 문화재교실 답사를 다녀왔다.



창립12주년 법회 · 가요제 결선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활선 · 사진)는 12월 5일 서울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창립 12주년 기념 법회 및 전국가요제 결선을 실시했다.

우리불자회는요

삼성정밀 불자회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 부어 활성화

울산광역시청과 매달 합동법회 추진

불자회 창립 계기는 소박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을 울산시 태화교에 설치하면, 울산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 할까?' 바람은 이랬습니다. 생각만으로 머물렀던 그 바람은 당시 울산불교 청년회 홍보부장을 맡았던 우리 불자회장과 의논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곤 울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울산 시민의 젖줄' 태화강변에 연등을 달았습니다.

태화강 연등 불사의 실무 추진은 우리 회사(당시 한국비료)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연등을 달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싶은 마음은 불자라면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쉽게 허락을 안 해주었습니다. 이래저래 설득하면서 우리 불자회는 결국 회사 입구에 있는 다리 양쪽에 부처님 등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환희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원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후 부처님오신날이면 연등을 계속 밝혀 사원들의 행복과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뜻있는 불자들이 모여, 1991년 5월 한국비료 불자회(현 삼성정밀불자회)가 창립하는 데 인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 70여명과 가족들이 동참하여 매달 불교 기초교리와 스님들을 초청하여 경전 공부도 하면서 성지 순례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서히 명맥만 있는 불자회가 되면서 법회도 봉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자회원들은 바빴고, 처음의 발원은 조금씩 열어지기만 했습니다. 회원들은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잖아.' 우리 불자회원들은 신심을 다시 북돋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8년 9월 유명무실 해진 불자회를 '삼성정밀불자회'로 재창립해, 불교기초교리 공부, 정기법회, 성지순례, 자비봉사 활동 등을 꾸준히 벌였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매년 10일정도 사내에 연등불을 밝혔고, 지난 해부터 사내 연등 수익금과 회비를 모아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그 수익금으로 인근 복지시설인 '함께하는 사람들'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TV와 DVD를 선물했고, 2003년에는 컴퓨터도 기증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꼭 불자회 소모임인 자비봉사회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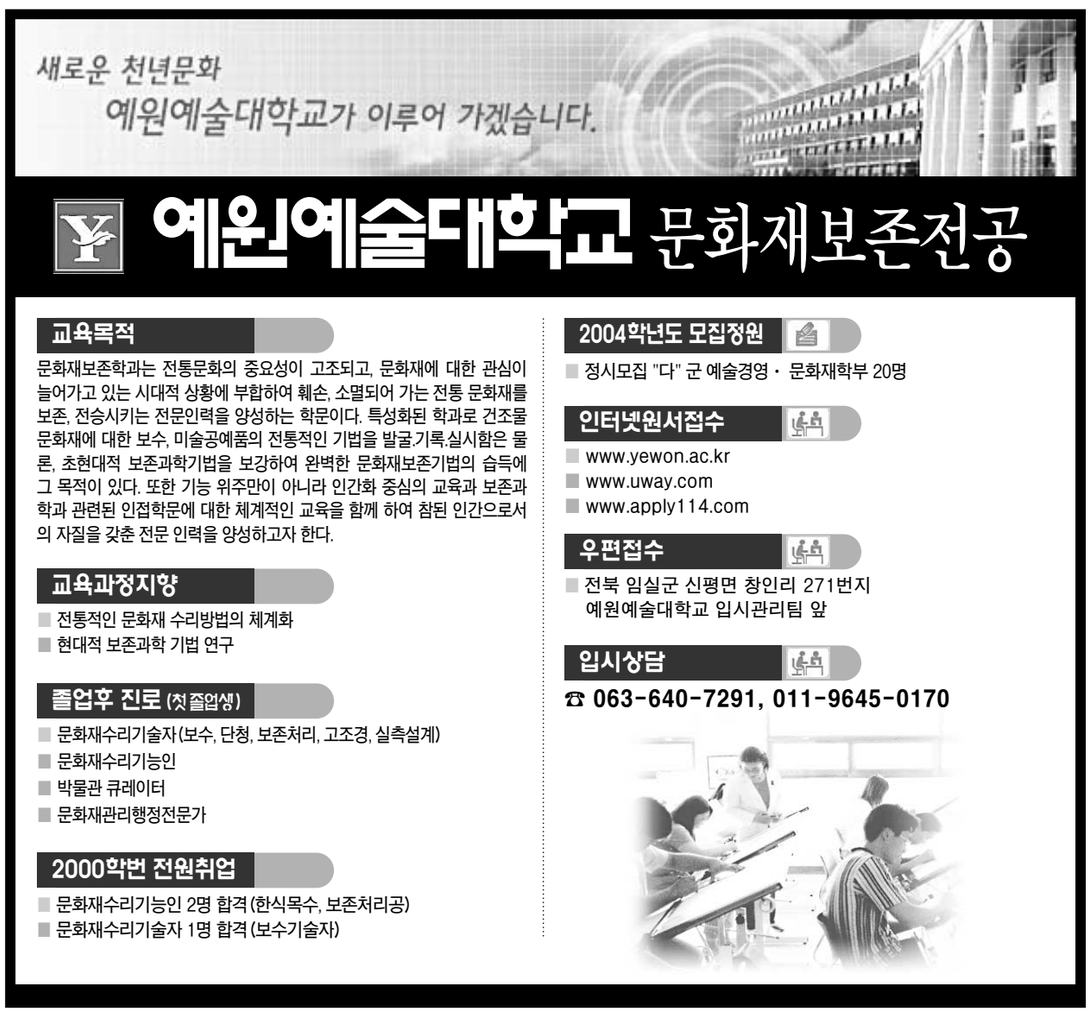


◇삼성정밀 불자회원들이 울산 죽림정사에서 하안거 결제 100일 관음기도 정진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봄에는 사택 독신 숙소에서 지안 스님(전 통도사 강주)을 초청하여 대법회를 열어 많은 사원과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법회를 꾸준히 열 생각입니다.

올 1월에 창립된 울산광역시청 불자회 등과 매달 합동 법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여년 전부터 사원들이나 주위에 상을 당하면 벌여온 '금강경 독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진석 회장





일본 불교 미술전

시간·공간 초월한 '감동'

고려佛畵 재현전

20일부터 경주박물관

통도사, 내년 1월 11일까지

박물관에서 불교미술 관련 전시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일본의 불교미술' 특별전(12월 20일~2004년 2월 1일)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역미술' 특별전(12월 16일~2004년 2월 1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고려불화 재현전'(11월 17일~2004년 1월 11일)이 그것.

하쿠오~가마쿠라 시대때
日 국보 9점 등 83점 선뵈

수월관음도·16나한도 등 28점
강록사 화백 유화로 재현·전시

특히 '~서역미술'전에서는 80여 년간 박물관 수장고에 갇혀있던 서역벽화가 보존과학의 힘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가 하면, '일본의 불교미술'전에서는 일본 국보 9점, 중요문화재 25점을 포함한 일본 불교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전시회가 열리기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마리의 가릉빈가를 표현한 일본의 국보 '우피화만'.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박영복)에서 열리는 '일본의 불교미술' 특별전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중국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일본만의 독특한 불교미술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약사여래좌상(藥師如來坐像)' '지옥초지(地獄草紙)' 등 일본 불교미술을 대표할 작품을 포함한 하쿠오(白鳳) 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 시대까지의 불교조각, 불교회화, 금속공예, 전적, 고고품 등 62건 83점의 불교문화재가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전에 전시되는 전적류에는 헤이안(平安) 시대에 제작된 <일본서기(日本書紀)>와 사경이 눈에 띈다. 특히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경전 <회인과경(繪因果經)>은 경전의 뜻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아래에 경문을 적어 일본화 된 불교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소가죽으로 만든 부채형 화만(불전을 장엄하게 꾸미기 위해 생화나 조화로 꾸미는 장식)인 국보 '우피화만(牛皮華鬘)'은 소가죽을 투영해 보상화당초문을 배경으로 서로 마주보는 두 마리의 가릉빈가(불경에 나오는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한 상상의 새)를 표현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나라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헤이안 시대 불화의 특색을 잘 드러낸 유물로 평가된다.



◇'고려불화 재현전'에 전시된 '수월관음도'.

또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고려불화 재현전'은 원로 서양화가 강록사(姜鹿史) 화백에 의해 유화로 재현된 고려불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강 화백이 재현한 고려불화 대부분은 일본 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고려불화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수월관음도, 보현보살, 아미타여래, 16나한도 등 2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180여 점의 고려불화 중 130여 점이 일본으로 유출된 가운데 현재 국내에는 10여 점만이 남아 있는 실정. 강 화백은 "고려시대 전통미술의 백미인 고려불화 대부분이 일본에 유출돼 우리 국민이 직접 보기 힘든 것이 안타까워 5년 동안 고려불화 재현작업에 매달렸다"며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외에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역미술' 특별전(본지 450호)을 기념한 학술강연회도 개최한다. 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12월 18일 '중국 신강지역 출토 벽화에 관하여'를 주제로 가응일(賈應逸) 신강 위구르자치구 박물관 연구원의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천미희·오유진 기자

12월 3일 충남 공주시 수촌리 백제고분군에서 무령왕릉 이후 최대의 국보급 유물이 발굴됐다. 이후 발굴조사를 통한 고대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주 백제 왕흥사지 발굴조사에 이어 월정사지, 회암사지 등 옛 사찰 터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의 월정사지 발굴조사와 경기도 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의 회암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수백 년 전 절의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절터 발굴 2곳

월정사지 2차 발굴

적광전~탑~용금루간 보도석열
고려·조선 건물지·유구 발견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산단은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지역 2차 발굴조사 결과 적광전과 탑, 용금루를 잇는 보도석열을 확인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이 보도석열은 2차례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생토 위에 1m 폭으로 조성된 고려시대 보도석열과 그 위에 조선시대에 설치한 보도석열이 확인됐다. 이러한 보도석열의 변화는 사찰 구역변화와도 관계있는 것으로, 현재의 탑과 용금루 중간쯤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담장유구 등을 통해 고려시대의 사찰 구역이 조선시대에 와서 현재와 같은 규모로 확장됐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도석열 외에도 조선시대 건물지 2동, 고려시대 건물지 1동과 담장시설, 고려·조선시대 부석시설 3기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한편 월정사지는 2002년 1차 발굴조사에서 송나라 휘종 대에 사용된 동전인 숭녕중보(崇寧重寶 1102~1106), 성안원보(聖宋元寶)가 출토돼 탑의 조성시기가 12세기경임이 밝혀진 바 있다. 또 조선시대 와적 층에서 출토된 암막새에서 세종 28년인 1446년 4월에 양령대군과 효령대군에 의해 월정사가 중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회암사지 6차 발굴

건물지 모두 55곳 … 칸수 265칸
초석 주위 할석 돌린 적심 이채

경기도 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양주 회암사지 6차 발굴조사 결과 55개소의 건물지에서 확인된 전체 건물지 칸수가 256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서 목은 이색(1328~1396)이 262칸이라고 기록한 부분과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다.

12월 9일 열린 현장 지도위원회에서 조사단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건물지의 흔적이 육안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회암사지 전체에 60개소 가량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광전지 보강조사에서는 4차례에 걸친 변화와 정면 5칸, 측면 5칸의 건물지 규모를 알 수 있는 초석 배치를 확인했다. 이는 목은 이색의 보광전 5칸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초석 주위로 작은 할석을 1열로 돌려 적심(전통가옥을 지을 때 땅을 다지기 위해 작은 돌을 쌓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것이 특이한 점으로 지적됐다.

소상영 조사팀장은 "이외에도 조사구역 내에서 목욕시설로 추정되는 석조가 발견됐다"며 "이로부터 서쪽 건물지 아궁이에서 많은 양의 물을 데우기 위한 대규모 함실이 축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탑(6)

아비지의 회한

"탑을 세운 뒤 천지가 형통하고 삼한이 통일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탑의 영검이 아니겠는가?"

황룡사 9층목탑의 영험함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고 보는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의 시각이다. 외침을 막기 위해 황룡사 9층목탑을 조성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외침을 막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경주 남산탑곡마애불의 9층탑. 황룡사9층목탑을 복원하는데 가장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백제 기술진 황룡사 9층목탑 건립 참여
완성 수년후 나라의 운명 다할 줄이야…

황룡사 9층목탑을 조성하는 데에는 드라마틱한 설화가 전한다. 그것은 바로 백제 장인 아비지(阿非知)를 초빙하여 황룡사 9층목탑을 건립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 황룡사탑을 조성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백제의 끊임없는 침입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 태종에게 구원을 청하다가 부인의 임금이라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그래서 선덕왕이 탑 건립의 문제로 신하들과 의논하자 신하들의 대답이 의외였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적국인 백제의 장인을 모셔다가 황룡사탑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과연 이러한 대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신라의 포용력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으로서 적을 물리치는 고도의 전략이라 보아야 할 것인가? 아무튼 백제 기술진을 초빙하여 탑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백제에 보물과 비단을 보내어 기술자를 부탁하자 아비지가 소장(小匠) 2백여 명을 거느리고 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아비지가 처음 탑의 기둥을 세우던 날 꿈에 백제가 멸망하는 형상을 보았다. 그는 일을 멈추고 고민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어둠 속에서 노승 한 사람과 장사 한 사람이 그 기둥을 세우고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장면을 보고서야 아비지가 다시 그 탑 건립에 힘쓴 것이다. 결국 황룡사 9층목탑이 완성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비지의 꿈처럼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던 것이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황룡사 복원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황룡사 9층목탑이 익산 양식에 의하여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백제 기술진에 의하여 지어졌다면, 몸체가 홀쭉한 사비 양식과 뚱뚱한 익산 양식 둘 중의 하나를 따랐을 것이다. 그런데 황룡사 9층목탑이 645년에 건립되었고 익산 양식의 대표적인 탑인 미륵사목탑이 640년에 조성되었으니, 황룡사 9층목탑은 미륵사목탑과 더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경주 남산탑곡마애불을 보면 부조로 새겨진 9층탑이다. 이 마애 9층탑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보아 황룡사 9층목탑에 가장 가까운 형상으로 보고 있다. 이 탑곡의 마애 9층탑도 미륵사탑처럼 뚱뚱한 몸체인 점으로 보아 황룡사 9층목탑이 미륵사목탑과 유사한 형상일 가능성은 더욱 높은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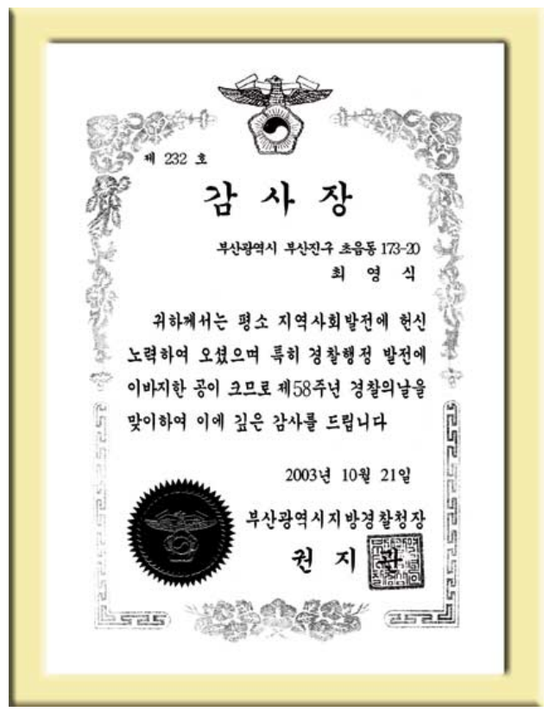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2月 셋째주, 넷째주 (월 ~ 금)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파동명상요법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 강도, 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031-973-8534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 서울 진관내동 용암사
02-387-3216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수행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20~40세)
▷ 도심속의 포교원(부산)
018-801-2584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분당 불국사
031-719-0408

스님이 없는 가난한 암자나 포교원 주지를 원합니다
무보시 무료로 운영해 드립니다 (주역을 통달)
55세 비구 일봉
011-421-0936

비구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 30대 후~40대 초
053-961-0224
019-514-2412

법랍 10년된 비구승입니다 부전스님 소임 원합니다
032-511-4974

주임겸직교사모심
개인사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임.
취침이 가능한 미혼녀로써 경력을 갖추신 참신한 교사를 원함
최고 우대함.
경기도 양평지역임
031-774-349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 하는 분)
▷ 서울 구파발
02-352-0572

공양주 모심
불심이 돈독한 독신으로서 영원히 함께 사실 보살님만 연락을 바람
개인 사찰을 소유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임
031-774-3497

결혼상대자 구함
35세 건강한 불자 미혼남성입니다
32세 건강한 가정에 불자 미혼여성 원함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슴
011-9757-13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교포 사절. 55세이상
02-2234-2198
011-9721-2198

천일기도하면 가족처럼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032-873-1059
016-443-9933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급구)
평생을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보시 70~80만원)
011-286-0308
02-386-0926

참신한 기도스님 모십니다
▷ 미륵산 용화사
055-645-3060
055-646-3090

60대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수있는 일을 저렴한 보시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조상천도, 구병시식
지장기도, 참회도량
부설 : 스포츠 마사지
목,어깨,허리,디스크,신경통,
전문 교정기 사용(특허품)
천도 및 교정후 변화없을시 환불
스포츠마사지사 원장 김관우 합장
02-998-0940.011-663-2754

변비는 만병의 원인
변비 · 숙변
(다이어트)
▷변화없을시 환불 보장
2달분 90,000원, 1달분 50,000원
구입문의 080-558-6633
대리점모집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탈종 공고
· 사찰명 : 자비사 · 주지 : 김종옥(무진)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683-5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과 맞지않아
탈종하고자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2월 17일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대학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구회(포교단)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붕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포교사, 장묘관리사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법사
011)412-8040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3시간 완성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易學 지도
신비한 구성학, 사주없이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과 목적, 점사등을 바로 알수 있는 신비한 구성비법을 개인지도 합니다
☎ 019)446-4755

성수철학원 (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단체는 출장 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정통풍수지리
도상에서 혈을 찾은후 현지답사를 하고 명당순례로 패철사용법을 완전 터득시켜드리고 양택의 길흉판단,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음양택에 대한 [풍수비법 자료집](휴대용) 제공
▶ 개강 일정 : 2003. 12. 5 (주.야간반) 주2회 금요일 (2개월 완성)
장소 : 화암빌딩 402호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한국사회교육원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러브 국제 국내 결혼 이야기
미혼 · 만혼 · 재혼
형제,친지나 다름없는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인연을 맺어 드리고 있습니다.
불자님! 결혼을 못하시거나 혼기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주십시오
소장 강세희
051)804-2887. 554-2889

志晛易理學研究院
◆역리학강의 :
-자강이석영단원이병렬선생의정통 학문강의(초급-연구반)
◆작명학강의 :
-본명사주의오행균형법부족된자원보충법수리법음령법의체계적인이론연구
◆건강학강의 :
- 자연오행과 사상체질 사주학의 선천적 후천적인질병관계
- 섭생에 의한 영양의흐름환경에 의한 질병이론연구
- 오장육부의 장기복진법 기맥혈 맥진법등의수지침시술법의 자의 관리의 이론 (무료주1회)
지현역리학 연구원 수시 모집 (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환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 오피스텔 1004호 (강남역 3번출구)
www.지현역리학연구원.wo.to (이달의 건강메모)
02)2243-9598. 018-470-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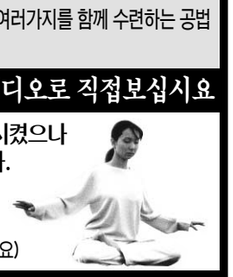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전세계 1억명이 수련하는 법륜공법
氣功 치료비법
하루 30분이면 온몸이 상쾌해 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내몸은 내스스로 고치는 기공법!!
신경통, 만성두통, 오십견, 요통, 불면증, 피로회복
불가에서 내려온 비법공개!!
1. 불전전수법 – 우주에너지를 다량흡수 막힌곳을 열어준다 공법의 핵심은 소통시키고 막힌곳은 열어 백맥이 열리게 한다.
2. 법륜장법 – 전신이 관통되어 에너지가 충전되는 정장법 4개의 포륜동작으로 이루어졌다.
3. 관통양극법 – 우주에너지, 체내에너지를 혼합 관통하는 방법 짧은시간내 신체를 정화시키는 공법
4. 법륜주천법 – 인체의 에너지를 대면적으로 유통시켜 인체를 순환시킨다.
5. 신통가지법 – 신통과 공력을 가지는 여러가지를 함께 수련하는 공법 최고의 정공수련법
佛家비법중 최고의 비법! 비디오로 직접보십시요
중국정부는 1994년 수련을 중단시켰으나 계속 수련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가격 : 10,000원 (Tape 1set)
● 국민은행 : 454102-01-324517 예금주 : 김보경(입금 후 전화를 주십시요)


문의 상담 02)455-6944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업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학상 수상
♧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특별보시!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백운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백운산 운장사
韓國佛教藝術文化院

효사육임도서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2,500,000
● 육임래정비법 ·····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 74,000
● 육임신수비결(설명비디오 포함) ·····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 900,000
● 육임형이상법 ·····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 「본회회원실기지도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9평 / 요사 : 29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8억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75평 / 부지 : 450평 / 가액 :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02)935-4294

국내제2지장보궁 사원정보안내

- 고려고찰 조계종 소속 산하 국내지장3대 보궁중 제2지장보궁입니다 소백산 깊은곳에 국난에 복원된 청정하여 알려지지 아니한 너무나 빈약한 이곳으로 모든 불심있는 기도 불자님과 불자 관광기사님 이은혜 잊지 않을것이오니 이 보궁으로 운행 안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내제2지장보궁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창동에 위치
- 5층건물에 2층, 약 35평
- 삼존불(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 신중탱화,칠성탱화,영가단, A급불단
- 방2개,공단 연등 약 400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1)9911-042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신북면 가채리 819-4
- 요사채 56평, 법당 25평
- 석가모니부처님,관음,지장 모셔져 있음
- 가액 : 전세 6천만원
- 월세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031)535-5063

사찰(급)수련원 안내

- 위치 : 제주도남제주군성산읍(성산일출봉에서5분거리)
- 1층대지 380평, 법당22평(목조단청),석조약사여래불 3m50, 칠층석탑, 산신1당목조단청7평,종각단청,요사채 1동 30평,공양실 및 샤워실 15평
- 반지하 총 150평,법당 40평,첨선방 10개,공양실,샤워실,현대식 화장실 최근 도색 단장
- 특징 : 성산일출봉과 우도섬이 보이는 절경 바닷가 5분거리, 수련원, 참선방 모두 가능
- 가액 : 평당 1백만원
- ※제주시 중심가 불교선원 3층 40평 매매가 3500만원(년세, 시설비 포함)

064)782-436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8억 5천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98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소재
- 40평, 방 1칸
- 1년사용료 1500만원 선불
- 법당 시설비 400만원 투자함
- 포교에 원력이 있는 비구니 스님 환영

02)948-7006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 다용도 가능함. 준 농림지
- 1,070평중 일부 전용 컨테이너 1동
- 전기 시설, 차량 진입. 조용하고 아늑한 곳
- 예상가액 : 평당 5만원

011)570-13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망우4거리
- 4층건물 중 3층
- 법당 30평, 방2개, 부엌1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9)571-173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 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비 1800만원

011)9867-9822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신도시,주엽 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시내
- 대지 : 450평
- 법당 : 35평(목재)
- 요사 : 100평(3동)
- 양도가 : 10억
- ※ 산세 좋음

〈토굴〉

- 위치 : 경남 밀양시
- 대지 : 370평
- 법당 겸 요사 : 30평
- 양도가 : 1억 5천
- ※ 산세가 좋으면 수행 정진 토굴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암자포교당 최적지

- 전주시내 시장버스정류장 5거리 건널목
- 사람이 꾸준히 움직이는 단독상가밀집지역 한옥고가집 나무상태 80% 주차양호 대지 80평 법당모실수 있는 방 평수 20평 큰방 5개, 전체수리 즉시 입주 은행융자됨 도로간판 설치됨
- 가액 : 7800만원이면 등기 완료 노후대책 전망있음 새로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제자님께서는 전화바람 가능성 없는 전화 사절 주인직거래

063)246-848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성남시 주택 밀집지역
- 평수 : 45평
- 법당, 거실, 방2, 창고방1, 주방, 화장실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678-0807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 1동은 건물 등기 돼있음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3)563-3050
033)563-3051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임야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채 110평 1동
- 창고겸 숙식가능요사 45평 1동
- 위치 터 좋아 모든 포교, 사회 복지 활동 최적지
- 가액 : 3억 7천만원

011)9457-7060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성남시 분당
- 3층 건물중 3층
- 위치 A급
- 방2개, 전체 평수 약 33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9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 가능)

018)242-707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근교
- 대지 : 1300평
- 법당 15평(목조 50년)
- 요사 50평, 용왕각 3평
- 가액 : 1억9천만원

011)875-073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신축법당. 소나무 숲속
- 방4개, 넓은 거실, 수세식 화장실, 창고
- 주차장 넓음. 넓은 텃밭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7)533-1356

사찰 안내

- 고상한 절과 요사
- 큰 냇가와 수백년 먹은 나무와 어울어짐
- 전 500평, 대지 200평 그부근 국유지 많음
- 가액 : 1억 5500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서이천IC 근처)
- 대지 970평, 법당 29평, 요사채 22평(방, 부엌, 화장실), 통나무 건물
- 가액 : 5억(절충 가능)
- ※ 연면적 620평이 복지시설물 건축 허가 나와 있음 (선원, 선방,복지시설 활용 용이함)

011)325-5199
031)632-5664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 부지 : 1500평(1000평종교부지허가)
- 산세수려, 수목 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 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3억5천만원

017)438-3377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 대지 : 58평, 건평 60평(현대식)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건물 깨끗하고 내부시설 아주 깨끗함
- 대단지 아파트옆(위치 아주 좋음)
- 사정상(공부하러 감) 매매
- 가액 : 2억원

011)858-94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번화가
- 건물 : 5층중 4층 50평
- 엘레베이터 유
- 보증금 3천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합 5천만원(방 총 6개)

051)803-494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시내에서 5분
- 산세가 좋고 앞에 냇가 물이 흐름
- 삼존불, 산신, 용화
- 대지 약 2만평(과일나무심어져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물 : 상담후 결정
- 법당20평, 스님방2, 공양간20평, 집2채

011)9273-2477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슴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동호동
- 건물 실평수(50평)
- 임법당, 방2개
- 특징 : 신도시 개발지역 도심속의 포교지로 최적지임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보증금 답사후 절충)

016)502-7307
053)963-994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건물 : 법당18평, 요사채12평, 스님방3개, 목욕탕(조립식 가건물)
- 삼존불, 산신각
- 특징 : 국도변으로 교통 편리,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심야 보일러 설치
- 대지 : 108평
- 가액 : 5천 5백만원

011)595-7360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금산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 100평, 건평 33평(임법당)
- IC 10분거리. 교통편리. 정남향
- 비구니 스님 처소로 적합
- 가액 : 7500만원(조정 가능)

011)9696-31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남동
- 특징 : 도심속의 산사 바닷가
- 건물3동, 법당 10평, 요사 2동
- 시설비 1천만원, 월 20만원 (보증금 없음)

055)646-2766
019)656-2766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15분 거리 옥천
- 대지 100평, 건평 70~75평
- 2층법당25평, 방5개, 화장실 실내 3개, 주방1, 거실1
- 앞마당 주차
- 가액 : 1억 5000만원

043)733-8108
02)587-0108

토굴 안내

- 위치 : 대구시 현풍읍
- 집세 없음. 삼존불, 산신각
- 법회 준비 완료
- 가액 : 1천500만원 (절충가능)

016)9374-0334
053)616-3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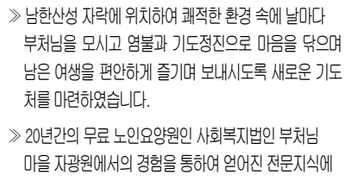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가
- 대지 203평, 현거래시가 260만(5억2천7백만원)
- 사정상 급 평당 195만(3억9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5층, 7층 탑
- 백년이상된 고목 1그루
- 포교 적합지 / 화장실 남2, 여2
- 주차 7~8대 가능 / 주인 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기도처 자광원 (자연속에 보금자리)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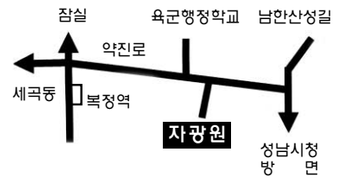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토굴 암자 안내

- 경북 포항시 시내 20분거리
- 풍수적 요지
- 대지 : 100평
- 건물 23평. 임법당
- 가액 : 가격 절충

054)262-7765
017)803-7890

암자 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 271평
- 특징 : 좌청룡우백호 지장 기도도량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환영
- 전화 문의. 현지 상담
- 가액은 추후 결정

011)526-1824

사찰 안내

- 위치 : 보령시 외곽
- 면적 172평중 대지 86평
- 정남향. 건평 36.75평
-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쳐있고 앞면은 툭터져 있으며 큰도로에서 약 80m도보
- 임법당, 큰방1(가로25자,세로12자 이상), 작은방2, 주방, 욕실
- 잘지은 조립식 건물. 1년됨
- 타지역 이사관계로 매매

041)934-851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 대지 : 57평
- 법당 : 20평(2층)
- 요사채 : 32평(1층)
- 지하 방 4개(세) 마당 ; 주차함
- 가액 : 평당가격(전세도 가능함)

011)9637-2632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임대. 법당(삼존불,산신각, 108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7천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몽골문화촌 옆
- 대지 220평, 건평 42평
- 방3개, 법당1개, 2층은 올릴수 있음
- 가액 : 1억 5천만원

02)979-4478
011)340-4478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11)9093-010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 약 1천평
- 법당 57평, 강당 100평
- 납골당 30평, 요사채40평1, 22평 1, 18평 1, 창고 25평
- 산신각, 용왕각 별도, 부도탑
- 주지실 별도 15평
- 전면 높이가 4~5m. 돌로된 미륵불. 좌우로 육지장. 가족형납골당
- 가액 : 2억7천만원

011)544-8692
017)808-05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시흥시 신천동 시장 부근
- 인구밀집지역으로 포교 적합함
- 큰방(법당), 작은방1칸, 욕실, 주방
- 2층 빌라 등기이전 및 시설비 포함
- 은행 대출 없으므로 대출 가능함
- 가액 : 2천900만원(집기일체포함)

031)404-3956~7
018)367-8845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안 산세수려한 명산의 동남향
- 부지 1300평중 법당자리는 종교부지임
-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모두 목조주심포 건물
- 요사채 1동은 목조건물1동은 현대식슬라브 건물
- 종단 연수원 또는 납골당 기도원등으로 적합함
- 맥반석지하수, 가액은 답사후 절충하시기 바람

018)367-8845

목어

어느 날의 '달 타령'



임연태
본지 미디어부장

"아빠 달이 왜 자꾸 따라와?"

다섯 살 된 둘째 아들의 질문이다. 나는 잠시 망설인다.

"응, 우리 가는 길을 밝혀 주려고."

"에이, 이렇게 밝은데? 달 보다 아빠 차랑 길등(가로등) 불이 더 밝은데…"

녀석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에 나는 속으로 놀란다. 녀석의 말이 옳다. 달빛은 도시의 길을 달리는 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외가를 다녀오는 길이 저물었을 때, 두둥실 뜬 달은 산길과 들길을 밝혀 주는 따스한 가로등이었다. 그런데 길마다 가로등이 즐비한 지금, 그 포근한 향수에서 길어 올린 대답이 아들에게 먹히질 않는다.

"그래도 달은 아빠가 운전을 잘 해서 집까지 잘 가라고 빛을 내면서 따라오는 거야. 고맙지?"

"응."

국면 전환을 위해 말을 슬쩍 돌린다. 녀석의 동의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나 그 고마움도 잠시. "근데, 달은 바퀴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 누가 운전을 하지?" 이어지는 녀석의 질문에 죽을 맛이다.

"아빠 운전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역시 아내는 고마운 존재다.

"그럼 엄마가 대답해줘."

아내는 이런저런 말로 답을 만들어 보지만 녀석의 이어지는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 아, 어려운 국면. 뭔가 돌덩이 같은 것이 뇌리를 휙 스쳐 지나간다.

'엉뚱한 질문을 해대는 녀석과 대답의 초점을 맞출 재간이 없는 부모. 누가 더 어리석은 존재인가?'

달님은 아실까?

송년회 모임 자비행 실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송년회를 대신해 12월 30일 의정부 호원동에 위치한 통일안국사의 선재동자원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중앙신도회는 고급 연회장에서 열던 송년모임을 2001년부터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중앙신도회 관계자는 "즐기는 문화에서 회향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군죽비

장애인, 국민 누가 문제인가?

국민 10명중 7명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TNS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12월 1~2일 '장애인권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주변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의견이 68.4%나 됐다. 또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47.6%, '장애인 노동문제가 심각하다'는 대답이 41.6%에 달했다.



불자 세상보기

강문호
동국대 국사학과 교수

도둑 맞고 있는 역사

최근 중국에서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프로젝트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 정권이며, 중원정부를 대신해 동북 지역을 통치했던 할거정권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1980년대부터 중국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동북공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양천도 이후의 고구려사도 중국사라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우리의 역사라 생각했던 고구려사가 중국의 역사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중국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고대사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12월 9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구려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나아가 정부의 유관 부처에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는 중원 왕조들과는 대립적 위치에 있던 독립왕조였다는 점이다. 중국과는 종족 · 언어 · 습속 · 전통을 달리하는 나라였으며, 중국의 책봉을 받은 적도 없었다. 고구려가 중원왕조와 종속관계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중국측이 강조하는 '조공(朝貢)' 또한 중국과 주변국가가 공존하는 외교수단에 불과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고구려사를 확실한 우리 역사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다룰 사안은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중국인들의 대외인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그들의 대외인식을 극명히 보여주는 황제(皇帝)제도이다. 중국의 군주인 황제는 중국 민중의 군주인 동시에 천하(天下)의 군주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중국인들의 민족의식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를 때 '민족'이란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함으로써 언어나 풍습 등의 문화내용을 함께 하는 인간 집단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민족 개념은 공통의 조상인 단군의 자손이라는 전제 하에 혈통과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중국인들은 중국을 구성하는 55개 민족의 역사와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이뤄진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그들의 주장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호 연구와 이해 증진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측 자료를 구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너지고 있는 역사 교육을 재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대부분 대학들은 역사를 교양선택 과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사회과목의 일부분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사를 강조함이 반세계화적 행동,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의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면과제는 내년 6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북한을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학자들은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를 공동 답사, 연구하여 그 결과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고구려사 지키기는 남북이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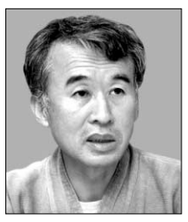
열린마당

귀농운동 8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주민과 화합하는 삶 보여 대중화 실현

1996년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된 귀농운동은 한국 사회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투쟁과 도시적 사회운동 일변도에서 농촌과 생명이라는 우리민족의 정서가 담긴,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주최로 12월 11일 열린 '귀농운동 8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토론회로 귀농운동 8년을 평가했다. 〈정리=남동우 · 김은경 기자〉

젊은층 주체로 생태농업 활성화 시급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 본부장

이제 우리 농업은 생태적인 농업, 이른바 '친환경농업'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기상이변과 식량위기, 성장의 한계 앞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은 친환경농업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태농업의 필요성과 기존 관행농업의 차이를 알고, 생태농업을 주도해나갈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 후 생태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사회적 조건,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를 이뤄 자연과 공생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현해야 한다.

관행농업의 목적은 공업적 생산양식에 의한 경제가치 곧 상품생산 자체이다. 그러나 생태농업은 자연생태계와 조화하면서 생명을 기르고 살리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는다.

환경생태농업을 통해 땅과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순환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귀농만이 농촌과 농업을 회생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도농공동체 운동 즉,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 정책 대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생태농업 실현조건이 유리한 지역 중심의 생태농업 거점을 마련하고 생태농업의 불씨를 퍼트려야 한다.

귀농의 실행, 정착위한 제도화 필요



성여경
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농촌의 현실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아니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농촌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 귀농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8년간 귀농운동의 근간은 교육 중심이었다. 농촌으로 돌아가 영농의 주체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에서 귀농학교 과정을 수료한 인원수가 지금까지 총 3,741명에 이른다.

귀농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은 자립적 삶과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 식, 주, 교육, 의료 다섯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나 귀농 운동의 본질인 '관심-교육-귀농-정착'의 틀에서 보면 일부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귀농운동의 중심이 교육으로부터 귀농과 정착으로 그 중심을 서서히 이동해나가야 한다. 귀농의 실행과 귀농자의 정착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해, 제도권 안으로 귀농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론적 배경을 논리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도록 귀농 정책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지역 귀농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귀농자 모임을 활성화하는 조직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생협매장 등 통한 순환적 소비력 조직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귀농운동 제2기를 맞기 위해선 귀농자간의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산지 확보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생협매장과 종교계 시설을 통한 '지역귀농인코너 확보운동'으로 지역 순환적 소비도 절실하다. 또한 토지와 농업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귀농자의 튼튼한 정착을 위해선 귀농준비 단계의 내실화와 귀농지 선택 및 정착단계에서 생태적 · 공동체성 강화 등의 귀농자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과 가공 및 유통에 관한 교육 강화 등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집권적 영농정책 제고와 친환경농업에 입각한 지역경제론 확립 촉구 등의 귀농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귀농을 통한 행복한 삶'을 보여줘, 귀농운동을 대중화 · 사회화하는 것도,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길이다. 생태적 · 공동체적 귀농지에서 귀농자들이 자신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하며, 보다 인간적이며 여유로우며 보다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지에서 인근의 중소도시 소비자들과 중소규모의 도농공동체 운동에 대해서도 정통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이 현실 속에서 구현돼 갈 것이다.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마는 물질 문명으로서는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꽂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人生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自信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主人公은 인생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라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번 보림사 보림선원 칠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칠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납 60년 수행하고 제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묵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3년 12월 27일(토) 오후 8시부터
2004년 1월 2일(금)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02)914-6187
■ 회 비 :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3,51,16,710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합장

관절영양제 "글루코사민샥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 180정(2개월분)×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함유) 400mg, 구연산칼슘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코페롤, 아연, 망간 등
- 복용량

환자체중	1일 권장량
54kg이하	1000mg 글루코사민 800mg 콘드로이틴 황산
54kg~90kg	1500mg 글루코사민 1200mg 콘드로이틴 황산
90kg이상	2000mg 글루코사민 1600mg 콘드로이틴 황산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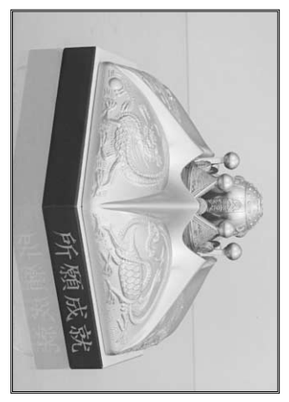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완제품
- 권장섭취량
1일 3회 1정씩 식후에 섭취하십시요.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www.sbtongsang.co.kr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생氣 부적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천도재 49재와 결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목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당어리 목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광주전남 불교연대

이라크파병 반대, '1인 시위'로… '아름다운 선율'로

부산종교인 대화아카데미

행법 스님 광주 충장로 1인시위 석달째

"66개국 20억명을 적으로 만들어서야"

"화합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66개국 20억 명의 적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이하 불교연대)를 이끌고 있는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

이라크파병 저지를 위해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1인시위를 펼친 지, 12월 20일로 석달째에 접어드는 행법 스님은 "이슬람국가와 적대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한다"며 이라크파병 반대를 위한 자리에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는 스님. 정부의 파병결정이 다가오면서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스님은 4개 종단 성직자들이 주관한 '파병저지를 위한 공동 기도회'에서 '평화를 위하여'라는 시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스님은 이 시에서 "…가진 자의 더 뺏기 싸움에/ 이 세상 아까운 생명들이/ 더 이상은 죽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제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전쟁의 참상을/ 바로보고 극복하는 일이/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며 파병론자들을 향해 일갈했다.

"더울 때 시작했는데 이렇게 추위가 왔네요. 그래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도 뽑아 주고, 멈춰서서 함께 홍보물도 나눠주고 하면 힘이 솟습니다."

당번제로 진행되는 1인시위, 갑자기 추워진 거리에서 홍보판을 들고 파병반대를 외치는 스님은 "시민들의 작은 격려가 이처럼 큰 힘이 되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평소엔 남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던 스님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거리에 나섰다"며 "막상 거리에 나서고 보니 대 사회문제에 타종교인에 비해 불교인들의 참여가 부족함"을 아쉬워했다. (062)263-4742 이준엽 기자

이라크 내 한국인 피살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병 세부안들을 논의하며 이라크파병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다. 광주에서 60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불교연대 상임대표 행법 스님과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한 '마음모둠 음악회'를 개최한 부산 종교인들을 찾아갔다.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행법 스님.

생명존중·평화 위한 마음모음 음악회

불교합창단 = 성가, 성가대 = 찬불가 공연

12월 16일 부산 YMCA 강당에서는 '생명 존중과 평화 정착을 위한 마음모둠 음악회'가 열렸다.

부산종교인 대화아카데미(공동대표 정여)의 주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는 생명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을 때 깃 드는 것"임을 천명하고 "대량살상무기 제거의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주도한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현 상황은 이미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의 철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라크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의지 전달은 결코 강경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샬롬학생성가대, 금소리 합창단, 한국외방선교수녀원 아홉 명의 수녀 등 종교인들이 직접 나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아름다운 노래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정여 스님은 축시 '계미년 저무는 밤에'를 통해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여 목청껏 소리 높여 평화의 노래 부르게 하소서'라고 음악회의 의미를 합축했다.

이번 음악회는 향림사 주지 법명 스님의 사회로 불교합창단이 성가와 가곡을 부르고 천주교 성가대는 찬불가를 부르며 종교 화합을 넘어 생명존중과 평화 정착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어지신 목자' '떠나가는 배' '들풀에 깃든 사랑' '청산을 나를 보고' 등의 주옥같은 성가, 찬불가 공연에 이어 원형은 목사의 '평화를 열어 가는 기도문'과 정만 스님의 '평화발원문'도 이어졌다. 기도회와 음악회의 성격을 띠는 이날 행사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동대표 정여 스님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음악의 화음이 막힌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봉행된 제13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 모습.

문학부문 김열규 교수 예술부문 서홍원 교수 행원상부문 전정효 씨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태)는 12월 6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대연회장에서 제13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1월 25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문학상 부문의 김열규 교수, 예술상 부분의 서홍원 교수, 행원상 부문의 MBC 전정효 보도국장이 상을 받았다.

현재 계명대 교수로 활동 중인 김열규 교수는 한국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원로학자로 각종 평론, 문화강좌 시리즈 등으로 향토문화 연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예술상을 받은 서홍원 교수는 국전, 경남도전 운영위원, 창원미협 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향토 미술계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이 컸다. 또한 언론상에 해당하는 행원상 수상자인 전정효 마산문화방송 보도국장은 향토민속 민요 발굴, 출간 등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천미희 기자

해인사 – 대만 불광산사 불교교류

양국 승가대학들 스님 수행 편의제공

합천 해인사와 대만 불광산사가 양 사찰간 불교문화 교류를 본격화한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을 비롯한 국장 스님들은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하고 불광산사에서 운영하는 불광대학과 남화대학에 해인사 스님들이 방문할 경우 수행 정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돌아왔다. 이는 통도사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해인사 측도 대만 불광산사 스님들이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할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불광산사와 해인사가 문화교류 조인식을 가진 후, 불광산사 측에서 해인사 스님들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천미희 기자

불국토 대표 혜총 스님 17일 이·취임 법회 봉행

불국토(대표이사 정관)는 12월 17일 오후 6시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와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도량의 대표이사 이·취임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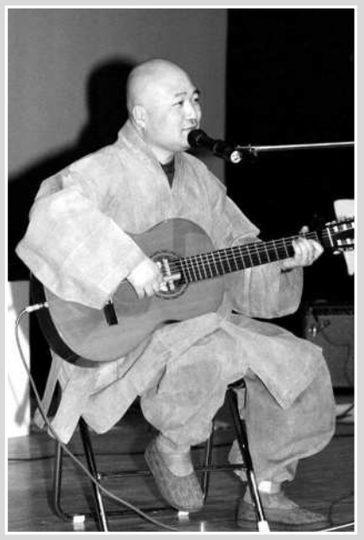
2003년 한해 동안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불국토 및 산하 기관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행사도 함께 열리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장 30명이 봉사상을 받는다.

이날 대표이사 이·취임식에서는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정관스님이 이임식을 갖고, 불국토 2대 대표이사로 혜총 스님, 불국토 청소년도량 2대 대표이사로 범산 스님이 각각 취임한다. 천미희 기자

300세대에 사랑의 김장 몰운대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몰운대복지관(관장 정련)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세대 등 3백 세대에 나누어 줄 연말 사랑의 김장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으며, 이날 담궈진 김장은 소외된 이웃 3백 세대에 전달됐다. 천미희 기자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오른 범능 스님.

'광주 출전가' 가수 정세현 씨 범능 스님으로 다시 무대에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무등산 정기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출전하여라. 억눌린 민중의 해방을 위해….'

1980년대 시위 현장에 울려 퍼지던 '광주출전가'를 만든 민중가수 정세현은 스님이 돼 다시 무대에 섰다.

지난 93년 출가해 범능(梵能)이란 법명을 받은 스님은 12월 6일 부산민주공원 작은 방에서 '범능의 노래이야기'로 부산 시민과 만났다. 5월 광주를 노래한 스님은 '산사의 염불이 음악이고, 예불이 곧 소리'라는 소신대로 관객을 만나고 노래를 불렀다.

출가 이후 '5월의 꽃'이라는 타이틀로 '광주출전가' '꽃아 꽃아' '하늘길' 등 출가 이전의 속세 노래를 재편집해 발표했던 범능 스님은 "출세간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지나온 시간 속의 모든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다"며 변화된 시간속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한국불교 세계에 알리는 주역될 것"

청년불자 25명 대만 세계청년대회에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게 된 국제불광회 부산협회 청년회(총무 김분홍) 소속 25명의 회원들은 각오가 대단했다. 4박 5일동안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준비하고, 불광인의 밤 행사를 기획하며 기대와 흥분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한 청년대회에 참석한 170여 개국 3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한복의 멋을 자랑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한복 입고 사진 찍기' 코너를 마련해 한국 전통의 멋을 알리고 e-메일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맺어갈 계획이기 때문. 이밖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연등, 컵등 만들기 시연을 위한 준비 작업과 찬불가와 한국가요 연습도 빼놓지 않고 있다. 천미희 기자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숭이 숭이 내리는 눈이 딴곳으로 안떨어지듯 한번도 자신이 우주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체를 버려서 무에 들었거던 다시 일체를 끌어 안아 자연이 되라. 나 없는 자리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천문을 열며,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자리를 찾으면 묘정봉에 오른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 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4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운명학의 최고봉 적천수(滴天髓)!
드디어 상·하권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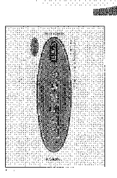
역학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적천수]가 비로소 완전정복 된다.

적천수 원문 완전 수록

운명학의 최고봉 적천수(滴天髓)!
명리(命理)의 진수(眞髓)를 파헤쳐 정확한 예단을 통해 운명을 개척한다!
적천수 원전(元典)을 토대로 실낱같은 함정과 오류를 드러내고 의롭게 밝혔다.
공유성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8페이지 / 정가 40,000원


일현스님 지음 양장본 값 20,000원

일현스님의 정설 사주공부
역술인의 완전정복 지침서
"기초부터 전문감정까지 한 권으로 끝낸다!"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론은 정리하였다.
기초부터 전문이론까지 핵심을 꿰뚫었다.
고전이론을 현대에 맞게 적용시켜 풀이하였다.
10년 공부한 사람도 막히는 격국 용신을 원리적으로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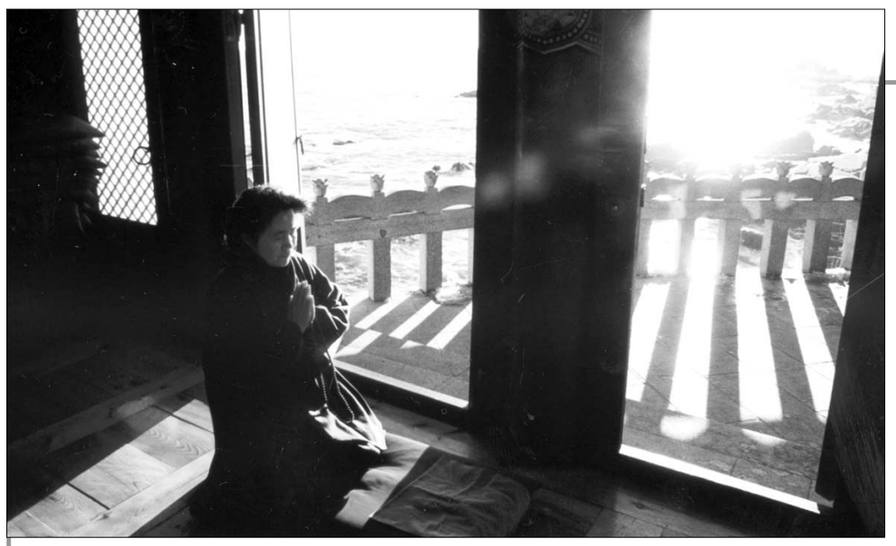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倅 譯註編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필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양장본/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흥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아침해가 떠오르는 가운데 낙산사 홍련암에서 기도중인 불자. <현대불교 자료사진>

새해 희망 산사에서 서원하세요

낙산사 등 사찰 템플스테이 참회 해맞이 프로그램 다양

겨울 산사에서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맞자.

12월 말부터 2004년 1월 1일 사이에 새해맞이 템플스테이(temple stays)를 실시하는 사찰은 조계사, 송광사, 낙산사, 부석사, 마곡사, 갑사, 범어사, 은해사, 자광사, 서원사, 백련불교문화원, 지장사등 12곳.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의 참가가 가능한 템플스테이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서원을 세울 수 있도록 철야 정진을 통한 해넘이 참회, 해맞이 새벽예불, 해맞이 108배, 해맞이 서원 공양, 묵언, 일출기도 등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동해안 일출명소인 강원도 양양 낙산사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2박3일간 '해맞이 대축제'를 통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의상대에서 해맞이와 함께 새해를 설계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새해 첫날 새벽에 범종을 직접 타종하며 건강과 소원도 빌 수 있다.

서해안 천수만 철새도래지에 위치한 서산 부석사는 습지연구센터와 함께 '새들과 함께 하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가족참가자들은 예불, 참선, 연꽃만들기, 야생화와 나무살피기 프로그램에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선무도 기공 수련사찰인 경주 골굴사는 31일부터 1박2일간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련과 함께하는 동해안 해맞이 수련회'를 연다. 1천80배 서원정진에 이어 새해 첫날에는 동해안 문무대왕릉 앞에서 해맞이와 선무도 기공수련을 체험할 수 있다.

순천 송광사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참선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영천 은해사는 31일 1천80배 체험후 1일 새벽에 묘봉암 중암암에서 일출을 보며 자기발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주 마곡사는 31일 해넘이 참회시간을 갖고, 1월 1일 새해타종식 및 해맞이 발원시간을 진행하며, 계룡산 갑사는 31일 문화공연과 타종식에 이어 1월 1일 삼불봉에서 해맞이 법회를 개최한다.

또 유성 자광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7일부터 1월 1일까지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외국인 템플스테이는 해넘이 참선, 해맞이 108배, 묵언포행, 무상사 동학사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문의 및 참가신청은 조계종 포교원 신행정보센터(info.ibuddhism.org), (02)732-9925~6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백제 최초 가람 불갑사 성보박물관 건립



백제불교 최초가람 불갑사 성보박물관이 건립된다.

영광 불갑사(주지 만당)는 11일 오전 11시 '불갑사 성보박물관 기공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만세루에서 열린 법회에 조계종 원로의원 수산스님(불갑사 조실),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 등 스님들과 김봉열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장, 심재선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과장 등 지역기관장, 신도 등 2백여명이 동참했다.

기공식에 앞서 수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옛 불상과 불화는 선인들이 직접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조성했기 때문에 예술품이 아니라 성보다"며 "후대에 까지 잘 전해져 더 많은 이들이 신심내어 수행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에앞서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인사말에서 "문화재청과 영광군, 전남도청의 지원으로 불갑사 성보문화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관될 건물을 건립하게 됐다"며 "유물전시관 불사가 원만성취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기공 테입을 자르고 첫 삽을 떴다.

불갑사 성보박물관은 2005년 12월 준공되며 연건평 220평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지하에는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와 지상에 2개의 전시실이 들어선다.

현재 불갑사에는 사천왕상 복장불서(전남 유형문화재 226호), 불갑사장 묘법연화경(전남 유형문화재 232호)를 비롯한 22건 223점의 지정문화재와 동종 등 비지정 문화재 173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준엽기자

제1회 광주불교 포교상 제정

광주불교 발전과 지역포교에 앞장서온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상이 제정됐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는 제1회 광주불교 포교상 시상식을 12월 26일 오후 6시 광주남도예술회관에서 '성도절 광주법회'를 겸해 갖기로 했다. 포교상 첫 수상자로 임희철(서부경찰서 불자회장), 이숙희(광주사암연합 합창단장), 김재덕(광주 운전불자회장)불자를 선정했다.

광주 사암련 회장 현지 스님은 "이번 포교상 수상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단체를 이끌면서 지역포교를 위해 혼신을 다한 불자들이다"고 밝혔다. 이준엽기자

구산 스님 20주기 추모법회



근세 한국불교의 선지식 구산 대선사 20주기 추모법회 및 탑돌이가 12월 6일 오전 10시 순천 송광사 대웅전과 탑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의 헌향으로 시작된 이날 추모법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스님과 신도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향-헌다-헌화와 입정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현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법회는 북한에서 제작한 큰스님 자수진영과 위패를 모시고 추모법회를 갖게되어 뜻 깊다"며 "평소 큰스님이 보여주셨던 철저한 수행과 자상한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준엽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기도하는 마음, 언제나 행복

양평 용문사 이혜심 원주보살

"처음 공양주 일을 시작할 때 아들 녀석이 다섯 살이었는데,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을 쳤어요."

이혜심(44) 보살의 '직업'은 양평 용문사 '원주보살'이다. '원주'란 게 절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중차대한 소임이지만 혜심 보살은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 정도로 불러 달라"고 정색을 한다. 아침 8시 반쯤이면 절로 출근해 저녁 예불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니 절이 직장인 셈이지만 보수도 따로 없고 15년째 스님들 시봉하고, 신도들 공양하는 일만 해 온 탓에 물론 명함도 없다.

혜심 보살은, 남들 표현을 빌리자면 "스님들 시봉하느라 꽃다운 새댁 시절을 다 보낸 사람"이다. 고향인 충북 청원에서 상경에 의정부에 터를 잡은 것이 스물아홉 되던 88년. 평소 인연이 있던 한 스님이 의정부에 포교당 건립 불사를 시작할 때였다. "스님들 공양 짓는 것 6개월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른 되던 89년 1월부터 공양주보살 소임을 맡아 밥 짓는 일을 시작했다. 거기서 9년 세월을 보내고 95년 스님을 따라 다시 용문사로 옮겼다. '공양주보살'을 떼고 대신 '원주보살'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하는 일이야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스님 10여 명(산철에는 15명 정도가 절에 기거한다고 한다)과 상주하는 신도 10여 명의 먹는 것을 챙겨야 되고, 49재나 재일이라도 있을라치면 장 보는 일부터 차리는 것까지 혜심 보살이 발품, 손품을 팔아야 한다. 그뿐 아니다. 4년 전 새로 문을 연 전통찻집 '솔내음 다래향'도 신경 써야 하고, 집안 살림은 물론이다.



◇이혜심 보살(왼쪽에서 두번째)은 15년째 절 살림을 해오고 있다. 용문사로 오면서 '공양주' 소임을 뗐지만 때마다 공양 준비하고, 장보는 일은 여전히 그의 몫이다.

8시 출근, 저녁 퇴근 절이 직장
장보기, 전통찻집 운영 전천후
아들 독립후 사찰에 살고 싶어

'세집 살림' 챙기기에 친구 만나는 것도, 집안 대소사 참석도 쉽지 않다는 혜심 보살이지만 "절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고 한다. "제가 밖에 나가면 '이동 약국'이라 불릴 정도로 약을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절일 하고부터는 몸도 마음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불교도 절도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혜심 보살은 "젊은 시절 아주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스님들 때문에 마음을 바로잡고 극복할 수 있었다"며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고 독립해 나가면 남편이랑 아예 절에 들어와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고 했다. 양평=권형진 기자



추천의 말

보인 스님 용문사 부주지

"신심 깊고 봉사도 열심"

용문사는 경기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용문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년 넘은 은행나무로 너무나 유명한 절이지요. 그러나 이혜심 보살은 빼놓고 용문사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관광사찰 신도들이 절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혜심 보살은 신심도 깊고, 봉사도 많이 하는 불자입니다. 공양주 소임부터 시작해 스님들 시봉하고 신도들 공양하고, 크고 작은 절 살림살이를 15년 동안 보수도 없이 묵묵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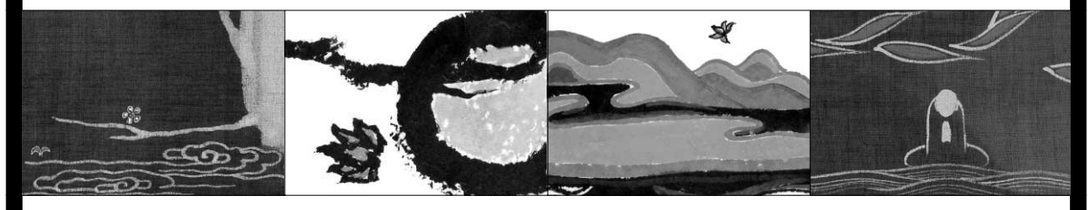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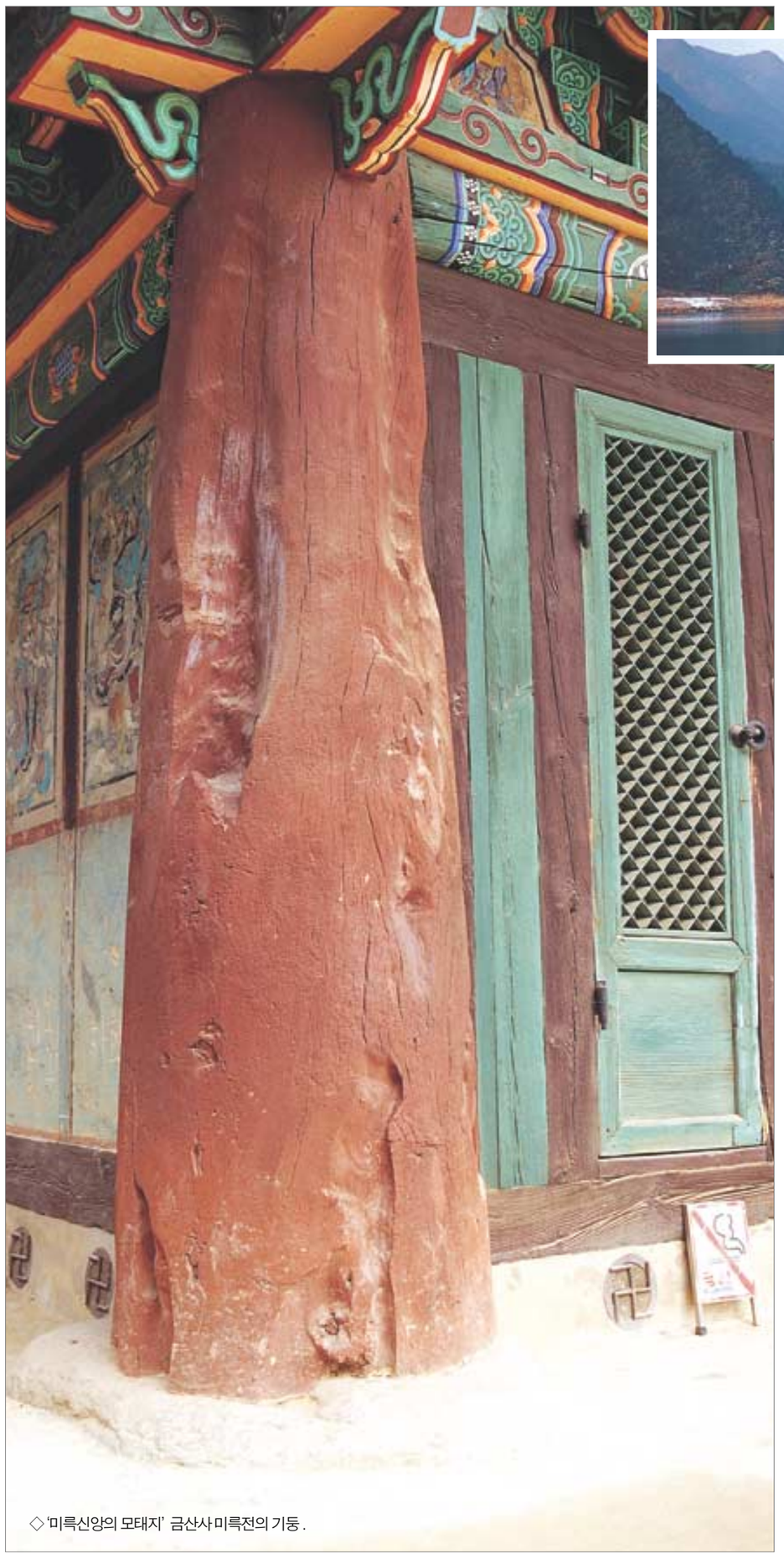
선원으로 맛보는 禪香三昧
에서 빠져드는 修行三昧



'선원'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발행하는 불교 월간지입니다.
'선원'은 불교의 대중화 · 수행의 전문화 · 선문화의 생활화를 추구합니다.
'선원'은 심층취재와 기획연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선원'은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매월 받아보길 희망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선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재단법인 선학원 편집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02)734-9654~6 | jaedan@kornet.net


◇'미륵신앙의 모태지' 금산사 미륵전의 기둥.


◇금평저수지.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21) 미륵산 금산사

미륵의 자비 숲 곳곳에 스며

김제 모악산은 미륵불교의 근본도량인 금산사가 앉은 탯자리이다. 금산사는 진표율사가 변산 부사의암(不思議庵)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망신참(亡身懺)의 오랜 고행 끝에 미륵보살과 지장보살로부터 간자와 계본을 전해 받고 중창한 미륵신앙의 자궁 같은 절이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익산-삼례를 지나면 왼

당우 주변 무속신앙에 화재위험 상주

미륵전 기둥 건축 · 자연 하나된 수작

쪽으로는 모악산(母岳山)이 시계(視界)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 모악산은 어머니 품처럼 넉넉하고 자비롭다. 만경 동진 두 물줄기가 모두 모악에서 발원하고, 그 물이 '징게맹경외배밋들'을 다 적셔준다. 역사 깊은 호남의 도작문화(稻作文化)도 기실은 모악이 그 자궁이다.

길가에 문짝 없는 당우 안에 무속인들이 켜 둔 수십 개의 촛불이 지켜보는 사람도 없이 저대로 타고 있다. 당우가 산자락에 붙어있어서 만약 화재가 난다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다.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금산사 사부대중이 모두 '오며가며 불조심' 해야 할 것이다.

견훤 성문을 지나면 도로 주변으로 김제시에서 야생화학습장, 꽃길, 서구식 잔디공원 등을 조성해 놓았다. 왕벚나무, 쪽동백, 전나무, 왕버들, 느티나무, 소나무 등 우리 나무와 함께 메타세콰이어, 히말라야삼나무, 양버즘나무, 삼나무 등 외래종도 많이 식재되어 있다.

보제루를 지나면 마당 한 가운데 반송처럼 옆으로 퍼진 와송(臥松)이 청일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와송은 이름과 달리 잣나무이다.

나라 안팎이 어지럽던 한말 1902년, 금광(金鑛)에 눈 먼 채굴꾼들이 금산사 경내까지 들어와 채광(採鑛)하려고 난리를 피웠다. 이에 주지 각민(覺民) 대사가 그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만 불량한 꾼들의 행패로 이 잣나무 아래에서 57세의 나이로 졸지에 입적하게 되었다. 사찰의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초의 순교였던 것이다.

미륵전은 진표 율사 중창 당시의 건물은 아니지만, 당시 율사가 숯을 사용해 연못에 살던 아홉 마리 용을 항복 받고 미륵전을 처음 지었다는 내용은 적이 흥미롭다.

미륵전 기둥들은 다듬지 않은 느티나무이다. 그 자연성은 금강역사의 팔뚝을 연상케 한다. 절집의 오랜 건축물 일수록 자연성이 많이 살아있다. 건



축의 자연성은 나무를 나무로 대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요즘 지은 절집에는 휘어진 기둥이나 굽은 서까래를 볼 수가 없다. 나무를 나무로 보지 않고 단순한 목재(木材)로만 보기 때문이다.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미륵전 옆 송대(松臺)는 경내에서 조경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이다. 늙은 소나무와 회나무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지고, 잎들을 다 떨군 겨울 활엽수들이 '비움의 미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송계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위치를 바꿔가며 바라보

울창한 숲속 다양한 조류, 포유류 서식

최근 무리한 임도 공사로 산사태 우려



는 눈 맛은 아무나 즐기는 것이 아니다.

대장전 뒤로는 왕대숲이 그윽하고, 왕대숲속에 직박구리 소리 요란하다. 직박구리는 금산사 주변의 조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텃새이다. 겨울철 경내외에서 볼 수 있는 조류로는 박새류를 비롯하여 황조롱이, 큰오색딱다구리, 물까마귀, 어치, 산솔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이 있다.

심원암 가는 길은 외줄기이다. 심원암 뒤로 정상으로 이어진 등산로가 나 있다. 그 길은 모악산 멧돼지들이 다니는 나들목이다. 심원암 스님은 요며칠 사이에도 몇 마리의 멧돼지 가족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모악산의 포유동물로 6백 미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신갈나무가 위세를 떨치고, 그 아래로는 굴참과 졸참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모악산 지질은 쥐라기(2억 1천만년~1억 4천만년 전)때 형성된 편마상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겉에서 보기에는 토심 깊은 육산 같아 보이지만, 한 겹 표토를 걷어내면 암맥이 금방 드러난다. 특히 경사지역은 표심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그리고 금산(金山), 금구(金溝), 금천(金川), 김제(金堤) 등등 모악산 주변의 지명에 쇠 '金'자가 많이 들어 간 것은 모악산의 지질상에 나타나는 합금석영맥(合金石英脈) 때문이다. 과거에 이 지역에서 사금(砂金)이 많이 생산되었다. 따라서 <금산사지>(金映遂 편찬)에 나오는 '엄뫼→큰뫼→큰산→금산'이 되었다는 지명유래설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요즘 청룡사는 임도(林道) 개설공사로 어수선하다. 경사지를 절개하여 물리적으로 낸 임도는 그만큼 산사태와 침식의 위험이 높다. 현재 임도가 대웅전 위쪽 직선거리 5~10미터 위치에서 지나가고 있어서 집중폭우 때 산사태가 일어나면 토사가 대웅전 지붕 위를 덮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임도의 시멘트 배수로는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청룡사 주변의 지하수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또,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토사가 배수로를 막게 되면 빗물이 임도를 넘어 청룡사 경내로 쏟아져 들어올 위험도 없지 않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청룡사 주변의 30~50년생 나무들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진리만이 세상의 아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집 짓는 것 자연과의 연계 끊는 행위 무소유의 삶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변혁운동과 함께 방랑생활

23년간 숲 속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밤하늘의 별을 이불로 삼고, 너른 대지를 베개 삼아 살고 있는' 독일인 페터 노이야르(62). '거지성자'로 널리 알려진 그가 다시 한국의 불자들을 찾아왔다. 1999년과 2001년에 이어 세 번째 방한이다.

'아나가리카'(Anagarika, 빨리어로 '집없는 자'란 뜻)로도 불리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15년 전부터 맨발로 다녀 새까매진 발바닥이나 팔꿈치며 목둘레를 촘촘히 기워 놓은 스웨터도 아니었다. 그를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처음 본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밝은 눈과 해맑은 얼굴이었다.

1941년 독일 라인란트팔츠에서 태어난 그는 기술대학에서 측량기술을 배우다가 입대, 해군에서 3년간 복무했다. 이후 2년간 제지공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 유럽 신좌파 학생이 중심이 된 사회변혁운동인 '68혁명'이 나자 프랑스로 건너갔다. 파리대학 집회에서 한 헝가리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가 2년 만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뜨자 방랑생활을 시작했다. 영국으로 건너가 불교사원에서 생활하던 그는 80년 독일로 돌아와 '돈 없이, 집 없이, 여자 없이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후 23년간 숲 속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고 낮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지내는 생활이 계속됐다. 나무 밑에서 태어나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무 밑에서 법을 설하다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삶을 닮기 위해서다.

새벽 4시 산책, 7시 도서관 출근, 저녁 9시 숲으로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독교적 사고로는 그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키플링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킴(Kim)>을 읽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벽암록> 등의 선어록을 읽기도 했지만, 선불교나 대승불교의 근본은 초기불교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뒤로는 초기불교 경전을 읽으며 불교의 근본원리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의 '집'은 독일 쾰른대학 앞의 숲이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눈뜬 뒤 호수 근처를 산책한다. 산책이 끝나면 근처 슈퍼마켓이나 비오라덴(무공해식품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흑빵과 시든 채소나 반쯤 썩은 과일을 얻어 와 7시쯤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면 바로 쾰른대학 중앙도서관으로 '출근'한다. 대학 측의 배려로 그는 이곳에서 거의 모든 책을 열람할 수 있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저녁 9시, 그도 숲으로 돌아간다.

그는 오랜 기간 노숙생활을 하고 있지만, 큰 병을 앓아본 적은 없다. 고작 몇 년에 한두 번 감기에 걸리는 것이 그의 병력의 전부.

"사람들은 안락과 평안을 위해 집을 짓고 울타리를 세우지만,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와 연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방어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벽과 옷 등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죠. 자연과 차단되면 결국 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노숙 생활은 결국 '과거로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거지의 삶을 사는 것은 부처님이 모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고 '아나가리카'의 삶을 걸어간 것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만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며,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자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 그가 말하는 '소유'란 어떤 의미일까?

경전 읽으면 마음 편해지고 지혜 얻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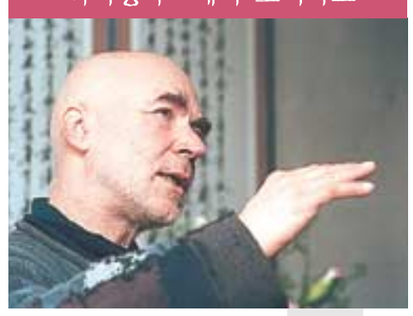
"소유란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장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부자도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한 순간에 버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조그만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기도 합니다. 결국 소유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끊고 벗어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착을 끊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23년간 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온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고통에서의 해방'이다.

"노숙생활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몸의 움직임과 느낌, 마음, 다르마(法)에 의식을 집중하여 순수한 관찰을 계속하는 것은, 나 자신을 수련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집을 버리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놀라운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글=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









曹溪宗 第九代 宗正
老天堂 月下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12月 4日 涅槃하신 曹溪宗 第九代 宗正이시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이신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종단장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을 직접 찾아와 주신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 · 조전 등으로 조위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47年 12月 10日

老天堂 月下 大宗師 49齋 日程

49재	장 소	일 시	연락처	비 고
초재	통도사 설법전	12월 10일 (11/17) 10:00시	055-382-7182 055-382-7186	
2재	〃	12월 17일 (11/24) 10:00시	〃	
3재	〃	12월 24일 (12/ 2) 10:00시	〃	
4재	〃	12월 31일 (12/ 9) 10:00시	〃	
5재	〃	1월 7일 (12/16) 10:00시	〃	
6재	〃	1월 14일 (12/23) 10:00시	〃	막재의 의전행사를 이때 봉행케 됩니다.
49재	〃	1월 21일 (12/30) 10:00시	〃	

曹溪宗 宗團葬 葬儀委員會 靈鷲叢林 通度寺 老天堂 月下 大宗師 門徒 一同

릴레이 수행일기 〈下〉



배광식

서울대학교 치대 교수

"경조 보다는 경주로 하겠습니다."

당시는 무심히 넘겼었지만, 청화 큰스님께서는 경주라는 불명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나를 호칭할 때 '배 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고, 절대로 법철거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이후로 큰스님께서는 '배 박사'라는 호칭대신 '경주 거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곁에 계시던 금산 스님께 "주변사람들이 불명을 자꾸 불러주는 것이 좋으니, 스님께서도 이제는 경주 거사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당부하셨다.

청화 큰스님께서는 태안사와 성륜사에서 매 안거 때마다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용맹정진에서 "경주 거사도 법문을 해야합니다"하시고는 법문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자격이 되고, 글쓰듯이 하면 됩니다. 이름 받은 대로 해야지요"하시고는 대중들과 함께 자리하여 나의 모자란 이야기를 듣곤 하셨다.

하루는 나를 불러, "중생을 교화하는데는 방편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시면서 다니구찌 마사하루의 〈생명의 실상〉 전질을 주셨다. "나도 출가하기 전에 속가에 있을 때는 '생명의 실상'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다니구찌 마사하루가 정견을 가지고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3년결사가 시작된 다음해에는 수형 보살과 나에게, 〈금륜회보〉를 발간하도록 부촉하셨다. 〈금륜회보〉는 큰스님을 정점으로 결성된 사부대중의 모임인 금륜회의 소식지로서, 창간호부터 계속 8면으로 내게 되었다. 큰스님의 육성 법문을 글로 정리한 것 말고, 큰스님께서 직접 글로 써주신 법문은 〈금륜회보〉에 처음 실리게 되었다. 1986년 5월호를 창간호로 매월 1회 발행된 회보의 편집은 수형 보살이 맡아서 했고, 인쇄된 회보를 고속버스에 실어보내는 등의 허드렛일은 내가 맡았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후일 수형 보살이 금륜출판사를 등록하여 큰스님의 법어집인 〈정통선의 향훈〉을 내기도 하고, 작년 5월 도봉산 광륜사 개원에 맞춰 창간된 불교잡지인 계간 〈광륜〉지의 편집도 수형 보살에게 맡기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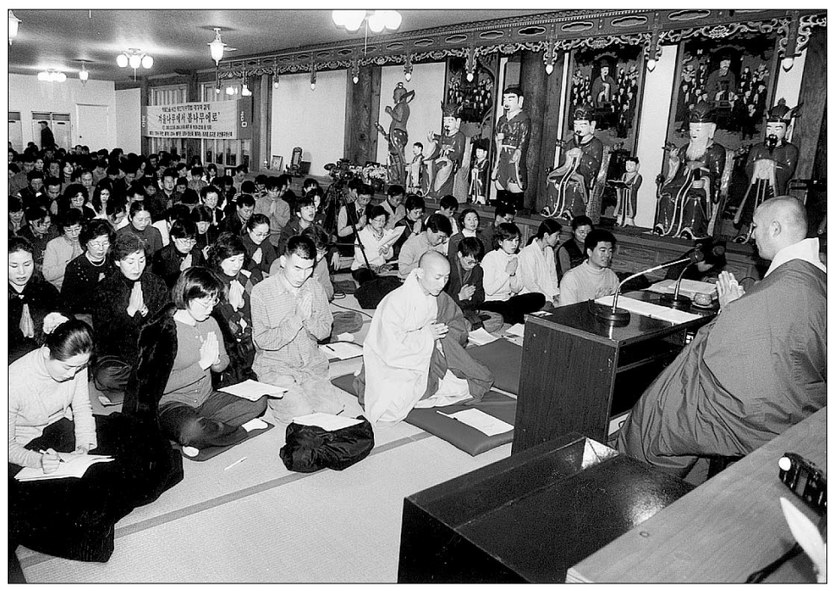
"내가 없더라도 광륜지는 원통(圓通) 불법을 선양하고 한국의 불교를 올바로 이끄는 불교지로 계속되어야 하고, 월간이 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하여도, 큰스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것으로 알았는데, 좀 더 큰스님 뜻에 맞게 정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죄스러움으로 남는다.

금년 봄 동안거 해제 후에 큰스님께서는 겨우내 번역하신 육조단경 원고를 출판하도록 수형 보살에게 당부하셨다.

스승께서 이 세상 저 세상 상관 안하시고 홀홀히 떠나신 지금, 항하사 수의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만큼이나 큰 은혜를 입은 나로서 은혜갚음이 실개천에도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면서 불법홍포와 진리탐구를 위해 위법망구할 것을 서원한다.

큰스님 원력따라 〈금륜회보〉 발간

포교 매진해 은혜 보답할 것 다짐



◇계율수행법에 대한 혜능 스님의 법문에 앞서 '난우게'를 외우는 불자들.

戒는 어둠 밝히는 등불



혜능 스님의 계율 수행

온갖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지계의 강령

열반의 경지 드는 길도 계에서 시작

"계(戒)는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생사를 건너는 다리와 같으며 가없는 바다의 배와 같습니다."(화엄경)

12월 9일 저녁 7시30분, 조계사 극락전. 법당을 빼곡히 메운 200여 불자들이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주관하는 '수행법 대강좌 결제'의 두번 째 강의를 듣기에 앞서 108배 정진에 여념이 없었다. 불자들의 청법가에 이어 등단한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은 이날의 주제인 '계율 수행법'에 대해 강의하기에 앞서 해탈을 얻기 위한 계율 수행 만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난우게(難遇偈)를 설하며 지계 수행의 요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삼업(身口意)으로 온갖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지계의 강령입니다. 항상 마음을 현전에 잡아두고(正念), 온갖 욕망을 버리고 여의며(離欲), 세간의 무익한 고행을 수용하지 않는 것(捨無益苦行)이 수행의 요체입니다."

혜능 스님은 3시간 동안의 법문을 통해 "성인의 과위에 오르고 곧바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능 스님은 "계가 없으면 정(定)과 혜(慧)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탈의 즐거움도 성취할 근거가 없다"면서 "불법 중에 어떠한 수행(行門)이나 깨달음이라도 계행이 주요 조건의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계사청년회 창립 26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계율관련 특강으로 기록된 이날 혜능 스님의 계율수행법을 요약 정리했다.

계 받은 후 공부가 중요

▶계 받은 후 공부하는 게 중요

재가자의 계율수행은 수계(受戒)로부터 시작된다. 수계에 의해 청정한 계체(戒體)를 얻게 되면 제불보살과 호법선신이 옹호하며, 나아가 도를 향해 더욱 정진하면 계정혜의 세가지 무루학(無漏學)을 성취하게 된다. 계를 받으면 신심이 증가되고 공덕이 자라나며 역량이 배가된다. 인생이 평안해지며 구도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마음 속에 지혜가 자라나며 타인의 존중을 받고 권속이 화합하게 된다. 그리고 계를 받고 난 뒤에 계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계본을 독송하는 것과 계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계를 외우는 이유는 온갖 경우와 반연에 대한 지범개차(持犯開遮,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율을 지키고 범하는 것)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계라도 신중하게 지켜야

▶'소욕지족'이 지계의 원칙

계를 지키는 원칙은 소욕지족(少欲知足)하는 것이다. 욕심이 적으면 고뇌가 적어지고, 만족함을 알면 항상 안락하다. "소욕지족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기 때문에 환난이 없다"(유교경)고 했다. 오욕은 지옥의 다섯가지 뿌리이기 때문이다.

평소 계를 지키는 태도는 '가벼운 계(輕戒)'든 '무거운 계(重戒)'든 똑같이 지켜야 한다. 가벼운 계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지키면 중계는 절대로 범하지 않게 된다. 또한 계를 비방하거나 파계하는 사람을 보고 경만심을 내지 말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大悲憫心)을 내야 한다.

육근이 육경에 집착해선 안돼

▶지계수행시 유의할 점

지계수행에 있어 유의할 점은 우리의 육근(六根: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 육경(六境: 6근의 인식대상인 色聲香味觸法)에 집착해 허망한 분별을 하거나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삿된 것과는 사소한 일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계의 정신을 중도에 맞게 실천하기 위해 지범개차를 배워야 한다.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 계를 지킨다는 상을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된다.

파계한 것 있으면 드러내 참회

▶참회와 가행정진

계를 받은 뒤부터 계법(戒法)의 어느 하나도 범한 적이 없는 것을 본래청정(본정)이라 하며, 수계 후에 훼범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어 참회하는 것을 참회회복청정(참정)이라 한다. 〈열반경〉에 "보살마하살은 과실이 있으면 즉시 스승이나 동학에게 참회하여 덮어두는 것이 없고, 감히 다시 짓지 않는다"고 했다. 수계자는 널리 육도만행을 닦으며 일체의 상(相)을 여의어야 한다. 생각생각에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할 것을 발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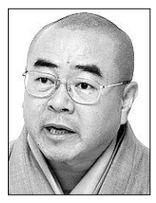
상주불성지심 등 다섯가지 마음 갖기

▶다섯 가지 마음 갖기

보리심, 효순심, 자비심, 공경심, 진심(상주불성지심) 등 다섯가지 마음을 구족하게 되면, 계를 쉽게 범하지 않게 된다. 효순심은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다"는 〈범망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을 어버이로 존중하는 것이다. 진심이란 일체중생이 모두 진여본성이 있고, 그들이 장래에 모두 성불하리라는 믿음이기에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문화연구원 임제어록 특강



한국선문화연구원(원장 성본스님 · 사진)은 12월 23일(화)부터 2004년 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서울 성북동 연구원 법당에서 '임제어록'을 중심으로 선어록 특강을 연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성본스님이 중국 선종사를 배경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선에 대해서도 설법한다. (02)765-6539

지운스님 금강경 특강

불교TV에서 원각경 강의를 했던 지운 스님(전 송강사 강주)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불교TV 무상사 법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30분 금강경을 특강한다. 대승경전은 물론 참선과 자비수관(慈悲手觀) 등 실참 지도와 결부시켜 해설한다. (02)3270-3492

경주 골굴사 선무도 화랑수련회

경주 골굴사는 12월부터 2월까지 1주, 2주, 한달 과정의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를 연다. 수련내용은 안반수의(호흡위주)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다도, 활쏘기) 등이다. (054)744-1689

대흥사 겨울 참선수련회

해남 대흥사는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겨울 참선수련회를 연다. 이번 수련회는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참선 정진을 실시한다. (061)535-5775

맑고향기롭게 선수련회

맑고향기롭게는 12월 27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서울 길상사에서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묵언을 지키는 가운데 조석 예불, 108배, 8시간 동안의 좌선과 포행 등으로 진행된다. (02)741-4696

대구 법왕사 다라니 기도

대구 법왕사는 동짓날(12월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 천수대다라니를 21편 독송하고 108배를 3회 올리는 다라니기도법회를 연다. (053)766-3747

※각 사찰이나 재가단체의 수행프로그램을 홍보하실 분들은 전화 (02-722-4162)나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당신도 침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 5 (주 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프로가 될 수있습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1. 7(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매년과 매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길흉화복의 적중률이 매우 정확한 명리학입니다
▶ 개강 일정 : 2004. 1. 9〔09:00~12:00〕 주1회 -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 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엣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즐가 후 즐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지명스님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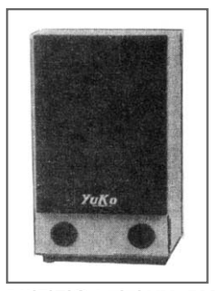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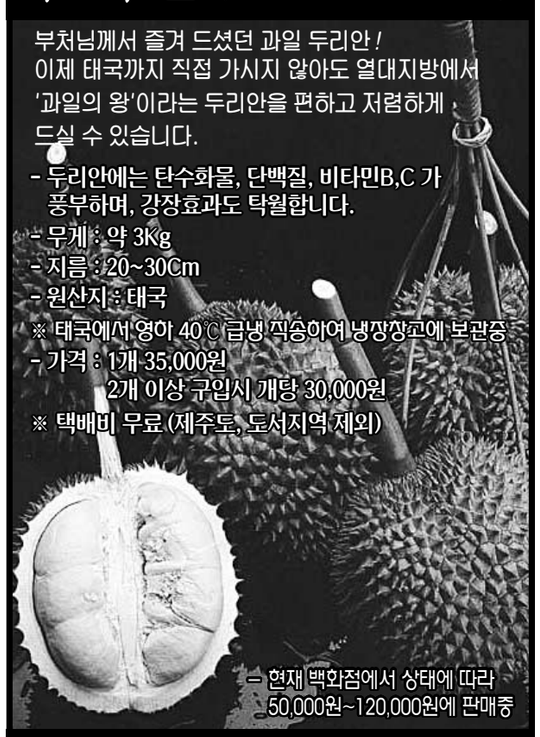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정토회관 공양간에서 공양준비에 여념없는 허경미 보살. 사진=고영배 기자

일과 수행 뭐가 다른가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보살의 영원한 화두. 그러나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선하거나 경읽는 것은 '수행'이고 대사회적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토회에서 만난 두 자원봉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말은 '일과 수행의 통일'이다. 그들에게 있어 깨달음은 곧 생활 속 실천이며, 그 실천이 곧 일상을 이끌어가는 힘. 각자의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정토(淨土)' 만들기에 앞장서는 봉사자들의 보살행을 소개한다.

바라밀현장

정토법당 자원봉사자들



◇정토법당 사시기도를 집전하고 있는 김명렬 법사. 사진=고영배 기자

공양간 삼매 허경미 보살

일주일 800~1000명 식단 준비 "마음 관하면 요리 힘들지 않아"

하루에 50~100명의 밥상을 마련하고 일주일에 800~1,000명 이상의 식단을 기획하는 사람. 10년 동안 두 시간 걸리는 거리를 매일같이 달려와 하루를 봉사로 회향하는 사람. 바로 정토회 공양간 터줏대감 허경미(56) 보살이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민의 노고가 스며있다 했습니다. 그 귀한 양식들로 공양을 지어올리는 일이 바로 제 일이죠. 쌀 한 톨, 물 한 방울에 스민 불법의 이치를 날마다 접할 수 있어 그저 흐뭇할 따름입니다."

대중들의 공양을 준비할 수 있어 오히려 고맙고 기쁘다는 허 씨. 그저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경청해봐도 깊이 스민 진심은 '역시나'다. 물론 봉사 초기에는 일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밀려드는 찬걱정에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고 지우며 '요리 명상'에 빠지기도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일으키고 지우는 것이라는 것을 공양간 수행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온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바람이라는 보살. 그런 그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 나라'와 멀지 않은 듯하다.

12년째 기도집전 변정 법사

성불하겠다는 믿음으로 시작 아픈 몸 이끌며 고성염불 정진

12월 9일 오전 10시 변정 김명렬(73) 법사의 발길이 빨라진다. 법복을 곱게 갖추고 목탁을 조심스레 쥐어든 모습에서는 빈틈없는 수행자의 마음이 엿보인다. 12년 동안 매일같이 집전하던 사시기도지만 부처님전에 서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부처님 가는 길이 좋아서 시작했어. 부처님처럼 되기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중생들도 모두 성불하겠지 하는 믿음, 그 마음으로 계속하는 거지."

그 마음이 병으로 지친 노보살을 어루만졌던 걸까. 그는 수술이 아니곤 떨치기 힘들었던 자궁암도 극복했고, 한계에 이른 혈당량에 허덕이면서도 당뇨의 그늘에서 서서히 멀어질 수 있었다. 소생의 길에 이른 그는, 이후 정토법당의 모든 기도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그의 고성염불은 그 같은 마음을 오롯이 녹여낸 것. 그래서 그는 일흔이 넘는 고령에도 혼을 울리는 듯한 고성염불에 몸과 마음을 싣는다.

스님을 대신해 기도와 재를 집전한다는 것에 법사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런 그의 뒤를 말없이 좇아 일념기도에 빠지는 신도들이 늘고 있다. 그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죽는 그날까지 늘 새로울 것이다. (02)587-8990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

15년째 봉사…회원 천명 전국 봉사 네트워크 구성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봉사에 15년째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경주지역 불교봉사단체인 '카루나의 모임(회장 종수스님)' 회원들이 바로 그들. 지난 88년 10명으로 시작해 현재 천 명이 넘는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카루나의 모임은 창립이래 경주지역 곳곳을 살피며 소년소녀 가장 봉사에 전념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봉사는 이제 경주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삶이야기'라는 봉사단체를 결성,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전국적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은 지역별로 봉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지역의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동시에, 밑반찬 준비 · 빨래 등의 노력봉사와 후원금 보시 및 모금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11월 1일을 '소년소녀 가장의 날'로 지정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054)741-0800

강신재 기자

경주 '카루나의 모임'



◇'소년소녀 가장의 날' 지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카루나의 모임 회원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장 스님 (下)

대중과 불교 연결의 선구적 역할

특히 자장 스님의 부모는 여느 부모와 달리 출가를 말리기는 커녕 딸의 출가를 무척 반가워했으며, 그들 역시 20여년이나 연하인 성운 대사에게 귀의하여 깍듯이 스승으로 모셨다. 또한 외손자까지도 출가했는데, 이에 대해 성운(佛光山 開山宗長) 대사는 "자장 스님의 집안이야말로 진정한 불교 집안"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70세를 넘긴 자장 스님도 옛일을 돌이켜보면 감개무량하다고 한다. "출가 40년 동안 온갖 사연도 많았으나, 이제 대만의 불교도 자리를 잡아 대중들이 출가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누구나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그 당시의 숱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만 비구니계 원로인 자장 스님.

경전 출간 등 불교문화 질 높이기 헌신
미, 서래사 건립후 교세 국제화에 앞장

지금은 대만의 어느 곳이나 불교 용품점이 없는 곳이 없지만, 이러한 것도 수십년전 자장 스님이 타이페이에 처음으로 '불교문화 복무처'를 설립한 사실과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 스님은 당시의 여러 가지 불편한 교통과 세관의 장애를 극복하고 홍콩의 '홍콩 불경유통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경을 수입해 들여왔고 나중에는 경전을 출간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활동은 대중과 불교를 연결하는 선구적인 역할이었으며, 이 밖에도 중국대륙으로부터 염주, 신발 등 불교용품을 수입하여 대만의 불교문화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만 최초의 정장본인 <석가모니불전>을 출간, 세계 각지에 유통시키는 등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또한 자장 스님은 사원건축에 문외한이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전문가에 버금가는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다. 대만은 물론 세계 각지의 불광산 사원 건설을 주도하여 대지 매입에서부터 실내 장식까지 일일이 보살폈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대만 각지의 불광산 사원은 물론이고 일본 동경별원과 태국, 홍콩, 필리핀 등지에까지 미쳤으며 마침내 미국 서래사(西來寺) 건립으로까지 이어졌다. 1978년 단지 2만 달러만을 지니고 생면부지의 미국에 가서 무려 10년만에 서구 최대의 불교사원인 서래사를 창건하기까지, 스님의 고군분투는 눈물겨운 정진의 연속이었다.

자장 스님의 원력으로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 인근도시 하시엔다 하이츠에 서래사가 세워진 것은 불광산이 국제적으로 교세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부지 15에이커에 평면면적만 102,432평방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절인 서래사는 대만 불광산의 일선 사찰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신도조직인 국제불광회(180개 지부 100만여명)의 국제단위조직이다.

미국에 서래사가 건립된 이후, 불광산은 미주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호주, 인도 등 세계 각지에 대규모의 별원을 건립하여 대승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자장 스님은 스승인 성운 대사의 원력으로 돌리지만, 1년의 절반을 가방 하나만 들고 동분서주하며 건설을 독려한 자장 스님의 공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불광산이 대만 불교를 반석으로 올려놓은 데에는 작은 체구로 거대한 발원을 성취한 자장 스님의 쉼없는 정진이 숨어있었다. 가장 인간적인 불교(人間佛敎, Humanistic Buddhism)를 추구하며 대만의 전법제일 비구니로 명성이 높은 자장 스님의 포교관은 이러하다.

"'인간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순수한 종교활동 외에도 교육, 문화, 자선사업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음할 따름 입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 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선할 때마다 밀려들던 알 수 없는 허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정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를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의 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0사 00 합장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영성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기법과 빙의처리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수행일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험,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적체계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편일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윤회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통로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최 면 이 론 :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암시, 시술패턴,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연령퇴행 실기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삭제 및 통찰,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전생퇴행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미래진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영가천도 실기 : 빙의된 영가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증세치유, 영가치유, 영가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자문함.
7.치유력향상기법 : 영성감응과 최면치유암시에 의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大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정규개강] 2003년 12월 19일(금요일) 12:30
[교육기간] 2003년 12월 19, 26일, 1월 2, 9일
매주 금요일, 총 4 회
오후 12:30~오후 8:00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입금 후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49>



안주신의 법문

생사고통 여의는 법문으로 중생양육
자비행 실천하는 곳마다 보리도량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수미산 티끌 수의 겁을 지나서 장엄겁이 있었는데, 세계의 이름은 월당(月幢)이요, 부처님 명호는 묘안(妙眼)이니, 그 부처님께 이 법문을 얻었다. 나는 이 법문에 근본을 두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닦고 익히고 증장케 하였으며, 여러 부처님을 항상 뵈옵고 떠나지 않았다. 이 법문을 처음 얻고부터 현겁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에 불가설 세계의 티끌 수 여래, 응공, 정등각을 만나서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고 공양하였다. 또 저 부처님들이 보리좌에 나아가 큰 신통을 나타내심을 보았으며, 그 부처님들이 가지신 모든 공덕과 선근을 보았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깨뜨릴 수 없는 지혜의 광' 법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이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능히 지니며, 부처님의 마음을 내며 부처님의 법을 구족하고 부처님의 일을 짓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앞의 대천신(大天神)의 법문이 하늘의 의미와 공덕과 관련된 것이라면, 안주신의 법문은 대지(大地)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의 천신의 법문이 지혜의 원만함에 대한 것이라면, 여기에서의 지신(地神)의 법문은 자비의 원만함에 대해서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땅은 만물을 그 밑에서 지탱하면서 중생을 언제나 양육해주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자비로써 모든 것의 아래에 처하면서 여러가지 법문을 설하여 중생을 양육함으로써 모두 생사의 고통을 여의게 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신(地神)으로 나타낸 것이다.

선지식을 구하여 계속 남쪽으로 가던 선재동자가 석존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마가다 국의 보리수 아래로 찾아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둠을 버리고 광명으로 나아가는 도(道)가 도달해야 할 곳은 항상 근본정각의 보리도량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대지(大地)가 중생들의 일반적인 심지(心地)라고 한다면, 마음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리도량으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마음에 번뇌가 정화되어 깨달음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보리도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지신(地神)의 이름이 안주(安住)인 것은 언제나 깨달음의 장소에 안주하여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선근을 보리(깨달음)에로 회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주신의 '보살의 깨뜨릴 수 없는 지혜의 광'의 법문의 내용도 결국은 항상 광명을 발하는 근본장소(本處)로 돌아가 깨달음의 경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보살의 삶에 대해서 설한 것이다. 안주신은 연등불 때부터 항상 보살을 따르면서 공경하고 수호하여 여러가지 보살의 법을 배워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취시켜 왔다. 안주신은 항상 이 법문에 근본을 두고 끊임없이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부처님을 항상 뵈옵고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법문은 마음의 대지(大地)에 결코 다할 수 없는 무량한 지혜를 끊임없이 일으켜 중생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한다면 모든 곳이 보리도량이요, 부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㉓



견성성불(見性成佛)-10

'견성하면 부처가 된다(見性成佛)'고 하는, 아니, 더 철저하게 말하자면 '견성하면 그대로 부처(見性卽佛)'라고 하는 선(禪)의 명제는 견성만으로는 아직 부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부인한다. 견성과 성불을 동의어로 쓰지 않는 예가 선종 집안에도 있다. 특히 일본 불교에서 그런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견성을 일본어 발음으로는 겐쇼라고 하고 깨달음을 '사토리(悟り)'라고 하는데, '겐쇼'했다거나 '사토리'했다는 말은 해도 차마 그것을 성불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겐쇼를 몇 번인가 거듭하는 이야기, 그 때 어떤 경계를 체험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바로 성불인지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기는 한국 불교에서도 개념 정리가 분명치는 않다. 예를 들자면, 흔히 말하는 '한 소식'이라는 것은 과연 견성을 가리키는지, 특히 성불로서의 견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불하는 깨달음까지는 아닌 그 어떤 신비체험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또한 고승대덕의 행장에는 대개 언제 어디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오도송(悟道頌)을 읊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견성성불을 가리키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스님이 그 때 부처님이 되었다는 뜻이냐?'고 감히 묻지를 못하는 분위기이다. 선종에서는 워낙 말 자체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선의 종지는 헛소리란 말인가?

'그렇다'라고 대답해도 마찬가지로 슬한 망상을 일으킬 것이다. "아 글쎄 그이가 말 그대로 부처님이라는군! 가서 경배하세, 경배하세! 부처님이라면 병도 마음대로 고쳐주시겠네? 신통력이 대단하겠지? 그런데 웬 부처님이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생겼어? 부처님이라면 세상 모든 문제 해결할 속시원한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어?"

그 모든 의문이 망상에서 비롯되고, 그 자체도 망상이요 또한 나아가 새로운 망상을 낳는다. 부처는 이를테면 일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어떤 모습의 존재이리라고 하는 기대,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그 망상의 핵심이다. 그것이 전회의 글에서 언급한 최후의 망상이다. 그 망상까지 떨쳐버려야 정말 망상을 다 내려놓은 셈이 된다. 나와 부처 사이에 조금의 간격이라도 남겨두면 '나=부처'임을 확인할 수 없고, 그저 '나≠부처'라거나 기껏해야 '나≒부처'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스스로 중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망상이 망상을 낳는다

무기(無記)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를테면 선종의 무기(無記)라고 할 만하다.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숱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제기될 것이다. '한 소식'이라는 것이 '견성성불'의 견성이 아니라면 그건 또 어떤 체험이요 경지라는 말인가? 오도송을 읊게 한 그 체험이 견성이 아니라면 그건 또 어떤 체험인가? 견성은 그 뒤에 더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것인가? 그런데 왜 견성송(見性頌)이라는 것은 없나? 결국 현생성불(現生成佛)은 석가모니 이외에는 없는 일인가? 그러면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너 자신이 깨달아 부처가 되는 일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5>



평범한 것과 일반적인 것

"울고 웃는 평범함 속에 도가 있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누는 삶 살아야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은 흙에서 온 음식을 먹고 사는데 간혹 흙 자체를 먹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동물이 흙을 먹는 것은 크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으나 사람의 경우에는 기아 때문에 먹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식증(geophagy)이라 하여 일종의 소화나 정신 장애로 인한 질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영장류 등의 여러 동물들과 더불어 인간이 의도적으로 흙을 먹는 것은 생각 외로 널리 퍼져있으며, 주위에서도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종종 이런 경향이 관찰된다. 동남아,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음식의 일부나 소화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 남부의 부족 등의 많은 집단에서 임신부가 직접 흙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 이 때 주로 선호되는 유기물이 많은 고령토 등은 임신 초기에는 칼슘 등의 공급원이 되고, 흙을 먹은 모체 내에 생긴 많은 미생물에 대한 항체는 태반과 초유를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라 여기지만 이러한 종류의 질병은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감염증과는 전혀 다르며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전통적인 음식만 먹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곧 병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종종 듣는 '평상심이 곧 도(平常心是道)'라는 말이 생각난다. 간혹 조용하고 안정된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지만, 평상심이란 그야말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기에 이 말은 울고 웃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평소 마음 그대로가 곧 도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일상적인 삶에 만족할 줄 알고 (知足)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 있다. 즐겁고 기쁘거나, 울고 웃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은 평범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이식증 외에 요즘 간혹 이야기 되는 동성애를 보자. 살인자는 또 어떠한가? 결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살인,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다. 또 대통령이란 위치도 비록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집단의 인솔자로서 사회적 동물인 인류 집단이 시작된 이래 계속 있어왔던 자리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평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흙을 먹는 이식증이나 동성애나 살인, 혹은 대통령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평범한 것이요, 더 나아가 죽음이란 것도 지극히 평범한 범사인 것이며, 여기에서 세상의 선악과 시비를 벗어나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평등심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고요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삶 속에서 생기는 모든 좋고 나쁜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족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삶을 가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불제자라면 누구나 가야할 결코 관념적이 아닌 절절한 체험의 길인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평상심이 곧 도라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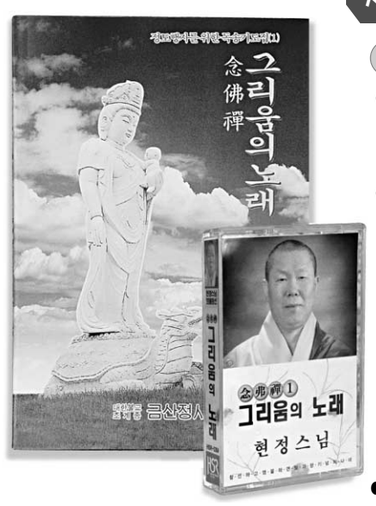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 산 정 사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9화)

"세속에 살아도 법을 얻을수 있느니라"

〈출전 : 벌역잡아함경 제15:304경 2-477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주검을 지킨 중학생

'사회'란 이름의 부모

숨진 어머니 주검 옆에서 6개월 동안 살아온 어느 중학생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본다고 6개월 전 조퇴한 이후로 학교에 전혀 나오지 않던 이 학생은, 어머니를 지키겠다며 외부와 단절한 채 어머니 주검 곁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늘 그렇듯,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힘들게 사는 이웃에 대한 동정과 주변의 무관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만일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시거든 부모를 잘 섬길지니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대집경〉의 말씀처럼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이다. 심지어 〈십지관경〉에서는 "어머니 계실 때를 가장 부(富)한 것이라 하고 안 계신 때를 가장 가난한 것이라 한다. 어머니 계실 때는 한낮이며 안 계실 때는 저녁이다. 또 어머니 계실 때는 모든 것이 원만하나 안 계실 때는 공허하다"고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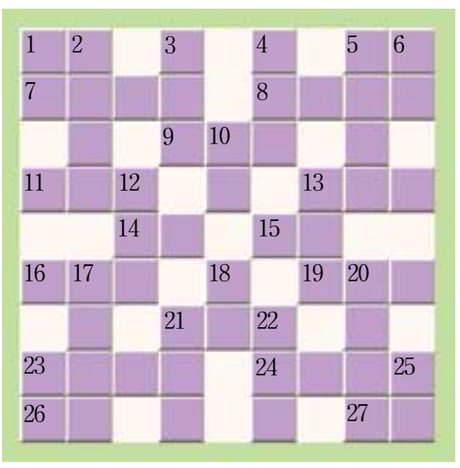
돌봐주는 주변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5년 전에 아버지도 잃은 이 학생이 "어머니의 추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었다"고 하는 말 속에서 선재는 그가 감내하고 있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는 생각이 든다.

〈아함경〉에서는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식(衣食)을 제공하는 것은 하품(下品)의 효양(孝養)이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중품(中品)의 효양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향함을 상품(上品)의 효양이라 한다"고 한다. 부모님의 공덕을 부처님께 회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선재는 생각한다. 누구나 진정한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모두가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6개월 만에 학생 집을 찾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일부의 비난이 있었지만 그 세월 동안의 선생님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마음이 따뜻해져야 할 연말연시. 이제 우리가 나서서 그의 부모가 되어 줄 차례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불교의 화장의식 5. 소금을 만드는 밭 7.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심심풀이로 하는 일거리 8. 의사가 통하지 않음 9. 죽은 이의 영혼을 인도하는 보살 11. 물건을 잃을 운수 13. 부동산 매매 등을 중개하는 곳 14. 시끄러운 소리 15. 덕성을 갖춘 장수 16. 참회한 내용을 적은 글 19. 큰물이 져서 이루는 난리 21.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23. 보통명사의 다른 말 24. 오래 살아서 죽지 아니함 26. 남을 도와 줌 27. 낙심.

〈451호 「상식퍼즐」 정답〉



세로 1. 많음과 적음 2. 한 두 번이 아님 3. 남을 대신하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 4.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치료해 주는 의사 중의 큰 의사 5. 염불한 공덕 6. 예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10. 몸을 움직여 일을 함 12. 떠도는 소문을 더듬어 찾음 13. 불상의 복장(腹藏)에 넣는 물건 17. 자기를 돌아보아 바로 심성을 비춰 보는 것 18. 파는 물건 혹은 팔기 위해 내놓은 물건 20. 공격하기 어려워 함락시키지 못함 21. 어떤 일을 조사하는 사람 22.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들거나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 23. 한 부분 25. 죽음.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몰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山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육법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판 및 대리점 모집

새로나온 책




■<조주선사 선문답 상, 하>(석우 스님 엮음, 관음손, 각권 1만1천원)= '무(無)자 화두' '뜰 앞에 잣나무', '판치생모' 등의 화두로 선객들의 수행을 도왔던 조주 선사의 선어록집. 이 책은 그간 구어체인 까닭에 생략된 언어가 많고, 직역을 하면 말뜻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의 문제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조주록>을 소개하는 책으로, 조주 선사의 문답을 통해 불교의 깨달음을 들려준다.



■<발우공양>(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엮음, 정토출판, 7천원)= 정토회 산하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발우공양>을 펴냈다. '밥과 깨달음의 길'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에서는 발우공양을 할 때 외우는 <소심경> 속에 담긴 발우공양의 정신과 의의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우공양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등불을 밝히고>(영운 스님 시집, 글발, 7천원)= "비가 오는가/ 작은 창 열면/ 대 숲에 바람 머무는 소리/ 달 빛 떨어지는 소리/ 하이얀 적막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소리' 전문) 영운 스님의 두 번째 시집 <등불을 밝히고>가 나왔다. 이 시집에는 산사에서의 생활과 수행일화 외에도, 스님을 스치고 지나간 많은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바람이 우는 날'과 '호박잎', '지장보살의 꿈' 등 70여 편의 시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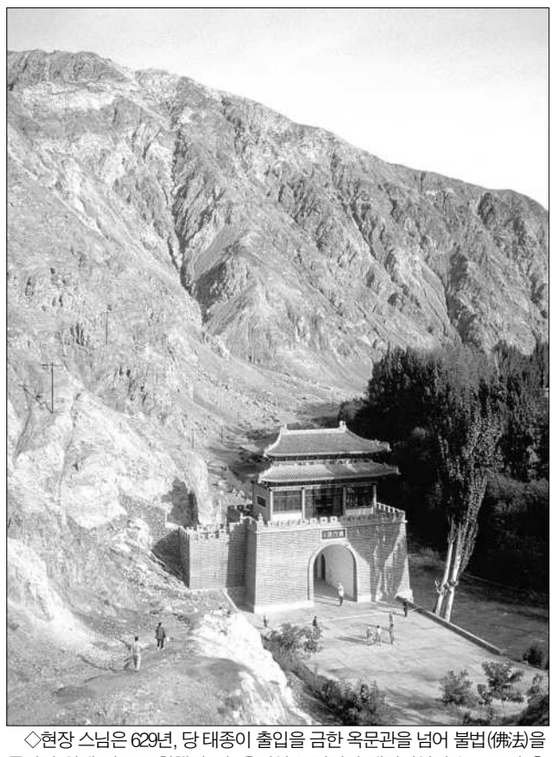


■<불교만화이야기 8>(불교만화연구소 펴냄, 3천원)= 격월간 불교만화전문지 <불교만화이야기> 여덟 번째 권. 이번 호에서는 아름다운 월명 왕비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생의 약속'과 해동 동자와 목어로봇 버비가 함께하는 불교교리 '육언과 차수', 나한의 뜻과 의미를 소개하는 '오백나한 이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명당의 기운 패철사용법>(노영준 지음, 경덕출판사, 2만원)= 한국자연지리협회 노영준 회장이 <명당의 기운 패철사용법>을 펴냈다. 책에서는 자연의 순환 궤도를 살피는 패철(佩鐵: 방위를 보는 도구)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를 통해 방위와 혈(穴) 등을 살펴 어떤 터가 왜 좋고 나쁜 지를 풍수 경전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다.

'현장의 구도여정' 답사 체험기



◇현장 스님은 629년, 당 태종이 출입을 금한 옥문관을 넘어 불법(佛法)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향했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대당서역기>는 1400년 후 그 길을 좇은 한 중년 남성의 기록이다.

그때, 이 중년 남성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현장 스님(602~664)이었다. 7세기 당나라 시절, 촉망받는 승려였던 현장 스님은, 잘못 번역되고 왜곡된 경전 때문에 교리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잦은데 회의를 느끼고, 당나라의 불법(佛法)을 바로세우기 위해 직접 인도로 건너간다.

현장 스님은 당나라 수도 장안(지금의 서안)에서 8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남부까지 말과 낙타, 코끼리를 타고 갔으며, 때로는 걸어서 갔다. 길고 긴 서역으로의 여행은 순탄할 수 없었다. 당나라 황제 태종은 옥문관 너머로의 여행을 금했기에, 현장 스님은 한때 나라를 탈출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고, 이글거리는 태양과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뎌야 했으며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17년간 110여 개 나라를 거치며 인도에 다녀온 현장 스님은 임종 전까지 1,340여 권의 경전을 번역해, 중국에서 불교가 자리 잡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현장 스님의 전설적인 순례를 좇아간 주인공은 바로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출판 평론기자 리처드 번스타인이다. 삶에 지쳐있던 그는 1999년 55세의 나이로 여행길에 올랐다. <대당서역기> 루트를 따라 중국 동부의 서안을 출발해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에 도착한 뒤,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오는 긴 여행을 감행했다. 물론, 현장 스님이 탔던 낙타나 말 대신 기차와 자동차를 이용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대당서역기>에서 지은이는 진리를 찾아 떠난 한 고승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용기와 열정, 그리고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자다운 꼼꼼한 메모와 치밀한 관찰, 사실적인 묘사로 여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해당 지역에서의 일정과 경험들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어 여행의 고단함과 그 속에서 발견한 기쁨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친 그는 직장으로, 쳇바퀴 도는 일상생활로, 시간을 소모하는 책임과 의무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됐다. 이는 곧 '이 세상의 현실에 맞서는 가운데 의미와 지혜가 존재한다는 실존주의적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법을 찾아 길을 떠난 현장 스님과 삶의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길을 떠난 지은이가 길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진정한 '삶의 여행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뉴욕타임스 기자의 대당서역기'
리처드 번스타인 지음 / 정동현 옮김
꿈꾸는 돌 / 1만4천원

낙타 · 말 대신 기차 · 자동차로 비단길 여행
참 삶의 의미 터득 "이젠 기꺼이 집으로"

경전 내용 일목요연하게 정리

낯선 길을 가다 '내가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지도를 펼쳐보게 된다.

경전을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다. 80권에 달하는 방대한 <화엄경>을 읽다보면, '이 구절이 <화엄경> 전체에서 어느 부분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은 "<화엄경>은 원문만 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마치 망망대해에서 좁쌀을 찾는 것 같고 첩첩산중에서 길을 찾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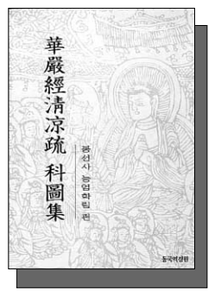
때문에 <화엄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장 이해력을 높여야 하고, 좋은 선생과 좋은 자료를 구해야 하는데, 그 좋은 자료 중의 하나가 '과도(科圖)'라는 것이다. 경전의 내용을 문단으로 정리한 과목을 도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과도는, 경전이나 논서의 줄거리를 간추린 약도로 전체 내용을 개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로부터 경전이나 논서의 연찬(硏鑽)에 과도를 이용하여 학습을 도왔다.

봉선사 능엄학림 10여명의 스님들이 3년간의 노력 끝에 펴낸 <화엄경청량소 과도집>은 <화엄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다.

능엄학림은 <화엄경청량소 과도집>을 봉선사 홈페이지(www.bongsunsa.net) 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화엄경 청량소 과도집'
봉선사 능엄학림 편
동국역경원 / 2만원



'김용택의 한시산책 1, 2'
김용택 엮음
화니북스 / 각 6천원

한시 100편 구절 해석 · 감상 담아

"약초를 캐다가 문득 길을 잃었네/ 봉우리마다 단풍 곱게 물들었는데/ 산에 사는 스님이 물 길어 돌아간 뒤/ 숲 끝에 피어오르는 차 달이는 연기"(이이 '산 속에서' 전문)

율곡 이이의 '산 속에서'라는 한시다. 이 시에 대해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은 이렇게 해설을 붙였다.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는데 가지마다 단풍이 진풍경입니다. 길을 찾아 헤매다가 스님 만나면 깊은 산 속 맑을 물로 달인 맛있는 차를 마시겠지요. 약초 캐고 단풍 보고 차 마시고…. 너무도 바삐 사는 지금의 도시인들이여, 이렇듯 잠시 그대가 달려가고 있는 길을 잃고 싶지 않습니까?"

<김용택의 한시산책>은 김용택 시인이 '마음대로' 해석한 한시 모음집이다. 시인은 머리말에서 "여느 현대시 못지않게 빼어난 한시의 멋을 혼자 음미하기 너무 아까워 책으로 묶었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2권으로 묶인 책에는 서산 대사의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가는 자여'와 지엄 스님의 '도인의 삶이'를 비롯한 100여 편의 한시가 실려 있다. 전문적인 주석이나 설명 대신, 한시의 구절 해석과 시인의 개인적인 감상을 담았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2	덕숭산 법향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3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전 스님	조계종출판사
4	산문	현진 스님	열 림 원
5	밥상에 도가 있다	정 세 채	모 색
6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 림
7	내 사주 내가 푼다	임 태 근	여 시 아 문
8	그 산에 스님이 있었네	효림 스님	바 보 새
9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 은 인 연
10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우리 산야초차

우리 전통의 산야초차를 수백년만에 복원, 현대화하기까지의 기록 –

신비로운 치유능력 가진 산야초茶!!

교보,yes24, 영풍,인터파크 화제의 신간

내가 회색빛 감옥에 갇혀 「야생초 편지」를 썼다면 전문희씨는 산이라는 감옥(?)에 갇혀 이 글을 썼다!!

자연중독자 전문희씨. 내가 자연중독자 전문희씨를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보내온 한 꾸러미의 산야초차를 통해서였다. 나의 책 「야생초 편지」를 읽고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기쁨에 보냈다는 그 차를 이것을 만든 이가 보통사람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녀가 정성들여 만든 백초차를 우려마시면서 이것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을 통째로 내 몸에 모시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 전문희씨가 발로 뛰어 만들어낸 「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는 산야초차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산야초차의 무궁무진함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전문희씨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동지의식을 느꼈다.

–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저자 사인회를 엽니다.
장소 - 교보문고(광화문점)/시간 - 11월 29일 오후 3시
교보문고(강 남 점)/시간 - 12월 6일 오후 4시

자연중독자 전문희

패션모델, 통키타가수, 가구디자이너에서 산야초 전문가로 변신한 인생역정!
자연중독자 전문희씨가 발로 뛰어 만들어낸 지리산 산야초차에 관한 이 귀중한 기록!
지리산을 통째로 모시는 책, 아름다운 지리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전 메스컴의 격찬!!

▶ 백초차 / 연잎차....지리산 산야초차의 세계 — 조선일보
▶ 들풀로 우린 茶, 영혼을 맑게 한다 — 중앙일보
▶ 산과 들에 나는 풀과 꽃 모두 훌륭한 차의 재료 — 동아일보
▶ 낙향한 前 패션모델의 산야초 사랑 — 한국일보
▶ 산야초 茶 사랑에 푹빠져 평생 지리산에서 살겠다는 여인 — 경향신문
▶ 쑥 냉이 토끼풀... 이땅의 풀, 꽃 모두 훌륭한 차가되죠 — 한겨레신문
▶ 신비로운 치유능력 가진 산야초 — 국민일보
▶ 지리산 야생차의 그윽한 향기 — 세계일보
▶ 지리산을 통째로 모시는 책 — 오마이뉴스

전문희 글 | 김문호 사진 | 304쪽 | 9,500원

전화 : 02)2279-4788 / 팩스 : 02)2285-6798 화남

순수·열린 마음은 불의와 타락 초월

'참사람 부족의 메시지'

말로 모건 지음 / 도솔 옮김
정신세계사 / 1만원



호주 원주민들의 영적세계관 소설 줄거리속에 녹아들어

호주 원주민 '참사람부족'이 문명인들에게 전한 〈무탄트 메시지〉(정신세계사)가 전세계 인류에게 던진 화두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 메시지는 '자연과 함께하는 진정한 삶으로 돌아가라'



이다. 이 책 〈참사람부족의 메시지〉는 한 용기있는 미국 백인 여의사 말로 모건이 호주 참사람부족과 함께한 그 감동의 여행을 기억하는 독자들에게, 애타게 기다리던 두 번째 메시지다.

말로 모건은 이 소설에서 다시 한번 참사람부족(사진 왼쪽)의 영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영원으로부터 보낸 메시지는, 영원히 자기 자신이 되는 순수함과 열린 마음이 세상의 불의와 타락을 초월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치와 단순한 지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사람부족의 메시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백인에 의해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던 호주 원주민 쌍둥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던 끝에 다시 만나게 되는 여정의 이야기다. 쌍둥이 중 남자아이 제프는 미국 목사 가정에 입양되어 뉴잉글랜드에서 성장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모르는 삶을 산다. 제프의 쌍둥이 누이는 호주의 고아원에서 성장한 후 어른이 되어 하숙집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열망을 갖고서, 도시의 삶을 벗어나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북쪽 사막 지역으로 떠난다. 힘든 여행 끝에 원주민들을 만난 그녀는 그들과 함께 사막을 방랑하는 여행을 시작한다. 제프는 미국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집을 떠나 범죄와 알콜에 빠져들면서 소외된 삶을 살게 된다. 알콜 중독으로 점점 파멸의 길을 걷던 제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수십 년 동안 호주의 오지에서 원주민들의 삶에 대해 배운 뒤, 베아트리체는 사막을 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떠나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이 된다. 원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정치적인 행동주의자가 되어 무탄트(돌연변이라는 뜻으로 원주민이 문명인을 가리키는 말) 세계로 돌아간 것이다. 그녀는 외국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원주민들을 호주로 돌려보내고, 어린 시절에 자신의 문화를 빼앗긴 원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앞장선다. 이런 활동으로 쌍둥이 오누이는 다시 만나지만 자신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한다.

베아트리체는 미국에 있는 제프에게 원주민들의 철학과 조화로운 삶의 원칙을 담은 '영원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내면서 호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한다. 거기에는 "영원히 자기자신이 되는 순수함과 열린 마음이 세상의 불의와 타락을 초월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치를 존중하며 단순한 지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가족·학교·사회로부터

홀로서라



'사랑·자유 그리고…'

오쇼 지음 / 손민규 옮김
청아출판사 / 1만원

이 책의 저자 오쇼 라즈니쉬는 1990년대 서구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명상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그는 '20세기의 창조적 인간 100인' 중 한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인도를 바꾼 열 명의 사람들 중 하나'로 불리며 열렬한 추종과 극단적인 거부 등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구루' 등의 비난쉬인 호칭으로 불리기엔 그가 남긴 말이 너무도 가슴에 와 닿는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너를 여전히 소유하고자 한다. 너는 자유를 되찾고 싶지만, 여전히 나를 소유하길 원한다." 이 말에는 오쇼가 말하는 핵심사상이 담겨 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마음보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대를 구속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사랑은 원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오쇼는 또 이 책에서 "가족, 학교, 사회에서도 홀로 서라"고 강조한다. 최근 한 여자대학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0퍼센트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으며, 19퍼센트는 결혼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쇼는 오히려 박수를 보낸다.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가족이란 굴레는 서로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 아래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며, 부모는 자식을 부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또 어떤가? 획일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을 똑같은 생산품으로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곳일 뿐이라고 오쇼는 비난한다. 또 사회는 어떠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치관은 개인의 개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누릴 기회를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오쇼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혼과 낙태가 많은 것이 사회의 탓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쇼는 이 책을 통해 제안한다. "부모와 사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더 이상 선택하지 말아라. 단지 홀로 있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회 대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라." 모두가 부모이고, 모두가 자식인 공동체야말로 소유와 억압의 관계없이 자유로울 수 있고,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결국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은 홀로있음과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대한민국 사(史)'

한홍구 지음
한겨레출판사 / 1만1천원

새 시각서 탐구한 한국 근현대사

일제 청산 불발 등 뼈아픈 과거역사 지적

매일 아침 연구실에 도착하면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스팸 메일을 지우는 것이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우면서도 내가 중요한 메일을 스팸 메일인줄 착각 하고 지우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한다. 어느 날 인터넷 서점에서 보낸 스팸 메일을 우연히 열어보니, 한홍구씨의 〈대한민국 史〉가 소개돼 있었다. 그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책을 주문하고 다음날 책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평소 한홍구씨의 글을 접할 때마다 그의 글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선 배울 수 없었던 우리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기준으로 역사를 봐야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내용이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책을 읽고난 후 나의 머릿속에는 우리 국민이 왜 분단이래 정통성 없이 이 사회를 지배해온 수구세력에게 이용 되었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 이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체계를 잡아주고, 막연히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역사라고 불리는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품는 자세를 가지게 해준다.

시간이 항상 우리의 준비보다 빨리 달려가는 듯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근현대사는 항상 우리의 준비보다 앞서 갔고, 조선 후기 이래의 자생적인 근대화는 피지도 못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짓밟혔다. 일제치하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벌였지만,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해버려 우리는 독립이 되었고, 독립 후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과 북이 갈렸다. 우리는 또한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하고, 아무 대가없이 제국주의적 근대에 편입하게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떨어진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등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친 조직들이 근대적 이익집단을 대신하여 기승을 부린다고 보았다.

또한 대한민국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건설되었고, 청산은커녕 근대화를 위해서 훈련되어져 있는 친일파들을 등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 시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다음 시대로 바쁘게 이동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한홍구씨는 '단 한번도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이라는 소타이틀로 책 1권 처음에 소개하고 있다.

〈한겨레21〉에 연재됐던 것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두 해가 지난 지금, 다시 읽는 것이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수구와 보수의 차이를 '똥과 된장' 만큼이나 다르다며 쓴 '참된 보수를 아십니까?'와 연좌제 문제 그리고 독립운동가 집안의 가족사 등은 또 다른 생존방식인 '편 가르기'라는 표현으로 날카롭게 지적해내고 있다.

'빨갱이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소 타이틀의 글에서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논했는데,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좀더 인간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의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아무 언급이 없이 일방적으로 북에 대한 비전향 장기수와 전향 장기수만을 기술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같이 다뤘다면, 글쓴이가 강력히 주장하는 비전향장기수의 인권문제가 좀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한다.

우리의 현대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아직까지도 일제청산과 많은 부정부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손해라는 생각이 우리사회에 팽배해져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현대사가 잘못되었으니 그냥 둥근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우리가 우리의 현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무지에서 벗어날 때 좀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쓰인 것 같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 역사의 교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듯싶다.

■장지헌 /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 교수

총 2권으로 돼 있는 〈대한민국 史〉는 2001년 1월부터 〈한겨레21〉에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란 제목 아래 인기리에 연재한 것을 모은 글이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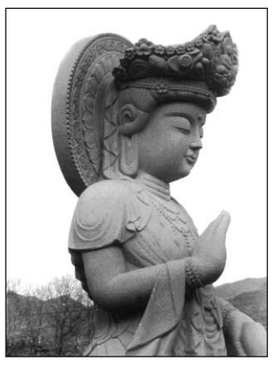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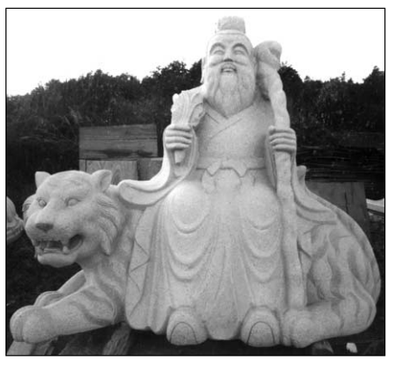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불교의 상업 윤리

현대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불교도들의 고민 중의 하나가 자본의 확충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불교적인가에 대한 것이라 말하고 싶다. 이것은 아마도 필자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과 절제, 내지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등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존재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가치의 문제로 전개되면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상식과 보편적인 윤리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익을 극대화하여 부자가 되는 첩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업에 종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원초적인 것이며, 오랜 역사를 지속해 왔다. 부자가 되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도 가끔은 경제적인 궁핍이 불편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는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문제는 사람에 따라 선택한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욕망의 불꽃은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에는 인간성이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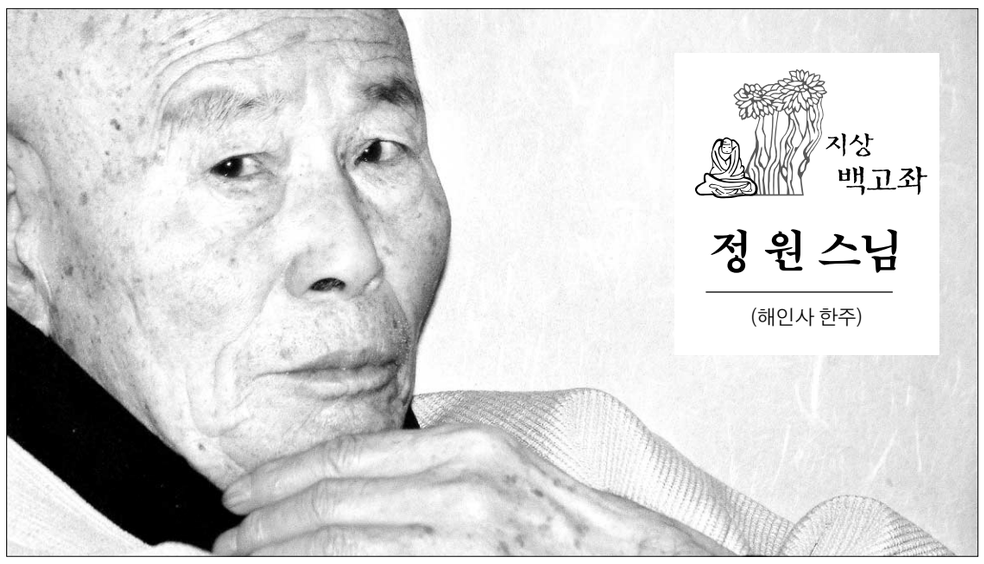
부처님은 일정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재산의 획득도 엄격한 윤리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괴로움이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대시키고 축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법을 위반하면서 사는 것과 법에 의해서 죽는 것 가운데 택일을 하라면 법에 의해 죽는 것이 법을 위반하면서 사는 것 보다 낫다"(테라가타)는 굳은 신념이 각자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용어는 다의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에 의한 가르침, 성자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세속적이기보다는 초탈적, 종교적, 도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상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정한 화폐, 부정한 저울, 부정한 수단을 배척"하며, "악인은 시장에서 올바른 상행위를 망친다"(자타카)고 말한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남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동물적인 습성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상업에 응용할 때 부처님께서는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령 번개가 머리 위에 떨어질지라도 재보를 위해,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 알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마치 샛별이 사계절 내내 보이듯이 자기가 가야할 길을 버리고 남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진실을 버리고 빈말하는 일이 없다면 너도 역시 성불하는 시절이 올 것이다"(자타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뢰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결국 우리들의 정직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직의 중요성은 매매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대차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빌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교에서는 정당한 이자놀이는 허용이 되었다(중아함경). 그것이 고리대금이라면 물론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장에 의하면 채무가 있는데도 변제하지 않은 사람은 출가를 허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이란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따라서 "총명한 사람은 적은 자본으로도 능히 입신할 수 있다. 한 점의 불을 불어서 피워 올리듯이"(자타카)라 말한다.

매매는 벌이 꽃에서 꿀을 따듯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지닐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원가에 인건비, 물류비 등을 합산한 정당한 가격을 정하고 팔아야 하는 것이지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불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혹여 매매과정에서 물건 값을 잘못 말했어도 사는 사람이 처음 말한 것을 고집하면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더하여 상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세상을 읽을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하며, 교묘하게 활동해야 하고, 기초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과 구매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지상 백고좌

정 원 스님

(해인사 한주)

◇'가야산 호랑이' 라고 불리는 정원 스님. 팔순이지만 눈빛이 형형하다.

일상생활 잘 하는 것도 참선

승가 자급자족 힘써야

"신도들에게만 의지하면 부처님 팔아먹는 행위"

수좌 중에는 '어름한 사람'이 수행을 잘 합니다. 선방에서 사회 경험이 많고 지나치게 많이 알면 공부가 안 됩니다. 일자무식한 사람이 공부를 잘 합니다. 아무 것도 몰라야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생각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은 넘어야 생각이 차차 없어져 제대로 수행이 됩니다. 그야말로 참선 공부로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오만가지 잡생각이 치성할 텐데 1~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까? 10년은 넘게 선방에서 앉아 있어야 싹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야 참선 공부가 잘 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오히려 모르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알면 수행은 안 됩니다. 이것이 마장이 돼서 참선의 길로 들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즉 어름한 사람이 수행을 잘 하는 겁니다.

물론 재가불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일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가불자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신 수행자들도 어려운 것이 수행인데 말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즉 불교는 마음의 불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리가 잘 돼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불교의 핵심인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데, 삭발하고 불교 정신으로 선방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면 마음은 참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수행자의 자세와 함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승가의 자급자족입니다. 지금 승가는 자급자족돼야 합니다. 신도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불사한다고 권선문 같은 것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한국불교에서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도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도들에게만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을 팔아먹는 일 밖에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급자족이 돼야 합니다.



◇정원 스님은 화를 다스리는 데는 다도(茶道) 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출가자의 자급자족은 '거지처럼 생활하는 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지답게 살면서 수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거지 같이 사는 걸식 정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비구는 원래 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습니까? 어쨌든 거지 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걸인 정신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부도 잘 되고 수행자답게 살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가불자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수행법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재가불자들이 자기 눈에 맞는 수행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또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결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장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주)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불교의식 전문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대승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전문 의식반을 운영 하오니 재가 신도나 스님들의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모 집 반
가) 초급(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목탁, 요령, 경쇠, 태징, 법고, 다루는법 지도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청, 축원법, 관음정근법.
나) 중급(3개월)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엄시식, 대비식, 점안의식, 전시식, 방생의식, 산신기도법 등등 종합적인 의식법.
다) 작법반(6개월)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바라(바라춤), 다게작법(나비춤),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등등.
라) 속성사물반(3개월)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사다라니, 대다라니, 권공의식등, 경쇠, 복다루는법 집중지도
마) 특별반(전문의식반) : 영산재, 예수재, 정안의식반 소수운영
대승경전 강의 수강생 모집
가) 화엄, 법화사상강의 : 매주 수요일 12시 ~ 1시
나) 대승보살도 기초교리과정 : 매주 목요일 12시 ~ 1시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지하철역 정문앞
전화 : 053)622-0333
대구 대승불교대학 의식교육원 원장 합장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조끼 · 몸배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셔츠

8. 셔 츠 ₩60,000 (저이나형, 라운드형)
바 지 ₩70,000
라운드형
차이나형
₩30,000 ~ ₩35,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처가권속을 거느리는 재가불자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자비로운 말과 행동으로 불교를 실천하면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지 않게 편안하게 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재가불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수행법이자 실천법입니다. 물론 수행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한테 도움을 주고, 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던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재가불자 수행법입니다. 은사이신 고암 스님은 잘못해도 잘 했다고 칭찬의 말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남한테 편안한 말을 해줘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왜 못했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따지기만 한다면 잘 할 것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사섭법에서 애어(愛語)라는 말이 있듯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잘못 정확히 짚어주는 일이 올바른 칭찬이자 애어법 실천행

그렇다고 마냥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확히 짚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칭찬이자 애어법의 실천입니다. 바른말을 할 때는 가차 없이 말을 해야 합니다.

해인사에서 정진하면서 겪었던 일을 말해야겠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지나가는 노장 스님에게 인사를 안 하면 '애비 에미도 없어 이 놈들아. 나이 든 어른이 지나가는데 인사할 줄도 몰라' 하며 혼을 냅니다. 그런 것은 훨저히 합니다. 신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도들이 사찰에 기도하러 오면 사찰 예절을 지키도록 잔소리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사중 방을 돌면서 늦은 아침까지 이불 깔고 자고 있는 신도들이 있으면 혼쭐을 냅니다. 당장 내쫓습니다. 물론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 절에 와서 편안하게 있다가려는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 대중들은 나 보고 '가야산 호랑이'라고 합니다. 막 내쫓거든요. 나이든 신도나 젊은 스님들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팹니다. 아직은 내가 힘이 남아도니까 팹니다. 물론 자비문중에서 스님과 신도들을 패면 안 되지요. 말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 때 뿐입니다. 잘 못하면 왜 잘 못 했는지 알려주면서 다독거려주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패지만, 내가 하는 일이 계율에 어긋나거나 경우에 맞게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니까, 또 다들 수긍을 합니다. 경우에 없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바른 소리도 잘 하고, 또 공하고 있지 않고, 화끈하게 해치우고 잘 풀어진다고 해서 가야산 호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경우라는 말은 사람 사는 이치를 말합니다. 남에게 책잡힐 일이나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우 바르게 하니까 다들 잘못한 것을 압니다. 수용하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잘 못하니까 그 때 그 때 지적하는 겁니다.

재가불자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직장생활만 열심히 해도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고, 시간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불교를 바로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따로 불교를 믿어야 불교를 믿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어여 가래이. 서울 갈려믄." 우화당 툇마루에서 스님이 배웅을 하고 있다.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게 불교를 바르게 믿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잘 못하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헛 짓거리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것이 마음의 불을 찾는 일입니다. 직장생활도 잘 하고 책임을 다 하는 것이 마음의 불인 것입니다. 따로 불교를 찾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음의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고 참선입니다. 마음의 불을 따로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생활 속에서 찾으십시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직장생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화두도 들리게 됩니다. 직장 동료를 도반으로 삼아 서로 마음을 맞추고 상대방의 마음에 맞게끔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바로 직장이 바로 수행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수행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나 재가불자들은 칼 없이 도둑질할 수 있는 배짱을 키워야 합니다. 왜 세상을 잘 못 삽니까. 이런 세상의 이치만 안다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그건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힘은 바로 뒷심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거나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뒷심과 이해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됩니다.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수행은 출가자든 재가불자든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기자가 본 정원 스님

스님은 이 말부터 했다. "야야 가라이! 내가 신문에 나서 뭐할 긴데. 확 칠까 보다. 아새끼리." "스님, 저기…." 말꼬리를 슬며시 내려야 했다. 잠시 후, 말 한마디가 대뜸 던져졌다. "총각이가? 아예 머리 깎아야 겠고만." "네?"

정원 스님과의 첫 대면. '가야산 호랑이'란 스님의 별명을 잊고 있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승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석에서 야단을 친다는 말상좌 수완 스님의 사전정보를 상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 히든카드는 있었다. '활화산같이 쏴 붙이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담아 두지는 않는다'는 수완 스님의 말. 은근히 오기가 생겼다.



◇승가의 자급자족을 강조하시는 정원 스님. 부처님 팔아먹는 짓을 하지 말라고 법문하신다.

"스님! 소싯적에 한 주먹 하셨다면서요?" "고럼, 날라 다녔지. 운동도 잘해. 정구, 태권도 뭐든지 잘해." "와! 그러세요." "고럼. 참 물을 게 뭐가 간단 간단히 해. 뭐 말할 것도 없어."

잘못 가차없이 질책… '가야산 호랑이'

대화가 이때부터 플리기 시작했다. 출가하게 된 사연, 팔순 노구를 끌고 동안거에 들어간 이야기. 실타래 풀리듯 술술 흘러나왔다.

스님은 해인사 팔순의 을축생 4명 동갑내기 노스님 중 한 분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극락전 도견 스님, 우화당 송월 스님, 그리고 정원 스님이다. 지난해 해인사 동안거 때는 목숨 내놓고 하루 12시간씩 화두를 붙잡았다. 죽을 때까지 정진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석 달 간 가부좌를 틀었다. 정원 스님이 겨울동안 하는 '잣까기 정진'도 스님의 수행열을 짐작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잔손이 많이 가는 잣 까는 그 과정을 통해 불같은 성격을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2년 마흔 가까운 나이에 출가한 스님은 25년 황해도 몽금포에서 태어났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을 은사로, 66년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75~76년 첼원 심원사, 76~80년 고성 건봉사, 80~83년 문경 김용사 등에서 주지 소임을 맡았다. 특히 스님은 건봉사 주지 재직 시절, 남북으로 갈려 유실된 사찰 토지를 되찾는데 앞장섰고, 2000년부터는 가야산 환경과 해인총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가야산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오성 스님(1)

오성 스님은 바다 곁에 산다. 스님의 절에 가 있으면 어디서나 바다를 볼 수 있고 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의 방에서 문을 열면 바다의 내음과 바다의 소습, 소리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 절의 해우소에서도 바다는 작은 창을 넘어 아름답게 들어온다. 방에서도 해우소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스님의 절은 바다가 절이 되고 절이 바다가 되는 아름다움이 있다.

바다 곁에 오래 산 오성 스님에게서도 나는 바다의 소리와 내음을 맡는다. 그에게서는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림이 있다. 그것은 슬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일 수도 있다. 그 울림은 물결이 들고 나는 것처럼 마음을 밟고 와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져 간다.



그림 · 문병성

그러나 바다가 지혜로운 것처럼 스님 역시 지혜롭게 시간의 빛 가까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의 그 깊은 울림 그리고 가끔씩 쓸쓸해 보이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다만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내가 해인사에 처음 방부를 들이러 갔을 때 오성 스님을 처음 만났다. 스님은 그 때 내가 방부를 들이려고 하는 치문반의 반장 소임을 살고 있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또 한 학기가 시작된 가을 어느 날, 방부를 들이기 위해서 그의 앞에 서 있는 내게 스님은 대단히 위대해 보였다.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리벙벙해 있는 내게 스님은 자상하게 방부에 관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내게 기다리라고 하며 말했다.

"스님이 해인사 강원에 살고 못살고는 오늘 우리 반 스님들이 대중공사를 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스님들이 찬성을 하면 해인사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대한다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님이 우리 반에서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는 문득 겁이 났다. 방부는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온 내게 반장인 오성 스님의 그 얘기는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방부가 안되면 당장 어디로 갈 것이며, 그토록 위세 좋게 은사스님의 절에 더 있으라는 부탁도 뿌리치고 온 순간들이 갑자기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나는 초조하게 밤이 오기까지 대중공사의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장 스님의 얘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밤 늦게서야 그는 방부 합격 소식을 가지고 왔다. 방부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뛸 듯이 기뻤다. 그 한 마디에 은사스님에 대한 생각과 거처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날려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방부 결과는 다음 날 아침에 알려 주는 것이 통례였지만 오성 스님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미리 알려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방부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의 말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스님과 만났다. 만약 스님의 친절함이 없었더라면 나는 해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방부 절차·방법 자세히 알려줘
제주 역사·문화에 해박한 지식

저 밋밋하게 중노릇의 초년시절을 보냈을런지도 모른다. 스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의 사람에 대한 애정과 진지함이 얼마나 큰 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의 그 친절 역시 그런 삶의 자세에서 나온 자연스럽게 결과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나 스님은 그 후 일년 정도를 함께 공부했을 뿐이다. 사집반이 되고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부른다면서 제주도 절로 떠나고야 말았다.

나는 방학을 하면 도반들과 함께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가곤 했다. 스님은 우리에게 제주의 명소만을 안내해 준 것만은 아니다. 제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마치 향토 사학자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만큼 그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닷가에 홀로 앉아 있거나 바다를 거닐 때 얼핏얼핏 보이던 잡히지 않는 그의 외로움이었다. 출가한 수행자 치고 외로움의 기억 하나 없는 이 없지만은, 스님곁에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던 그 외로움의 모습은 유독 짙고 크게만 다가와 내 가슴 한 편을 쓸쓸하게 물들여 나갔다. 외로움을 안고 있으나 외로움을 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의 사람 속내는 얼마나 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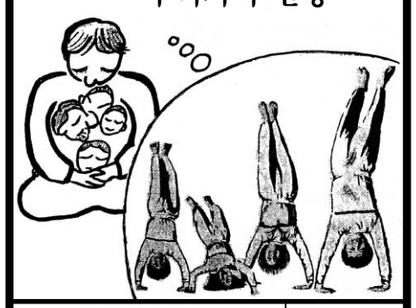
문득 스님의 깊은 세월의 얘기를 들을 날이 언제인지를 헤아려 보곤 했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曼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증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일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주역이 있는 것 처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치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온갖 과정에서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서 상상을 하기만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우뇌훈련,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로 쓰이는 타로카드도 오리지날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제1단계 :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氣에너지 요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튠먼트라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氣요법가겸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어튠먼트는 우리의 온몸을 단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준)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1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션빌딩809호

춘 천 옥 매 트
홍 삼 메 딕 스
오랜경험의 자연치유 전문점 - 미병 · 난치병 모두상담
우리가족 건강 …

기氣 흐름이 생명력을 좌우한다!
기는 건강의 많은 문제를 풀어냅니다.
구증구포 전통홍삼 제조비법 최초 과학화!
경북과학대학 바이오건강연구소 개발 특허!
옥정수와 춘천옥을 넣어 증숙한 기가 강한 홍삼원액을 마시고 춘천 옥매트 위에서 주무세요. 참으로 온갖 건강을 도모합니다.
일화하나 : 무릎 연골이 달아서 일어서기가 힘드셨던 80세 할머니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펄쩍펄쩍 뛰어 보이십니다.
판 매 품
◆ 옥매트(진품)
◆ 홍삼원액
◆ 홍삼제조기
서비스품목
◆ 척추교정
02-777-0105 헬스테크상사



◇'달마야 놀자'의 속편 '달마야 서울 가자'가 내년 6월말 개봉된다. 사진은 '달마야 놀자' 주인공 4인방. 왼쪽부터 류승수, 이문식, 정진영, 이원종씨.

"달마야 서울 가자"
내년 1월 '크랭크 인'

'달마야 놀자' 속편, 6월말 개봉 예정
정진영 등 전편 활약 4인방 모두 출연

2001년 개봉해 전국 400만 관객을 동원한 '달마야 놀자'의 속편 '달마야 서울 가자(제작 (주)타이거 픽쳐스, (주)씨네월드)'가 3년 만에 관객들을 찾아온다.

전편 '달마야 놀자'는 산사에 침입한 건달들과 절을 지키려는 스님들과의 한판 승부를 다룬 이야기였다. 그러나 속편에서는 스님들이 서울에 있는 절로 부임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절을 지키기 위해 건달들과 벌이는 소동을 그리게 된다. 영화 속 배경은 서울이지만 실제 촬영장소는 부산지역 사찰들 중에서 섭외중이다.

전편에서 스님 역할을 맡아 활약한 스님 4인방 정진영 · 이문식 · 이원종 · 류승수 씨가 이번 속편에도 그대로 캐스팅 돼 화제다. 1편을 만들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이들은 '달마야 놀자'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그만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달마야 놀자'의 속편 출연요청에 4명의 배우들은 각자 바쁜 스케줄과 영화촬영을 위한 삭발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전편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높아진 출연료와 개성이 짙어진 각자의 캐릭터. 해병대 출신의 청명 스님(정진영 분)은 더욱 터프해진 모습으로, 현각 스님(이원종 분)은 환상의 당구 솜씨로 서울 건달들을 상대한다. 묵언수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던 수다쟁이 명천 스님(류승수 분)도 이번 영화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묵언수행에 들어간다.

스님들과 팽팽한 대립구도를 이루는 건달의 우두머리 역할에는 신현준 씨가 캐스팅 됐다. 신 씨가 맡은 역할은 엘리트 건달 '범식'으로, 전편의 '재규(박신양 분)'처럼 스님들을 절에서 쫓아내기 위해 갖은 궁리를 다하는 인물이다.

'장미빛 인생', '축제'의 각본을 쓰고, 2년 전 '아이언 팜'으로 데뷔했던 육상효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달마야…'는 총 25억원을 들여 제작된다. 오는 2004년 1월말부터 촬영을 시작해 6월말 개봉할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불교특색 묻어나는 프로 주력"

한국아나운서상 수상, 불교방송 이선희씨



"불교계 방송으로서의 특색이 살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17일, '2003 한국 아나운서 대상' 라디오 진행상 부문을 수상하게 된 불교방송 이선희 아나운서(사진)의 각오가 남다르다. 이 아나운서는 1990년 불교방송의 개국때부터 '새 날, 새 아침', '거룩한 만남', '무명을 밝히고' 등 거치지 않은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맹활약해 온 불교방송의 간판급 아나운서다.

데뷔 18년차나 되는 중견이지만이 아나운서는 현재 매주 월~토요일 밤 'BBS 초대석'을 진행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마이크 앞에 설 때면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이 아나운서는 "앞으로 30년이 넘도록 사랑받는 아나운서가 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다"며 소감을 덧붙였다.

한상희 기자

끊임없는 자기탐구·수련 새로운 세계 캔버스에

강정희씨 인사동·부산서 연속 전시

우리의 인생은 잠시도 머무름없이 매순간 떠남을 반복하고 있다. 그 떠남은 단순한 여행에서부터 자기자신을 찾고자 하는 무거운 이유까지 다양하다. 바로 화가 강정희씨가 안정된 생활을 하던 뉴욕에서 화구를 급히 꾸려 인도로 떠난 까닭도 결코 평범하지 않다.

끊임없는 자기 탐구와 모색을 통해 이제까지 고수해 오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를 캔버스위에 펼치기 위해서다. 그래서 붓의 터치로만 캔버스의 화폭을 채우지 않고 테트핀을 부어가며 작업을 했다. 과거처럼 붓으로만 그리기엔 너무 경직된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다.

또한 '머나먼 땅' 인도에서 성지순례와 '고엔카 명상센터'에서의 명상수련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수련을 계속 했다. 이런 고뇌의 시간을 통해 토해낸 작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된다. 12월 1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열리는 '강정희 展'이 바로 그것이다. 작품전의 준비작업 때문일까. 이번 전시에 선보인 대다수 작품 제목들에 불교적 냄새가 가득하다.

'쉬는 마음', '응답', '자유로운 존재', '깨달음의 완성', '떠나는 자' 등이다. 특히 '자유로운 존재'는 태어나서 늙어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가면서도 미지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중생의 모습을 그렸다. 또 '깨달음의 완성'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를 형상화 했다.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이 펼쳐져 있지 않아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강씨의 작품을 대하면 작가의 구도열정에 대한 이심전심이 전해져서 인지 법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느낌이 든다.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부산 해운대 갤러리 몽마르트르에서 부산 순회전시를 갖는다. 서울(02)730-0030, 부산(051)746-4202

김주일 기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를 형상화 한 강정희씨의 '깨달음의 완성'.



◇수안 스님의 선서화

도롱뇽 소송을 위한 수안 스님의 선서화展

천성산 도롱뇽 소송인단은 결성된지 3일만에 10만을 넘어섰다. 이제 1백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만큼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선서화가 수안 스님도 이번 운동에 일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그 일환으로 12월 13일 오후 4시부터 부산불교회관 4층 대전시실에서 기금마련 '선서화 특별전'을 연다.

이 전시회에는 수안 스님의 신작 50점이 선보인다. 여기에 불교계 화단의 이름있는 작가들도 힘을 보탠다. 이철수씨와 정비파씨의 목판화, 한기늠씨의 조각, 김성욱씨의 수간채색, 황신규씨의 선묵화, 성공스님의 달마도, 김연씨의 회화 작품 등 80여점도 전시된다.(051)623-9220

김주일 기자

문화소식

티베트 관련 다큐멘터리 OST모음 음반집 출시

미국에서 상영되고 있는 티베트 관련 다큐멘터리 'Cry of the Snow Lion'의 OST 음반이 출시된다. 내주에 선보이게 될 이번 앨범은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나왕케촉과 에미상 수상자인 제프빌이 공동으로 작업 했다. 티베트의 전통악기 연주를 비롯해 염불,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티베트 음악을 만날 수 있다. (02)762-0232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展

한국디자인 진흥원은 12월 18일까지 코리아 디자인센터 전시장에서 '제 1회 국가 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석굴암, 거북선, 다보탑, 무궁화, 아리랑, 태극기 등 다양한 유무형의 디자인들이 출품돼 선보일 예정이다.(031)780-2161, www. designdb.com/kidp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BS 불교방송	Btn 불교TV
05:45 고승열전	05: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09:05 차 한잔의 선율
11:10 행복스튜디오	11:10 행복스튜디오
15:05 음악의 마을	15:05 음악의 마을
17:10 무명을 밝히고	17:10 무명을 밝히고
21:30 BBS 초대석	21:30 BBS 초대석
24:00 살며 생각하며	24:00 살며 생각하며

하이라이트

■**불교방송**:△살며 생각하며(12월 18일 24:00~02:00)-가수 장연주 씨가 진행하는 심야 프로그램. 음악 속에서 삶을 생각하며 하루를 정리해 본다. 매주 목요일에는 일주일간의 인터넷 베스트 검색어를 통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클릭! 베스트 검색어'가 방송된다.

■**불교텔레비전**:밥상에 도가 있다(12월18일 09:10~10:00)-몸에 질병이 없어야 피부가 아름답다. 피부는 건강의 거울이며, 피부병은 질병을 예고하거나 질병의 진행상태를 나타낸다. 12월 18일 방송되는 27강 강의에서는 건강한 피부와 신체를 유지하기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동지기도안내

◎ 오는 12월 20일 부터 12월 22일까지 동지삼일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그리고 동지기도에 즈음하여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최초로 우리말사언절로 완역한 동봉스님의 42번째 책 <<예수재의>> (<<일원곡>>제7권)를 동참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법보시합니다. 오는 2004년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봉행되는 예수재 의식집으로써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제1차 49재 및 송년법회

◎ 일시 : 2003년 12월 21일(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정신세계 쇼핑몰에는 명상과 관련한 모든 물품들이 총망라돼 있다. 사진은 크리스탈 주발을 시험해 보고 있는 고객. 사진= 고영배 기자

명상 열풍 상품 순풍

명상 생활화로 용품 관심
심, 신 안정도와 선물로 Good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명상 열풍이 예사롭지 않다. 위빠사나와 요가, 기공 등 명상 관련 강좌는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명상법과 효능 등을 다룬 서적 역시 연일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있다. 특히 '생활 명상'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명상법과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됐다.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피라미드 고깔모자, 인체의 기운을 정화하는 자수정 팔찌 등이 낯설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근사한 선물준비로 여념없는 연말연시, 몸과 마음의 안정을 돕는 이들 명상용품에 눈을 돌려 보는 건 어떨까? 선택에 지침이 될 만한 몇 가지 명상 용품들을 소개한다.

● 명상음악
고를때 체험 · 사상적 깊이 고려

최근 유키구라모토, 앙드레가뇽 등의 뉴에이지 음악이 '명상음악'이란 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보급되면서 정신의 안정과 정화를 추구하는 음반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명상나라 대표 손민기 씨는 명상음반을 고를 때는 "작곡가나 연주자의 명상체험이나 사상적 깊이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명상음악은 단순히 '기분을 다스리는 감미로운 멜로디'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크레이그 프루어스(Caig Pruess)나 데바 프레말(Deva Premal) 등 오랜 기간 수행과 명상을 이어온 작곡가의 작품들을 권할 만하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멜로디, 자연의 소리와 닮은 가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만트라(진언) 등을 현대적 감성으로 개량한 음악 등이 돋보인다.

● 향
기혈수행 돕는 '보림향' 등 다양

최근 '웰빙' 흐름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 '스파(SPA)'에서도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강회복과 심리치료를 위한 향기요법 또한 대체의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기능 제품으로 각광받는 향은 명상용품에서도 빠질 수 없다. 인사동 한 지차향가 대표 박윤재 씨는 몸의 독소를 빼내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자금향', 정신집중에 좋은 '징관향', 기혈순행을 도와주는 '보림향' 등의 전통향을 권한다. 이외에도 티베트 사원에서 명상용으로 제작한 판챠 붓다향, 티베트 의학 기술을 이용해 긴장 완화 효과를 주는 '낫샤향' 등도 명상용 향으로 좋다.

● 현대화된 고대 명상용품
주발 이용 몸의 기 일깨워

'사운드 치료'란 소리의 위상과 주파수를 이용해 통증 및 질병을 예방 · 치유하는 방법. 암치료 전문가인 미첼 가이너 박사는 암환자 치료에 크리스탈 주발과 티벳주발을 사용한 사운드 치료를 벌이고 있다. 크리스탈 주발은 수정 특유의 파동과 에너지를 응용, 고대 티베트인의 치유 · 명상 방편으로 사용돼 온 도구다. 정신세계 쇼핑몰 팀장 이언식 씨는 "크리스탈 주발의 진동은 인간 신체 내부에 있는 공명을 일으킨다"며 "신체내부의 공명은 몸의 강(降)을 진동시켜 뼈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몸의 차크라(기에너지가 모이는 곳)들을 일깨우는 동시에 심신의 정화에도 좋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소리를 이용한 명상 용품에는 내부의 에너지를 일깨우는 진동음을 내는 '에너지차임', 집 안팎에서 자연의 소리를 내는 윈드차임(풍경) 등이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희담석 방석



원적외선 방출량과 세포 활성화 능력이 뛰어나 '생명의 돌'이라 불리는 '희담석'으로 만든 방석이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직장인, 수험생, 스님에게 원기와 활력을 심어주며, 수면시 베개 대용으로 쓸 수도 있다. 명상시 이용하면 더욱 좋은 용품. 값은 19만8천원.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플라타너스 낙엽



30대 초반의 한 부인이 저를 찾아온 건 늦가을비가 거리를 적시는 오후였습니다. 부인은 플라타너스 잎이 떨어지고 있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저를 찾아 온 용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살던 부인의 어머니는 27살 때 3살바기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을 친정에 맡겨 놓고 살길을 찾아 홀로 상경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다 마지막으로 잡은 직업이 포장마차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 장사 할 재료들을 챙겨서 손수레에 싣고 버스정류장으로 나가서 5시경에 장사를 시작하시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장사는 토스트를 구워 파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계란과 채소가 듬뿍 들어간 어머니의 토스트는 인기가 있어서 손님 대부분이 단골손님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추석과 설을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오나 포장마차를 끌고 버스정류장으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 온 단골손님이 허탕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부인이 서울에 온 건 중학교 입학 때였는데 서울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손수레를 앞에 놓고 토스트를 구워 파는 어머니 모습 이외의 모습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 손수레 토스트 커피 병 우유팩이 연상 작용처럼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오나 버스정류장에서 토스트를 구워서 파신 건 어머니 뒤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부인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 어머니의 애물단지이면서도 희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몇 몇 남학생이 접근을 해 왔지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가난한 남학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느라 마음이 끌리는 남학생이 있어도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보다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만큼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절실했던 부인은 자신이 맞추어 놓은 조건에 맞는 남자와 결혼을 해 결혼 초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일찍 조실부모하고 백부님 밑에서 자란 남편은 가난하지만 생활력이 강해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해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5평 아파트를 장만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가 어머니와 자신이 경험한 최초의 행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 사업은 조금씩 마장이 끼기 시작하더니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자 어머니는 다시 전에 했던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버시는 돈이 자신들의 생활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정을 설명하고 난 부인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눈은 이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가 박복하셔서 남이 하지 않는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일생동안 하시면서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든 시간이 없어서든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한테 맛있게 요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어머니의 역할도 하찮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저도 어머니처럼 포장마차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서 그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포장마차에서 토스트를 구워 파는 일은 가장 밑천을 적게 드리고 할 수 있는 장사니까요.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 제가 그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가 문젭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저만은 남들처럼 버젓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희망을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지 않는 지방에 가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 봤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헤어져 살게 되니 그 일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더군요. 선생님한테 오려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토스트를 굽고 계신 어머니를 몰래 지켜봤는데 하얗게 센 머리위에 플라타너스 낙엽이 하나 얹혀져 있더군요. 낙엽이 머리위에 얹혀져 있는 것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개의치 않고 그냥 두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얗게 센 머리위에 얹혀져 있는 플라타너스 낙엽을 보는 순간 그 낙엽이 어머니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희망을 지켜드리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서 몰래 장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희망을 무너뜨리더라도 어머니 곁에서 장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머니 · 아내 똑같이 소중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化緣 (02)704-3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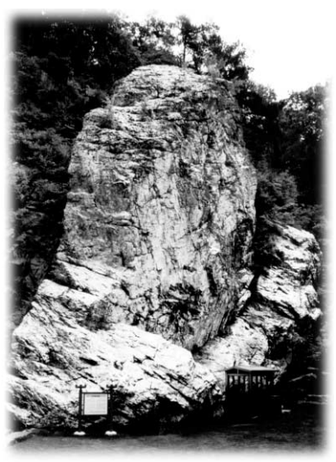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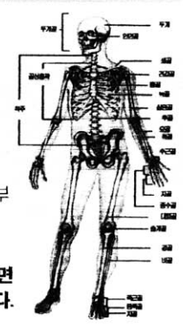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응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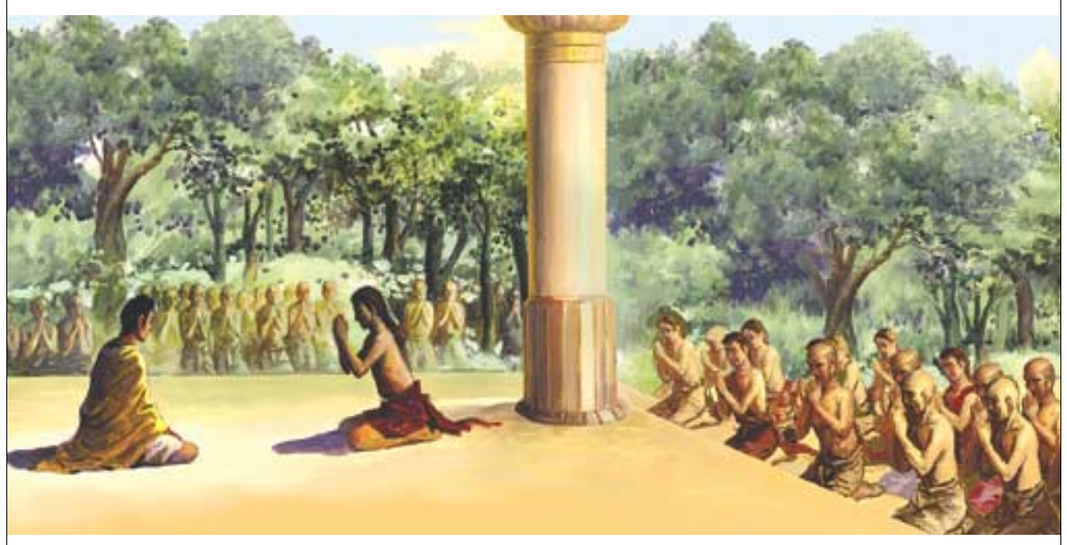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1화 외도와 데바닷타

붓다가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불교 포교운동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스라바스티에는 이미 여러 교단에 속한 수행자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교단을 만들어 소속되어 있었으며 재가신들로부터 의식주의 기부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대에 육사외도(六師外道)라고 하는 여섯 사람의 대표적인 종교가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푸라나 카싸파(Purana Kassapa), 막칼리 코살라(Makkhai Gosala), 파쿠타 캇차야나(Pakudha Kaccayana), 아지타 케사 캄발리(Ajata Kesa Kambeli), 산자야 벨라티풋타(Sanjaya Beletthaputta), 니칸타 나다풋타(Nigantha Nataput ta) 등이다. 이들 중 막칼리 고살라가 아지비카교를 이끌면서 유행했고 산자야 벨라니 풋타는 그 제자들을 모두 다 붓다에게 빼앗기고 피를 토하며 죽고 만다. 또 니칸타 나다풋타는 지나교의 개조(開祖) 마하비라(Mahavira)를 말하는데, 이들은 때를 기다리는 숙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불교진출 이전부터 스라바스티를 중심으로 커다란 종교적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어서, 스라바스티 사람들은 이미 이들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이들 중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종교가 지나교와 아지비카교 등인데, 이들은 고행(苦行)을 중시 여겨 생활은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게 하고 자기의 육체는 많이 괴롭히는 것이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기 몸을 학대하기 위하여 가시나 바늘방석에 앉기도 하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며 자기 나름대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이때에 그 고행의 방법이 극심하여 고통스러울 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처럼 살을 깎는 고행을 하면서도 불을 피워 제물을 바치는 등 형식적인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지나교나 아지비카교도들은 간소한 생활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발가벗은 채로 아무데나 돌아다녔다. 소위 나형외도(裸形外道)라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지나교는 나중에 나형파(裸型坡)와 백의파(白衣坡)로 갈리게 되는데 나형파쪽은 가르침이 엄격하여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전 나체로 일관하며 고행도 극단적으로 맹렬하게 행하고 있었다. 부처님도 초기엔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행을 감행했었고, 부처님 최초의 다섯 제자들도 일반적인 수행방법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러한 이들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이들의 수행방법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붓다의 불교교단은 이들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었다.

붓다가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접어들면서 이들 기성 종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리하여 붓다의 아지비카교에 대한 평가가 불전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막칼리 코살라(Makkhai Gasala)는 많은 사람을 파멸시킨다. 마치 하구(河口)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은 자다." 이와 같은 평가는 그 교의(敎義)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또, 종교 활동이 지나치게 격렬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지적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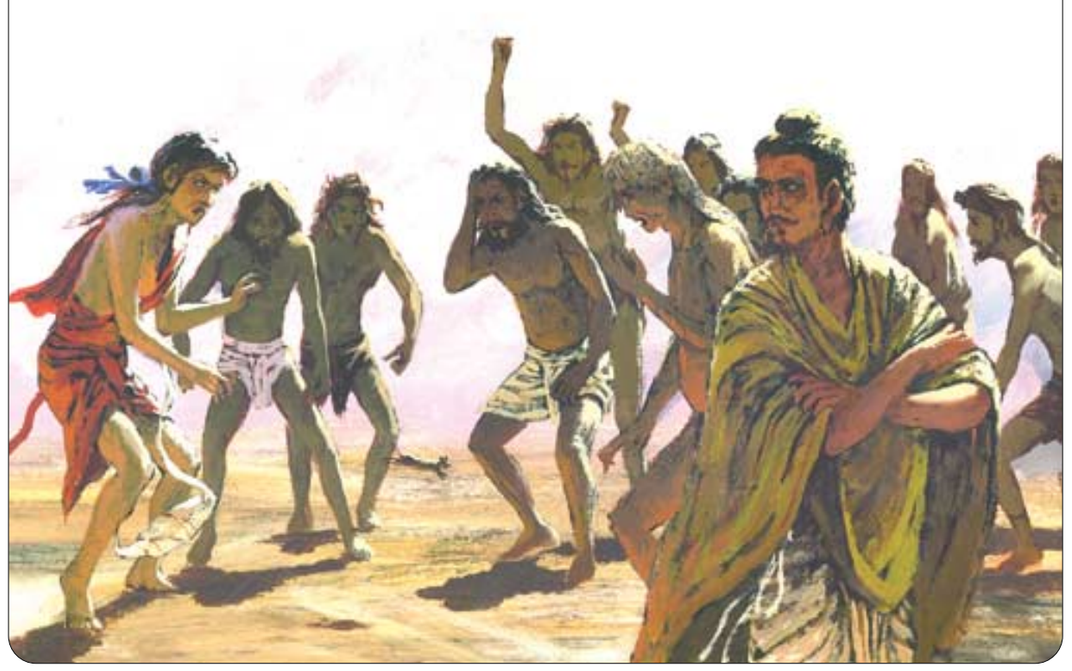
붓다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가며 시민들이 기존 종교를 떠나 불교에 기우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불교에 대한 저항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으니, 그중의 한 설화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의 종교장로들이 자구책(自救策)으로 불교를 타도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는데 붉은 옷을 입은 거리에 친자라는 예쁜 여자 수행자로 하여금 붓다에 접근하여 붓다의 아기를 잉태한 듯 꾸민다.

차츰 배가 불룩하도록 만들어 출산을 준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붓다의 아이임을 선포하고 붓다를 도덕적으로 매도하며 신흥불교의 세력을 꺾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어디선가 네 마리의 쥐가 달려들어 여인의 옷을 물어뜯으니 그만 배위에 임신을 가장하기 위하여 감았던 전들이 풀어지며 진실이 밝혀졌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는 이유도 붓다의 초기 불교에 이교도들이 얼마나 당황했으며 또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데바닷타 (DEVADATTA)

붓다의 정력적인 포교활동의 성공은 마침내 코살라의 국왕 프라세나짓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기성 이교도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기원정사 안에 그 뿌리를 내림으로써 증명되었다. 비록 기원정사가 안정을 찾았다고는 하나 아직은 초기의 발전단계여서 붓다가 한 곳에만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교단의 중요한 몇 사람을 데리고 다시 마가다의 죽림정사로 옮겨갔다.





이제 붓다의 불교가 인도 제일의 신흥종교로서 성장했음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불교의 세력을 이용하여 위세를 과시해 보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악역으로 유명한 데바닷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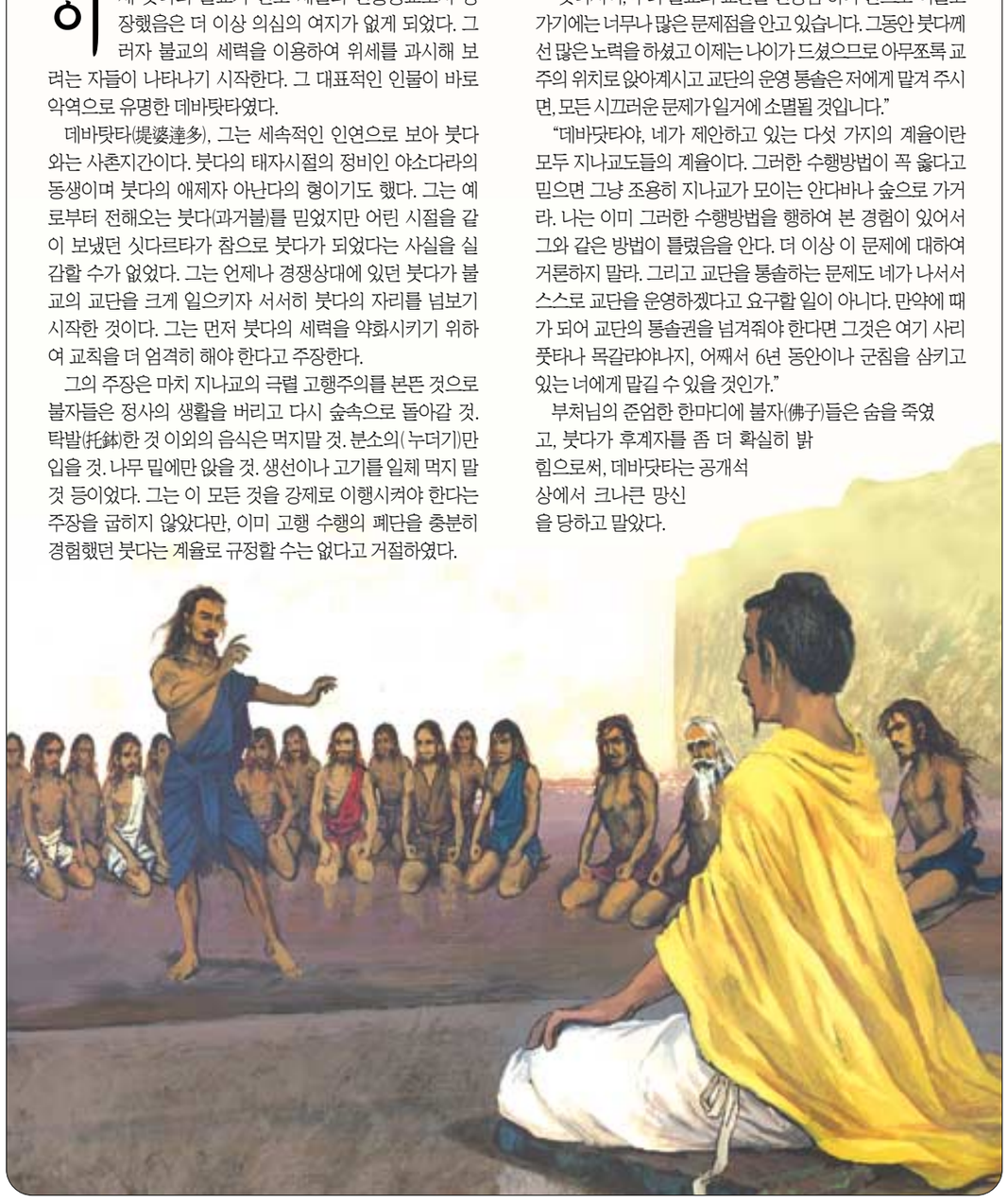
데바닷타(提婆達多), 그는 세속적인 인연으로 보아 붓다와는 사촌지간이다. 붓다의 태자시절의 정비인 야소다라의 동생이며 붓다의 애제자 아난다의 형이기도 했다. 그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붓다(과거불)를 믿었지만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싯다르타가 참으로 붓다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경쟁상대에 있던 붓다가 불교의 교단을 크게 일으키자 서서히 붓다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먼저 붓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교칙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마치 지나교의 극렬 고행주의를 본뜬 것으로 불자들은 정사의 생활을 버리고 다시 숲속으로 돌아갈 것. 탁발(托鉢)한 것 이외의 음식은 먹지말 것. 분소의(누더기)만 입을 것. 나무 밑에만 앉을 것. 생선이나 고기를 일체 먹지 말 것 등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강제로 이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만, 이미 고행 수행의 폐단을 충분히 경험했던 붓다는 계율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붓다시여, 우리 불교의 교단을 신앙심 하나 만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붓다께선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제는 나이가 드셨으므로 아무쪼록 교주의 위치로 앉아계시고 교단의 운영 통솔은 저에게 맡겨 주시면, 모든 시끄러운 문제가 일거에 소멸될 것입니다."

"데바닷타야, 네가 제안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계율이란 모두 지나교도들의 계율이다. 그러한 수행방법이 꼭 옳다고 믿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교가 모이는 안다바나 숲으로 가거라. 나는 이미 그러한 수행방법을 행하여 본 경험이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이 틀렸음을 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지 말라. 그리고 교단을 통솔하는 문제도 네가 나서서 스스로 교단을 운영하겠다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때가 되어 교단의 통솔권을 넘겨줘야 한다면 그것은 여기 사리풋타나 목갈라야나지, 어째서 6년 동안이나 군침을 삼키고 있는 너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의 준엄한 한마디에 불자(佛子)들은 숨을 죽였고, 붓다가 후계자를 좀 더 확실히 밝힘으로써, 데바닷타는 공개석상에서 크나큰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데바닷타는 붓다로부터 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오랜 생각 끝에 빔비사라 국왕의 아들 아자타샤트루(Ajatasatru) 왕자를 후원자로 정하고 그를 찾아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사실 요즈음 빔비사라왕이 붓다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붓다의 법을 따르려는 징조가 보입니다. 왕자님이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부왕께서는 이 나라를 붓다에게 넘겨줄지도 모릅니다."

"데바닷타여,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왕위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일이 없지만, 데바닷타라면 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하여 그간의 사정을 말해 주리다. 사실 벌써부터 부왕(父王)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죽림정사만 찾아가 붓다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왕대신 국정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오계만 잘 지키면 되는지요?

문 인터넷을 통해 불법을 인연하게 되었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계를 수지하는 것이 정식 불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계의 내용을 보면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느 사회, 어느 종교에서든지 꼭 실천해 나가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계라는 덕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그리고 오계만 잘 지킨다면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있는지요?

오계를 받든 십계를 받든 안으로 놓고 진실하게 행을 해야

답 어찌 오계뿐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이 사방의 한 사람으로서 오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는 물질과, 여러 모로 그 형상을 볼 때에 하나도 헛되이 볼 수도 없고, 헛되이 들을 수도 없고, 헛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돌아가고 같이 나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계를 지킨다 하는 것도 오계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듯이, 이 세상 만사 만물이 다 저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듯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물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에서도 천차만별로 생명들의 모습들이 뛰고, 밖에서도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끝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산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끝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낮은 걸 보면 낮다고 생각을 하고 높은 걸 보면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더 넓고 지혜 있게 생각을 한다면 낮은 거에도 끄달리지 않을 거고 높은 거에도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낮은 게 없으면 높은 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높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낮은 것이 있으니까 알고 보면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공부를 증득하지 못하고 오계를 방편으로만 설하고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닌 까닭에 온누리에 부처님의 그 뜻이 한 찰나에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계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지만, 계를 설하는 사람의 한생각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았느냐는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수계를 하게 되면 책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 줄창 얘기하지만 수없는 나날을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성장됐을 때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없구나. 공했구나. 오늘은 고정됨이 없이 고정관념이 없이 고정 행이 없이 돌아가니, 찰나찰나 나투며 돌아가니 그 또한 없구나.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까, 내가 생각했다고 할까? 그 이름 없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도리가 바로 주인공이구나.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색이니 어떠한 것을 이름해서 붙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주인공의 뜻에 모든 것을 놓고, 거기서밖에는 들이고 내고 해결을 못한다.' 하고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진짜로 믿을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오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계를 받아서 지녔다고 하지만 문 밖에 나서면 오계를 그냥 의식으로만 받았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戒)란 그것을 진실하게 실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과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음을 하면 식구들도 불안하고 몸도 병이 들고 모두가 여러 가지로 나쁜 것이니 그것을 바로 고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치면 자기 신상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서 결정을 짓고 실천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대로 통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계를 받아 실천하는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통신이 뭐냐 하면, 아직 가설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가설을 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는데, 내 집에 전화를 가설을 해야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방에 녹음장치를 해서 붙여 놓았다면 연방 자기가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그대로 녹음이 돼서 그냥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자동통신기가 있어서 항상 우주법계에 상응이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지키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천리 밖에서라도 알고 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다 녹음장치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통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그렇게 통신이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지, 누가 뭐 뺏어가고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거나 미래에 올 것이나 모두 현실에 내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정말이지 세세생생 발이 묶여서 그 의식을, 즉 말하자면 모든 관습을 떼지 못해서 죽어서도 살아 있는 낭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불에 빠져 죽을까 봐 강도 못 건너가고, 산이 높아서 못 건너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이러니 그저 다시금 재생이 돼서 나오든가 천도가 돼서 직접 나오든가 이러질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듯 남의 손을 빌려서 항상 해야만 되니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계를 받는 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계를 받으려고 하고 신심을 내서 진실하게 행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걸 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무겁고 깊숙하고, 어저께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 무거운, 평등 진리에서 참,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계를 받든 십계를 받든, 받되 그것도 거죽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안으로 놓고 진실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일체 사람들이 전부 옴죽거리는 거 모두 자기 주장자가, 즉 불성이 자기를 이끌어 가니깐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가려면

문 친구의 문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제 친구가 오랜 동안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켜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 친구의 말로는 자기 속에서 여러 명이 있어서 이렇게도 시키고 저렇게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현대불교에 나온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생각하기로는, 자기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님,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확고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요?

답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싸 가지고 돌아가는 우주 전체의 그 중심 주처가 우리들의 중심 주처이기도 합니다. 좀 작고 클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주처에 그 큰 중심 주처가 둘이 아니게 직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생활하는 그 곳에 바로 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직결이 돼 있구요.

만물만생의 마음 그 중심 주처,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음들의 주처가 바로 우리의 마음 주처에 같이 가설이 됐다는 얘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은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서로 뜻으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으로 말미암아 일체가 다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도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바다의 소임자를 주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의 관리인을 주산신이라고 했구요, 풀과 나무들의 관리인을 주림신이라고 했구요. 마음의 중심 주처라는 그 주가 모든 관리를 합니다. 갖가지 천차만별의 이름들이 다 주어져서 하나도 버릴 게 없이 그 소임을 맡아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신입니다. 그리고 또 주신들끼리 모여서 회담을 하거나 서로 통하게 하는 소임자를 주주신이라고 합니다. 천체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중심 주처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높고 낮고, 길고 짧고, 넓고 좁고, 크고 작고,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다 상대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주처, 주인, 주장자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주장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꿴 주장자와 내 주처의 주장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는 가설이 돼 있고, 위아래를 받치고 꿴 거는 같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세가 일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을 안 세워 놓고 그냥 가는 사람 다르고, 주인을 딱 집에다가 세워 놓고 가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항상 걸림 없이 집을 보도록 주인을 세워 놓는다면, 자기 주처를 세워 놓는다면 그게 바로 보현이며 법신입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세워 놓음으로써 바깥에서 악행, 즉 말하자면 인과성이나 윤회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이나 영계성 이러한 잡다한 유전에 의한 것들이나 어떠한 거를 막론하고 거기를 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한다고 주인공 뿌리를 세워 놓은 거는, 세워져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 찾아서 거기 세워 놓은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포함해서 돌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죠.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붙을 리가 없어요. 먼지 하나도 거기 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분에게는 번뇌도 붙을 자리가 없고 업보도 붙을 자리가 없고, 유전성이나 인과성 윤회성 업보성 영계성까지도 전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세워 놓지 않고 마음공부를 안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을 세워 놓지 않았으니 집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숙명통 자체가 포함된 오신통이 지금 현대 말로 하자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구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된다면 그 입력된 대로 가차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행이 저질러지거나, 윤회성이 저질러지거나, 영계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말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몸뚱이 속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도록 돼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것이 가차없이 자꾸자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주인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과 직결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기고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빨리 대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치를 못하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상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내 집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인과로써 영계가 드는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길에 오다가다가도 드는 수가 있습니다. 차에 치여 죽은 영계가 착을 두고서 그 자릴 떠나지 못해서 드는 수도 있습니다. 저 나무에, 즉 말하자면 목신이 돼 가지고서는 붙어 있다가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 비었으면 그 빈집에 자꾸 드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속에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빈집이 돼서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윤회성으로 들어오고 영계성으로 들어오고 인과성으로 들어온 것은 병원에 가도 어렵습니다. 그냥 몸에서 난 병이라야 병원에서도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유전으로 온다거나 영계성으로 온다거나 또는 바깥에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집이라고 하고 사는 식구들이 한 집안에 둘 셋씩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내 집이라고 하며 살 때는 이 소리 하고, 또 딴 사람이 내 집이라 하고 내가 산다 하고 내가 제일이라 하고 살 때는 또 딴 소리 하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참회는 어떻게 하나요?

문 우리 인간이란 언젠가 한번 죽는 건데 믿음으로써 그 죽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걸 제 나름대로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인간이란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살게 마련인데 그 죄를 누구한테 용서를 비는가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가면 예수님, 성당에 가면 천주님, 또 스님께서는 자기의 근본,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참회를 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내가 참회를 하고 내가 행을 고치면서 스스로 함이 없이 해야 합니다

답 왜 한마음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포괄해서 전부 공했다는 뜻입니다, 마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주인공' 하면은 일체가 다 공했으니까, 내 마음과 육체와 모든 물질이 다 공했으니까 그 공한 도리를 표현하자면 전체 바다와 같다 이 소립니다.

아무리 연못에 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 연못의 물은 스며서 바다로 들게 마련이고, 바다에서 또 흘러서 연못으로 들어가게 마련이니 그 얼마나 묘한 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내가 있음으로써 근본이 되고 주장자가 되고, 그것이 화두가 됨으로써 바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깐 한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체도 없고 빛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여전히 소리는 나고 여전히 몸을 움죽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자기는 생각하기 이전을 추구하고 믿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형상에다가 빌어 봐서 되는 것도 아니요, 허공에다 빌어 봐도 헛손질이요, 또는 어느 스님을 믿어도 그건 헛것입니다. 오직 그 뜻과 행과 말이 일치됨으로써 '아, 내가 따를 만하다.' 하면 따르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물체를 보고 따르는 거고 그 어느 스승한테 따르는 것이지, 믿는 것은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참회를 하고 내가 행을 고치면서 내가 하는 거지, 딴 사람한테 나를 참회해 달라고 그러고 내 행을 고쳐 달라고 해 봤던들 그건 말뿐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야 한다든가 안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본래 인간으로 태어나올 때에 기본적 상식이나 양심이나 교양은 가지고 나왔기에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잘되고 크고 작고를 다 알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이전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이전이라는 것은 자기 영원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홀랑 해말갛게 벗어진 자기 불성 말입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끔 되고, 생각을 하면 바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반면에 말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의 마음 주장자 주인공자리에서 일체가 들고 남을 믿고, 오직 거기를 의지하고 모든 걸 놓는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활을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참선이며 그게 올바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29면에서 계속

면서 자꾸 내가 바뀌지니까 미쳤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육신이 망가지죠. 첫째 몸이 망가져요, 부지를 못하게 하니까요. 나가라, 들어와라, 앉아라, 나가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이거는 견뎌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의 식구들까지도 지망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니 마음공부를 안 하고서야 어떻게 하겠느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고 너부터 그 본래 있는 거를 찾는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섭류를 네 자신이 잘 알 수 있으리라. 그럼으로써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그렇게 자유인이 된다면 네가 바로 부처고,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되느니라.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된다면 바로 그 법에 의해 자유로운 작용이 스스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쑥 빼고 '부처님, 날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내 병고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외쳐 봐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 봐도 그거는 끄덕도 하지 않고 통하질 않습니다. 통하는 길은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부처님과 통하는 길은 바로 내 마음속의, 내면의 털구멍 한 구멍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안 하고 주인공 주장자를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장자를 세워 놓고 거기다가 모든 걸 놓고 굴려서 대치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꿴 주장자와 내 주처의 주장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직결되고 가설돼 있어

답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긍정적으로만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그대로,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관념 속에서 '이건 부정이다!' 하고 부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부정 쪽으로 들어가서 긍정으로 나오게 되려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깐 부정도 긍정도 다 놔 버려라 이러는 겁니다.

부정도 긍정도 다 놔 버리게 되면 내가 생활해 나가는 그대로 그것이 여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부정적으로만 들어가서 병신이 돼 가지고 다시 긍정으로 나오려면 참 힘들다 이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들어갈 때는 부정적으로 들어갑니다. 부정적으로 들어갈 때는 무의 법유의 법을 다 놔 버리고 부정적으로 그냥 들어 간다 이겁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긍정을 받아서 나올 때 그것은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걸 제거하고, 제거하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 몸까지 버렸을 때는 다 그냥 계법이 있고 없고가 없습니다, 다 버리니까. 부정적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래 다 버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과정에 뭐 그렇게 여러 말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몰락 놔 버리면 될 걸. 그러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들어가려고만 하지도 말고 긍정적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지도 마라.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다 모든 것은 네가 하는 거다. 다 놔 버려라! 다 놔 버리되, 그것이 놔 버려라 하면 허무하게 돌아갈까 봐 그건 공에다 놔 버려라! 이렇게 방편으로 세운 겁니다. '공의 기둥한테다 모든 걸 일임해라! 놔 버려라!'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신이 벌써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하고 움죽거리고 하는 것이 그대로라구요.

우리가 지금 현대의 과학적인 문제라든가 문명적인 문제라든가 철학이다 불교다, 어떠한 교를 막론하고 이 시대에 긍정적으로 우리 생활에 합류화 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거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 전자의 몇 천 년 전이라든가 몇 백 년 전이라든가 이때의 생활수준하고 지금 생활수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그 뜻과 지금 생활과 부합시킬 수 있는 고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전자에는 부정적으로 그냥 막 들어갔다가 다시 긍정적으로 나오는 공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요. 우리가 벌써 나올 때도 빈 자리로 나왔지만 우리가 사라지는 자체도 그런 빈 자리에서 사라진다고요. 그럴 때는 나온다 들어간다 하는 걸 몽땅, 그것도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세워 놓고 몰락 놔 버려라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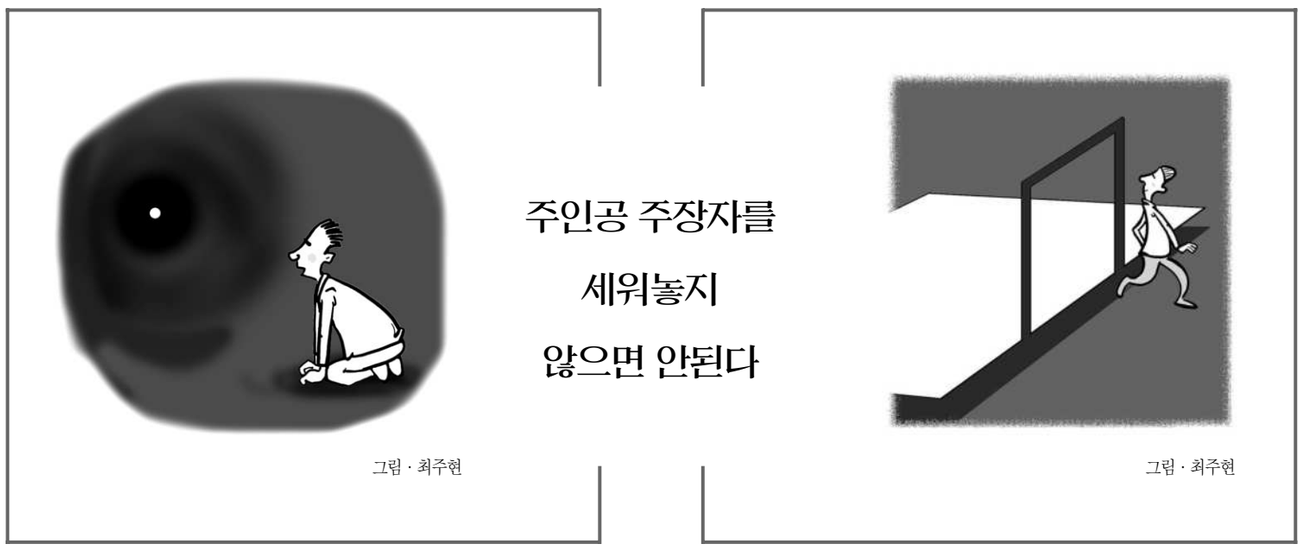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거를 몽땅 놔 버렸을 때 비로소 스스로 자기가 그냥 생활하는 것이 여여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완전히 선다고요. 섰을 때, 그렇게 지금 현상세계의 그 모두를 관여할 수 있고 관해 볼 수가 있고 관해 들을 수가 있고, 모든 걸 생활에서 조금도 어김없이 해나갈 수 있는 거를 다 자기가 착복할 수 있고 또는 내줄 수 있고 들일 수 있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빨리빨리 이것을, 지금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또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는 말은 예전부터 했지만 지금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개발이 돼서 자꾸 돌아가는 반면에, 전체가 지금 우리의 마음 돌아가는 대로 빠르거든요.. 전자에는 10분 동안에 돌았다면 지금은 마음이 초를 다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를 다투면서 또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공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개발하고 물질로다 과학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간 거지 딴 데서 나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꼭이 이거는 그냥 전자에 어렵게 했던 거를 고대로 따라서 하기 이전에 벌써 발달이 돼서, 지금 로케트를 타고 가면 빠르지 않아요? 그때는 차가 없어서 걸어갔다구요. 걸어간 얘기를 지금 해야 하겠습니까. 몇 십 리 가자면 며칠이 걸렸다 이런 말 하게 생겼어요? 지금 몇 시간이면 비행기를 타고서 벌써 미국을 왔다 갔다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깐 예전에 부처님도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내 체가 없이 무형에서, 즉 무의 용을 할 수 있으며 유에서 내 몸을 움죽거리면서 용을 할 수 있는 거며,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생활에 접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우리 생활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말로 떨어지는 것이고, 삼위일체가 똑바로 맞아 떨어져서 내가 하나라도, 열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집어 먹는 거를 위주로 한다면, 생활에 적응된다면,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지금 불교 자체가 융성하게 하려면 그 도리를 꼭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살불살조의 선지에 대해서

문 불교학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선사어록에 보면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미당지' 이렇게 외치신 것에 대해서, 후에 선사들이 "염병할 놈의 늙은이!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사지를 찢어서 개한테나 던져 줄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선가의 화두가 돼 버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체에 걸림이 없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나 어구나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해 가지고 그것조차도 부숴야만 된다는 말씀이어서 올바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부정하다가 보니까 살불살조의 선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부정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 처럼 느껴집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말세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문 요즈음 세상이 전부 말세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성경 같은 데를 보면 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느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세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로 통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서 14만 4천명이라는 말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영생을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비추어지는데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때가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스려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말세가 온다고 그러는 거는 자기네들 생각에 따라서 지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포괄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개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러한 생각이 들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그리고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 불! 불이라는 그 자체는 자기 각자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전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문제예요. 마음으로 자기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틀림없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는 그 자체를 모르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는 수명이 짧지만 태양계나 은하계 별성은 수명이 깁니다. 지구 자체도 그렇고요. 지구 자체도 집과 같아요. 우리 몸뚱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길다 짧다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몸을 가축하는데 몸만 혹사를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것도 편안하게 마음을 두고 했다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울부짖음에 따라서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 집이 망가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건실하고 건전하지 못하면 지구도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지구의 대기권에 의해서, 지구에서도 그렇게 마음에 의해서 들이고 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자에서 입자로 분자가 돼 가지고 대기권을 지키고 들이고 내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나가는 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그 작용 때문입니다, 생명의 작용. 우리 인간도 이 몸에, 즉 말하자면 3미터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모습들,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깐 세균성도 끌어들이기도 하고 나쁜 거는 내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말세가 오고 불로 심판을 받는다더니 심판은 다 받고 넘어갔는지 모르지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대로 받게 마련인데, 지옥이란 게 딴 데 있는 겁니까? 그리고 말세가 오는 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지어서 모두 바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자식부모지간에도 그렇고 "요놈의 새끼, 그렇게만 해 봐라. 그렇게만 하면 깡통 차기 똑 참하다." 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러는 형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다 하는 겁니다. 거죽으로는 욕을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그런다면 바깥으로 꼭 그렇게 되니, 무슨 일을 해도 잘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팔자 운명이 붙을 데가 없습니다. 과거는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배낭 속에 모두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엔 공했으니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디 뭐 붙을 자리가 있어서 말세가 오고 뭐가 오고 그렇다는 겁니까?

모두 마음들이 잘못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를 가져오는 것도 마음이요, 말세를 안 가져오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말세를 안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말세가 온다 안 온다에 끄달리지 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마음을 밝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온다 안 온다에 끄달리지 말고 오직 자기 마음 밝히도록 하세요

기쁘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자비와 정의, 도덕적 사회 구현의 필수”



World focus

인도 최초 불자 대학 총장

발찬드라 뭉게까르

14살 때 암베르까르 박사 따라 귀의
대학내 불교학 연구 기반 마련 원력

지난 2000년 5월 16일, 인도 역사는 또 하나의 ‘새역사’를 창조했다. 최초의 불자 대학총장, 그것도 다름아닌 최고 명문 중 하나인 뭄바이대학교(Mumbai university) 총장이 불교도 중에서 탄생한 것이다. 인도에서 ‘불교도’가 갖는 사회적 함의가 ‘불가촉천민’, ‘소외된 소수파’ 등으로 다른 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불자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당시 신문의 사회면은 거의 그 소식으로 채워지다시피 했었다.

새 역사의 주인공은 발찬드라 뭉게까르(Balchandra. Mungekar) 박사. 천민출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뭄바이대학의 총장이라는 자리에까지 이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11월 25일 총장실에서 만난 뭉게까르 박사는 자그마한 키에 얼굴엔 늘 미소를 띄고 있지만 두툼한 안경 너머 엿보이는 다부진 눈매가 그가 헤쳐왔던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의 뭉게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4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였다. 남의 땅에서 품을 팔아 근근히 가족들을 부양하던 그의 아버지는 이후 두 남매의 어머니 역할까지 도맡아야 했다. 중등과정까지 고향 마을에서 교육을 마친 뭉게까르 박사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고향 마을에 남겨 둔 채 뭄바이로 진학한다.

청운의 꿈을 품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었지만, 뭄바이에서의 생활 역시 만만치 않았다. “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해가 지고나면 책을 들고 거리의 가로등 밑에 가서 공부하곤 했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을 생각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는 ‘인도 은행’에 취업했다. 그렇다고 자신의 꿈인 공부를 포기해 버리기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는 직장에 다니는 한편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주경야독’은 그가 박사학위를 받을때까지 계속되었다.

뭉게까르 박사가 불법에 귀의한 것은 14살 되던 해인 1960년. 1956년 개종한 암베드까르 박사를 따라 온 가족이 불자가 된 이후부터다. 이 때는 그저 아버지의 결정을 따른 것에 불과했지만, 17살 때에 암베드까르 박사가 쓴 불교 교리서 <붓다와 그의 법>을 읽고부터는 불법이 인생의 지침이 되어왔다고 그는 말했다.

뭉게까르 박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자비와 정의. 이 두가지는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보다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가르침으로서, 이러한 교리를 통해 불교가 사회 전반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뭉게까르 박사가 가진 원력은 그의 총장 재임기간동안 뭄바이 대학에 불교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은 이를 위해 불교학 전담 교수직을 신설하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주(駐)인도 한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교수직 신설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도 뭄바이= 이지은 통신원

불교, 美 주류사회 급속히 확산

‘볼티모어 썬’지 보도
합리적 종교, 지식인들에 큰 관심
명상 효과 증명되며 인기몰이

불교가 합리적인 종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가 미국 백인 주류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12월 7일, <볼티모어 썬> 지가 보도했다.

썬 지는 “일반인들이 열반이나 오늘날 서양화된 명상법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불교는 지식인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과학자들은 뇌파 기록장치나 자기공명장치로 명상 중인 스님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술, 악물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명상을 ‘이완 요법’이라 부르며 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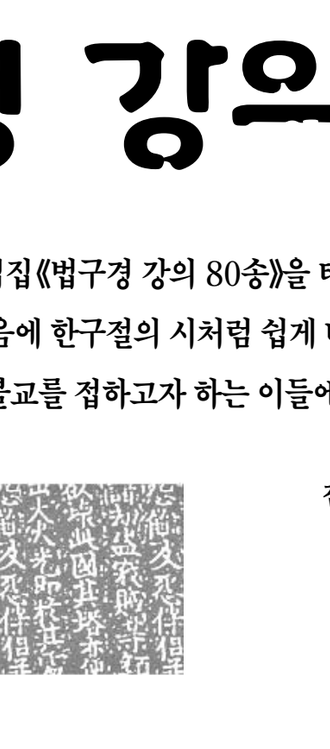
메릴랜드대학 그렌 쉴라디 교수는 “명상의 효율성은 제대로 된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됐다”고 밝혔다. 매일 아침 15분 정도 명상 수행을 한다는 그는 “명상이 몸 안에서 스트레스와 반대 방향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명상은 자동차 세일즈맨인 밥 패롯씨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몇달 전 암 진단을 받은 밥 씨는 서점인 반스 앤 노블스에서 명상 안내서를 구입해서 읽은 후부터 매일 명상에 빠져지내고 있다. 밥 씨는 “명상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며 “명상을 통해서 자동차 세일즈 맨, 남편, 아버지가 아닌 바로 내 주인공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발견을 통해 죽음의 공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썬 지는 명상이 신경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인됐다고 보도했다. 명상 효과는 75년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의 ‘이완 반응’이 소개된 이후부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썬 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 이유는 서양인들이 명상 수련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명상 중인 자동차 세일즈맨 밥 패롯 씨.

대만 불교계, 정신의학계 우울증 환자 돕기 나서

최근 대만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자살 사건과 우울증 환자의 급증과 관련, 중화대승불학회(中華大乘佛學會)와 ‘우울증 예방 치료협회’가 공동으로 ‘영혼의 상처 구제 운동’을 발기해, 국민들이 21세기의 심리 질환의 심각성을 중시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화대승불학회의 저성(徹聖) 스님은 “현대인의 우울증은 바로 유행성 감기 같아, 사회의 모든 힘을 모아 에방책을 마련해야 할 할 때”라고 역설했다.

대승불학회는 우울증 원인, 증상 및 치료 방법 등을 해설한 ‘우울아, 안녕!’이란 VCD를 제작해 무료로 시민에게 나눠 주고 있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중국 장춘에 88미터 불상 건립

중국 지린(吉林)성의 창춘(長春)세계풍경 공원은 2004년 이 공원에 88.08미터 높이에 달하는 북령산(北靈山) 대불(大佛)을 세울 예정이다.

북령산대불은 우시(無錫)의 영산대불과는 자매관계라 할 수 있는데, 우시의 영산대불은 18미터로 언니, 북령산대불은 88.08미터로 동생격이다. 이로써 이 두 대불은 중국의 남북 불교를 대표하며 이어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 한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⑧ 뉴저지 주립대 종교학과

동아시아 불교연구가 중심
문화학과와 다양한 연구 진행
매해 3천명 이상 수업 참석

“552년 한국인이 불경과 불상을 가져오면서 일본 불교는 시작됩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후에도 유교, 도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가 한반도에서 전해졌습니다.”

25 일 뉴저지 주 뉴 브룬스위크 러커스(Rutgers) 유니버시티. 종교학과가 위치한 로리빌딩 대강당에서 지나 코간(Gina Cogan) 교수가 ‘동양의 종교(Religion Of The Eastern World)’ 수업 중 일본 불교의 유래를 설명한다. 한국이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다는 사실이 ‘불교’하면 일본 불교의 ‘젠(Zen)’을 연상하는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 눈치다. 특히 불교의 영향으로 ‘카미’를 숭상하는 일본의 토속 종교인 ‘신도’가 생겨났다는 사실은 더욱 신기할 뿐이다.

뉴저지 주립대를 의미하는 ‘러커스(Rutgers).’ 러커스는 뉴왁, 뉴브룬스위크, 캠덴에 위치한 대학들의 모임으로, 종교학과는 뉴 브룬스위크에만 있다. 컬럼비아 대학 등 명문 사학의 유명세로 한국인들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졌다.

이 대학 종교학과의 특징은 동아시아 불교 연구가 강세를 띤다는 점이다. 컬럼비아, 프린스턴 대학이 기독교 신학 연구의 오랜 전통을 쌓아왔다면 주립인 러커스는 뉴저지, 뉴욕의 동양인 커뮤니티를 위해 동아시아 종교와 문화 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불교학자인 첸 방 유 교수가 학과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불교학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그는 중국 불교의 관음 신앙을 다룬 , , 등 불교학 연구서를 펴냈다. 또한 9명의 조교수 중 무려 네 명이 불교학 또는 동아시학 연구자다.

학과장 첸 교수는 72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불교학 박사를 받은 이후 러커스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그의 관심분야는 중국 불교사, 중국 종교, 여성문제 등이다. 이밖에 헨리 보우덴, 에드윈 브라이언트, 알버트 그린 교수 등이 미국의 종교, 힌두교, 기독교 신학, 종교철학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학과목으로는 불교학, 동아시아 종교, 힌두교, 종교와 정치, 종교와 사회(세미나) 등이 운영 중이며 동아시아 문화학과와 함께 다양한 협력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학과 왕 반 교수도 저명한 불교학 연구자로 꼽힌다. 다만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근 명문 사학에 가려 종교학과 대학원 과정은 없다.

러커스 종교학과에서는 2000년부터 안나 모건을 기리는 강연회(The Anna Morgan Lecture)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강연회에서는 여성, 티베트 불교, 사형제 문제 등에 대한 불교적 접근법이 다루어지며 영화 ‘데드맨 워킹’의 저작 헬렌 프레진 수녀, 달라이라마 대표 나왕 랍갈 박사 등이 참석했다.

첸 팡 유 교수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매해 3000명 이상이 종교학 수업에 참석하며 종교학을 전공,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은 2002년 107명, 136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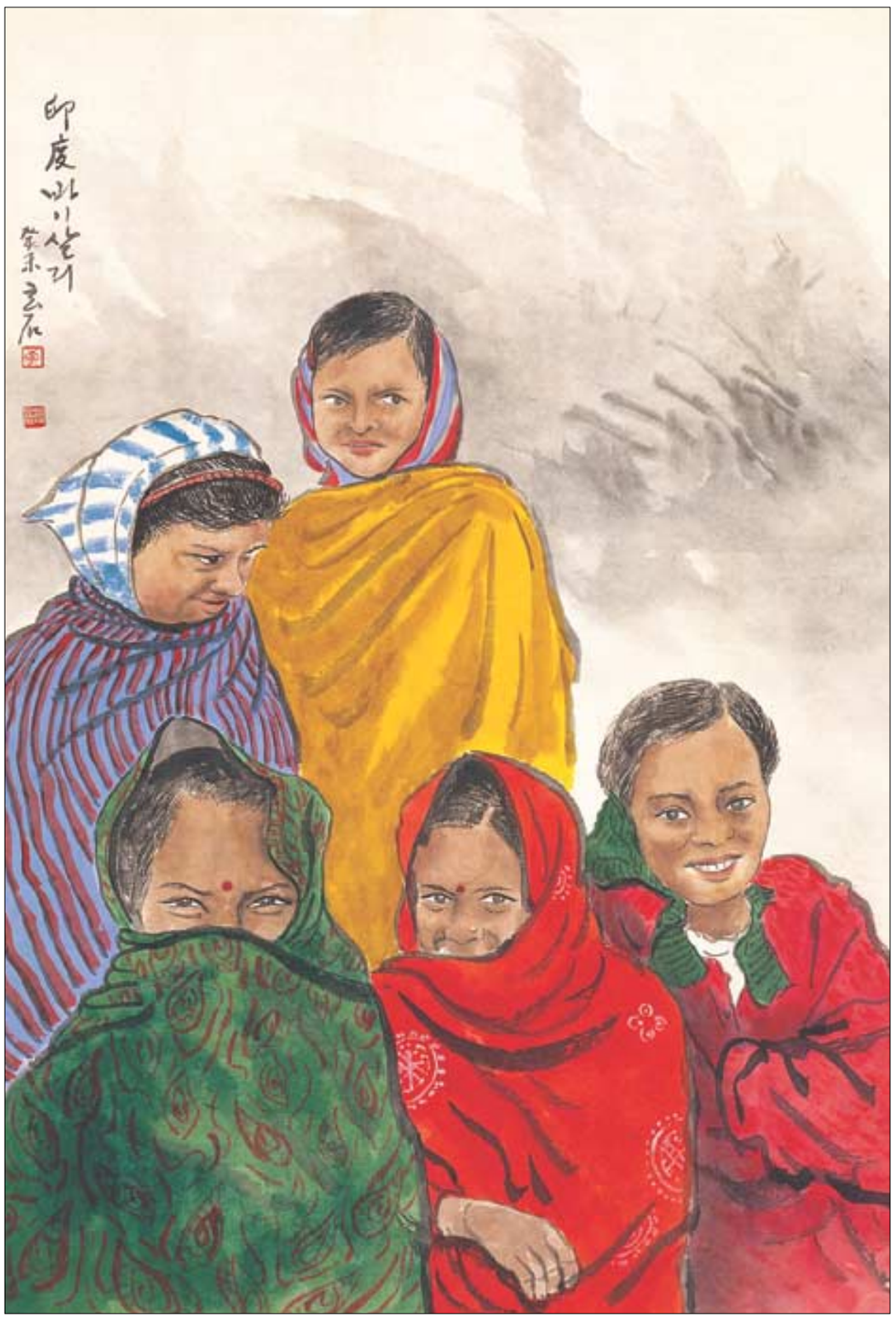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공양’의 어여쁜 흔적이여!

마지막 설법 기념위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석주
망고동산 부처님께 희사했던 기녀는 없고 거목만….



인도그림기행 29

그림·글 이호신

우리시대의 유마를 찾아서

(유마 거사 집터와 아쇼카 석주)

“부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나른한 시간, 차에서 졸고 가는 일행들을 깨우기 위해 스님께서 ‘인도기행’을 통해 느낀 바를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발표하자는 제의에 벼락같이, 그러나 조용히 말씀하시는 어른이 계셨다.

성지탐방은 석가세존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처럼 믿음과 확신에 찬 노인의 음성 앞에 일행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일찍이 송광사 구산선사(九山禪師) 문하(門下)에서 수행하며 평생 보살행을 실천해 오신 달공(達空) 조홍식(趙洪植) 박사님(82세, 불문학전공).

대낮에 기원의 등불을 켜고 유마의 집터를 찾아 가는 길에 우리는 오늘 한국의 유마 거사와 함께 옛 유마의 고향집을 찾아간다.

“일체 중생이 앓고 있으므로 나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일체 중생의 병이 사라지면 내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유마 거사)

“유마 거사의 보살행처럼, 그의 스승이신 부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조 박사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중병에 대해서 단호한 진단을, 그리고 실천행을 주창하신다.

“공기와 수질의 오염과 환경파괴를 막아 지구를 지키는 지름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소비자의 각성에 있다. 이 각성만이 세계를 오염으로부터 지키고 인간성을 부패로부터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로부터 해방돼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마음부터 청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명제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 나의 소비를 줄여 굶는 이웃과 나누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리라.” (조홍식, <달처럼 매화처럼> 316쪽)

망고 동산을 붓다께 기증했다는 기녀(妓女) 암라팔리 집터 주변을 유마 거사의 집터로 짐작하고 찾아갈 뿐 그 어떤 표식도, 안내판도 없는 쇠똥마을.

마치 쇠똥 페스티벌이 열린 양 어느 것은 벽돌을 찍은듯 하고 또 떡을 썰어놓은 듯한 형상이 차곡차곡 곡물처럼 쌓여있다. 그리고 길목마다 무성한 노거수는 가는 줄기가 뿌리로 다시 뻗어 내리는데, 그 거목의 기상은 허공 속에서 천지의 기운을 장악하고 있다.

마침내 유마의 집터로 알려진 마을은 가난하다기 보단 자연 속에 의지한 생활과 가옥구조이다. 대나무로 엮고 볏짚으로 깔대기처럼 엮은 창고며, 빗살로 벽을 둘린 초가지붕, 그 위에 빈대떡 같은 쇠똥 땔감은 아직도 원시의 삶에 그대로 닿아있다. 습하고 기온의 차가 심한 지역인지라 소들이 모두 거적을 쓴 채 여물을 먹고 있으며 유일하게 녹슨 수동펌프 하나가 이곳 생활의 문명으로 비쳐졌다.

마을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오고 어여쁜 소녀들이 수줍어하며 일행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해맑고 순박한 소녀들이 입은 옷은 매우 화려한 색상이다. 뜨겁고 강렬한 원색의 드러남 속에 감추어진 부끄러움과 수줍음이라니….

“이렇게 마을 구경이나 할 게 아니라 다음 순례객을 위해 ‘유마 거사 집터 팻말’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소. 우리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십시다.”

달공 거사, 조 박사님의 말씀에 모두는 마음속으로 갈채와 성원을 보냈다.



◇바이살리 아쇼카석주(45×30.5cm).

오후의 일정은 인도에서 유일하고도 완벽하게 남은 아쇼카 석주와 스투파를 찾아간다. 인도 국장이 사자상인 만큼 기대되는 아쇼카 석주.

콜후아(Kolhua) 마을에 위치한 석주와 스투파는 매우 거대하고도 건장하게 남아있었다.

현장 스님은 “아쇼카 왕이 세운 스투파가 있는데 옆에는 돌기둥이 있다. 높이가 50~60척인데 위에는 사자상이 놓여 있다”고 기록한바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보는 듯 하다.

특히 석주의 높이는 6.6m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지형상 세존께서 행하신 마지막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추정한다. 주변엔 현재 발굴이 진행중인 유적들이 즐비한데 붓다께서 머물며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설했던 곳이 또한 이곳 중각강당(重閣講堂)이 아니었나 짐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에 전하는 원숭이 연못(Markatahra-da-tire). 원숭이 떼들이 붓다에게 꿀 공양을 바쳤다는 연못은 돌사자상 석주 바로 뒤쪽에서 살펴졌다. 그 연못에 그림자를 드리운 한 거대한 망고나무는 옛 사연을 함께 듣고 있는지. 기상 높은 석주와 쌍을 이루어 물결에 어린다.

스투파 제단엔 붉은 천에 노란 꽃을 꿴 두개의 목걸이가 바쳐져 있고 벽돌 틈새마다 향이 꽂혀있다. 그리고 손 때 묻은 몇 장의 루피가 돌맹이에 눌린 채 팔랑거린다. 어느새 몰려들었는지 화첩을 펼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별난 구경이나 되는 셈인지 화첩과 스투파를 번갈아 손짓하며 낄낄거린다.

아예 자리를 깔고 먹을 갈며 물감까지 펼쳐놓은 나를 눈치 챈 일행들은 오늘 모두 나에게 유마가 되어준다. 따가운 햇볕 속에서 염송과 탑돌이를 지속해주는 고마운 배려로 그림이 이루어진 까닭이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 바이살리의 소녀들 (64×92cm).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행운을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합격필통을증정합니다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과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의 점수가 약 5~10%까지 격차가 나는 통계를 보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수험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등을 차단하여 건강이 약해지는 수험생들의 건강을 도와줍니다.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는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꼭 몸에 지니고 시험을 치르면 금강의 강한 기와 마음의 안정으로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농 협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생명의 빛 생명의기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 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으로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20분 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뻐근하며, 어깨가 뭉쳐있는 것도 없어지며 몸이 개운해 집니다. 또한 천식등 기침을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만 주무시고 일어나면 기침이 줄어듭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큰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음이온은 공기속의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cc당 약2,000個 정도 공급되는 음이온을 첨가한 은행석은 신경계, 혈관계, 근육계, 내분비계등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각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자율신경의 기능에도 효과적이며 항상 맑은 공기를 공급하여 항시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 합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한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갱년기 주부님들,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지며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 문의전화 : 금강닥터사 (02)722-1850 ♠ 농협 : 170-12-056037 정애영

氣가발산되는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문향이 은은하게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를 수입 하여 한정 판매합니다.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현으로 숭앙되고 있는 수행자이시며 포대화상 향로로 조각하여 많은 사찰 및 스님들께서도 소장 하고 있으며 불자님들의 집에나 사업장에 두시면 화를 쫓고 복과 행운이 오며 사업도 번창하고 소원 성취 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 웃음을 주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을 베풀어주며 불심을 전파하고 포교 활동의 매체가 되도록 기원 합니다. 포대화상 향로는 정교한 조각 예술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 집니다. 또한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복 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예불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포대화상 향로 입니다.

◈ 크기 : (대)가로26cm 폭15cm 높이16cm 가격 155.000원 (소)가로 20cm 폭12cm 높이16cm 가격 95.000원
(수공예품이라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 3210-3170 /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